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용수

심방의 입무의례 연구  
- <초공본풀이>와 신굿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hamanic Initiation Ritual of Simbang  
-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Chogong-bonpuli*' and '*Shin-kut*' -

경상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봉순

2005. 8.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용수

심방의 입무의례 연구  
- <초공본풀이>와 신굿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hamanic Initiation Ritual of Simbang  
-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Chogong-bonpuli*' and '*Shin-kut*' -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함

경상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봉순

2005. 8.

문봉순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위원장      박 성 석

---

위 원      유 재 천

---

위 원      최 용 수

---

경 상 대 학 교 대 학 원

2005. 8.

# 목 차

Abstract .....	i
<b>I. 서 론</b> .....	1
1. 연구 목적과 방법 .....	1
2. 선행 연구 검토 .....	5
<b>II. &lt;초공본풀이&gt;의 구조</b> .....	14
1. <초공본풀이>의 서사 단락과 이본 비교 .....	14
2. <초공본풀이>의 구조 .....	26
1) 무조신의 내력담 .....	27
2) 심방의 내력담 .....	31
<b>III. &lt;초공본풀이&gt;와 신긋의 관계</b> .....	38
1. 신긋의 의미와 <초공본풀이>의 기능 .....	38
1) 신긋의 의미 .....	38
2) <초공본풀이>의 기능 .....	41
2. <초공본풀이>에 근거한 심방의 입무 과정 .....	58
1) 입무의 허가 .....	58
2) 정통성 확보 .....	66
<b>IV. 심방의 입무 의례 특징</b> .....	98
1. 명도 물림을 통한 사제권 세습 .....	98
2. <초공본풀이>의 모방을 통한 신성성 확보 .....	103
3. 역례 올림을 통한 굿법의 학습과 사회적 인정 .....	108
<b>V. 결 론</b> .....	112
[참고문헌] .....	115

Abstract

## A study on the Shamanic Initiation Ritual of Simbang

-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Chogong-bonpuli*' and '*Shin-kut*' -

Moon, Bong-So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yong-so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principle of '*Shin-kut*'(shaman ritual of Jejudo) which is made up the script, '*Chogong-bonpuli*'(heroic epic of Jejudo) and then to reveal the unique aspects which *Simbang*(shaman of Jejudo) includes. As a trial to find out the personality *Simbang*, this main study looked into the characteristics which are based on the relation '*Shin-kut*' called shamanic initiation ritual of *Simbang* and shamanic ancestry myth '*Chogong-bonpuli*'.

The followings are the process of discussion about this subject.

In chapter II, as a premise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 '*Shin-kut*' and '*Chogong-bonpuli*', the end of paragraphs which '*Chogong-bonpuli*' has were divided in to each the end of a paragraph. The whole order of '*Chogong-bonpuli*' was looked around under what system makes each paragraph be related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confirmed that '*Chogong-bonpuli*' consists of the part first half and the latter half. Namely, '*Chogong-bonpuli*' was continued by '*Bonpuli*' of which two different the founder had the account shamanic ancestry Myth's life and *Simbang*'s life.

In chapter III, the relationship was revealed genuinely '*Chogong-bonpuli*' and '*Shin-kut*'. In chapter III-1 act, the meaning which '*Shin-kut*' has in the shaman society in Jejudo and the function of '*Chogong-bonpuli*' in '*Shin-kut*' were researched. In sequence of the research, it could be confirmed that '*Chogong-bonpuli*' was the Myth recited many times over again.

In the mist of them, '*Youngshin-majee*' (as the process to greet God, singing or performing of Myth) is called '*Dangju-majee*' and the latter half of account *Simbang*'s life in '*Chogong-bonpuli*' were closely connected. Therefore, it was proved that they were the core of which shamanic initiation ritual, *Simbang*.

In chapter III-2 act, it was mentioned that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process and the meaning about '*Dangju-majee*' which was performed by being based on the latter half '*Chogong-bonpuli*' was divided into two parts that has two great aims of "the permission of shaman entrance" and "the security of tradition".

"The permission of shaman entrance" was researched in the

middle of the process '*Yakbap-yaksul*', '*Earin-tain*', '*Yeageamaeul-kut*' and "the security of tradition" was studied in the middle of '*Dangju-gilchigi*', '*Kopeun-myungdo*', '*shoinolleem-kut*', '*Dangju-meaeardum*'. Throughout this research, it was reconfirmed that '*Shin-kut*' is performing on the base of the Myth '*Chogong-bonpuli*'.

In chapter IV, the shamanic initiation ritual in Jejudo *Simbang* were arranged on the base of chapter II, III. As a result of the arrangement, the characteristics were summed as three parts. One is the descent of the priest right through '*Myungdo-mulleem*' (transferring '*Myungdo*'), another is the insurance of sacredness through imitation in '*Chogong-bonpuli*' and the other is the studying of ritual and the recognition in society through '*Yuklea-olleem*' (devoting some of income which was earned by the job of *Simbang*).

This study was intended to make the characteristics in shamanic initiation ritual of *Simbang* clear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yth and the ritual, reflecting the way of treating them in the past as an individual case with disregarding the relationship of them in the meantime.

Accordingly, the meaning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ontents Jejudo *Simbang* which had not been paid attention for a while.

# I. 서론

## 1. 연구 목적과 방법

한국의 무당은 그들의 성무동기(成巫動機)·신관(神觀)·제의(祭儀)에 따라 크게 강신무(降神巫)와 세습무(世襲巫)로 대별되어 왔다.<sup>1)</sup> 그러나 제주도의 심방은 이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존재한다. 무(巫)의 사제권이 혈통을 따라 대대로 전승되는 세습무(世襲巫)의 일면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영력(靈力)을 중시하여 신에 대한 구체적인 신관(神觀)이 확립되어 있으며, 무점구(巫占具)를 통해 신의(神意)를 물어 전달하는 등 강신무(降神巫)의 속성을 지닌다. 이처럼 심방은 세습무와 강신무 어느 한쪽으로 설명해 낼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심방은 한국 무(巫)의 분포와 계통에 있어 특이한 지점에 자리 매김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무(巫)의 기원과 계통에 대한 연구는 그 형태상 유사성을 근거로, 대부분 시베리아 계통의 샤만을 중심으로 한 강신무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의 무속 신앙은 그 전체가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학계의 통념이 된 듯하다. 그러나 북쪽의 강신무와는 별개로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여전히 종교적 실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세습무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강신무와 세습무의 양립 현상은 우리나라가 북방 유목민의 기질과 남방 농·어로민의 성격이 교차하는 반

1) 김태곤은 巫를 그 기능상 무당형, 단골형, 심방형, 명두형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강신 체험을 통해 成巫한 巫로 歌舞로 굿을 주관할 수 있고 영력에 의해 점을 치며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중부와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강신무계통을 무당형, 혈통을 따라 대대로 사제권이 계승되어 인위적으로 成巫한 세습무로서 무속상의 제도적 조직성을 갖춘 호남 지역의 세습무를 단골형이라 한다. 이외에 人間 死靈의 강신체험을 통해서 된 巫를 명두형, 단골형과 같이 巫의 사제권이 혈통을 따라 대대로 계승되는 세습무로서 무속상의 제도화된 일면을 보이면서 영력을 중시하여 신에 대한 구체적인 신관이 확립되어 있는 제주도의 巫를 따로 심방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성격상으로 분류할 경우, 크게 무당형과 명두형을 강신무계통으로, 단골형과 심방형을 세습무계통으로 이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태곤, 『韓國巫俗研究』, 집문당, 1981. 141-142쪽)



도로로서의 특징이 무(巫)의 계통에도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육지(제주도에 대해서)에서의 강신무와 세습무는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지역적 경계 내에서 각각의 특징을 간직한 채 지금까지 종교적 신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한반도에서의 무(巫) 계통에 대한 연구는 샤먼 일변도의 시각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 연구를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습무와 강신무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심방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실제로 심방은 세습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가계(家系)에 의해 사제권이 세습되며, 단골을 형성하고 있는 등 세습무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 심방은 육지의 세습무들이 지니는 사제의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성향을 지닌다. 심방은 일반적으로 세습무들이 강신무적인 습성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의식이 거의 없으며<sup>2)</sup>, 굿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신무적인 요소들을 통해 사제로서의 신성함을 획득<sup>3)</sup>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방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논의는 ‘세습무와 강신무의 중간형’이라고 하거나 ‘세습무의 성향이 강한 무(巫)’라고 정의하는 범박하고 개관적인 수준에서만 머무르고 있다.

무속을 ‘무(巫)를 중심으로 한 민간층의 전승종교 형태’라고 정의한다

- 
- 2) 전라도의 세습무인 단골의 경우,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에 대해 배타적인 인식이 강하여 함께 굿패를 짜서 다니기를 꺼려할 뿐 아니라, 자신들보다 천하게 여기는 경향까지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 심방의 경우, 가계를 중심으로 하는 세습무이면서도 신병 체험을 문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심방 일을 이어갈 자손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여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심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 깊은 명도(明刀)를 물려받아 굿법을 제대로 익혀 법도에 맞는 굿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3) 심방은 강신무가 내림굿을 받고 정식 무당으로 입무하는 것과 같이 신굿을 통해서 무(巫)로서 인정받는 과정을 거친다. 뿐만 아니라, 굿 속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도랑춤과 펄쩍펄쩍 뛰는 도무(跳舞), 금속성의 타악기를 중심으로 한 무악(巫樂)에서도 강신무적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심방의 강신무적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점(巫占)을 친다는 사실이다. 심방은 강신무처럼 신을 몸에 내리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의 말을 직접 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조상(祖上)으로 모셔지는 명도(明刀)로 점을 치고, 그 결과를 보고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면, 제주도 무속은 심방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종교적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심방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선행 작업을 미룬 채, 제주도 굿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 까닭은 굿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굿을 오랜 세월 동안 전승해온 핵심집단인 심방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강신무와 세습무의 중간형이라고 정의되어온 심방의 성격을 입무 의례인 신굿과 그 굿본이 되는 <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제주도의 무조신화 <초공본풀이>는 제주굿의 원리와 함께, 심방이 팔자를 그려쳐 굿을 하게 된 내력과 이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굿법의 전승, 입무 의례로서 신굿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신화이다. 다시 말해, <초공본풀이> 속에는 제주굿의 원리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심방의 내력담과 굿법의 전승 방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입무 의례로서 신굿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심방의 입무 의례인 신굿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굿본이 되는 신화인 <초공본풀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초공본풀이>는 심방에 의해 구술되는 무속서사시라는 관점에서 주로 평면적 층위에서의 접근들이 시도되어 왔다. 물론 <초공본풀이>가 무조신화로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신화적 상징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가치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무속서사시라는 것이 생명력을 얻는 순간은 굿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일 것이다.

신화와 의례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하면서 공존한다. 제주도의 굿이 신화에 근거해서 실연되는 의례라는 점을 상기할 때, 신화와 의례의 관계 속에서 심방의 입무 의례 특징을 밝히는 방법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초공본풀이>를 굿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신굿의 원리를 밝힘으로써 제주도 심방이 가지는 독특한 면모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작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무(巫)의 계통을 체계화하는 논의의 기본 전제가 되며, 제주도 심

방이 육지의 강신무나 세습무와 동일한 위치에서 평가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연구 내용의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우선 <초공본풀이>와 신긋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전체로 <초공본풀이> 신화의 이본 비교를 통해 단락을 구분하고, 각 단락이 어떤 관계 아래 체계를 이루는가 하는 <초공본풀이> 전체의 질서를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통해 <초공본풀이>는 무조신의 내력담과 심방의 내력담이라는 위계가 다른 두 시조(始祖)의 본풀이가 연속되어 신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초공본풀이>와 신긋의 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III-1절에서는 제주도 무속 사회에서 신긋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신긋 속에서 <초공본풀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심방의 입무 의례라 할 수 있는 신긋에서 <초공본풀이>는 신화의례와 영신의례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구송되는 신화이며, 그 중에서도 영신의례인 <당주맞이>와 <초공본풀이> 후반부 심방의 내력담이 긴밀하게 결합하여 심방의 입무 의례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III-2절은 이 연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초공본풀이> 후반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당주맞이> 제차를 심방의 ‘입무 허가’와 ‘정통성 확보’라는 두 개의 큰 목적을 가진 의례로 보고, 그 구체적인 진행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입무 허가는 ‘약밥약술’, ‘어인타인’, ‘예개마을굿’ 제차를 중심으로, 정통성 확보는 ‘당주길치기’, ‘곱은 명도’, ‘쇠놀림굿’, ‘당주다리 매어듬’ 제차를 중심으로 살펴게 되며, 이를 통해 신긋이 <초공본풀이> 신화에 근거하여 실연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려 한다.

IV장에서는 <초공본풀이>에 근거하여 실연되는 <당주맞이> 제차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드러난 심방의 입무 의례 특징을 명도 물림을 통한 사제권 세습, <초공본풀이>의 모방을 통한 신성성 확보, 역례 올림을 통한 굿법의 학습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한다.

II장에서부터 IV장까지의 논의는 모두 심방의 입무 의례 특징을 밝히려는 일련의 과정들이다. 이를 통해 밝혀진 심방의 입무 의례 특징들은 제주도 심방이 육지의 강신무나 세습무와 구별되는 독특한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 2. 선행 연구 검토

### 1) 선행 연구

심방의 입무 의례인 신굿과 무조신화 <초공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신굿과 신화 중 어느 하나만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우와 둘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룬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신굿에 대한 연구는 문자로 정리된 자료도 부족할 뿐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 또한 현용준과 문무병의 것<sup>4)</sup>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초공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의 연구 결과들이 쌓여 있다. 이는 굿이라는 종합적 의례보다 신화라는 평면적 텍스트에 대한 접근용이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서는 <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초공본풀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크게 텍스트 자체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와 신화가 구송되는 현장인 굿의 맥락까지를 포함한 연구로 대별된다. 텍스트 자체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라 할지라도, 다시 신화의 서사 구조 분석을 통해 순수하게 <초공본풀이>가 가지는 신화적 의미를 밝힌 연구<sup>5)</sup>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4) 현용준, “죽음과 재생 그리고 憑神체험: 제주도 신굿의 구성과 의미”, 『제주도 신굿』, 열화당, 1989.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와 신굿”, 『비교문화연구』 5집,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5) 최시한,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 『배달말』 11집, 배달말학회, 1986. 12.

성을 밝혀내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초공본풀이>를 다루고 있는 경우<sup>6)</sup>로 나누어진다. 이들 연구는 주로 기존에 채록되어 문자로 정리된 신화를 대상으로 구조주의적 방법이나 기호학적 방법에 따라 서사 단락을 나누고, 신화소(神話素)들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 주목하고 있다.

<초공본풀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최시한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신화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통합적·계열적 관계를 분석하여, 무조 신화인 <초공본풀이>에서 무조신은 정확히 누구이며, 굿판에서 신화가 진행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속에 담긴 무속적 세계관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다. 그는 신화를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눈 후 각각의 단락들이 공통소를 중심으로 사슬처럼 통합되어 있는 구조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의 연구에 의해 <초공본풀이>의 전체적인 윤곽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할 수 있다.

이후, 신월균과 설성경에 의해 신화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신월균은 <초공본풀이>를 2대인 아기씨의 ‘이별’과 3대인 삼형제의 ‘떠남’을 중심 모티프로 한 대칭적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의 연구는 신화의 마지막 단락을 제외시키고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설성경은 박봉춘本과 안사인本の 차이점에 주목하여 서사구조의 분석을 통해 <초공본풀이>를 민담의 서사구조 위에 신화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박봉춘本의 경우 민담의 요소가 나타나긴 하지만 민담의 서사구조 위에 신화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신화의 구조 위에 민담의 요소가 첨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김우주는 기호학적 방법을 통해 신화를 탄생시킨 사회의 문화 체

---

신월균, “초공본풀이의 구조 고찰”, 『국어국문학』 100집, 국어국문학회, 1988. 12.

설성경, “초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제주도민속언어논총』, 제주문화, 1992.

김우주, “초공본풀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6) 윤교임, “여성영웅신화연구: 초공본풀이·삼공본풀이·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수자,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여문논집』 16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8.

계와 가치 체계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등장인물을 그 역할과 행동에 따라 생물·무생물 차원과 가족·혈연적 차원, 사회·정치적 차원으로 의미 층위를 분류하여, 각각의 의미 층위에서 일정한 기호학적 정방형에 인물들을 분포시켜 의미를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를 밝히려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 자신도 밝히고 있듯이 신화 생산 집단의 문화와 가치 체계는 <초공본풀이>라는 하나의 신화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에 일정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원초적 여성 상징의 하나인 여신(女神)을 통해 여성의 원형을 찾으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었다. 윤교임은 무속신화에는 남성영웅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국조신화와 달리 여성영웅이 빈번히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서사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 착안하여 <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여성영웅 신화의 서사적 특징을 문화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진은진은 남성 중심의 문학 전통에서 여성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하에 여성 중심적 시각으로 문화적 전통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시도로, 여성탐색담이 설화시대에서 소설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주의 과정을 거쳐 어떤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은 모두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영웅의 모습을 통해 여성 중심의 서사 전통을 세우려는 시도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은 <초공본풀이>가 당금애기의 변이형이라는 논의를 받아들여 이야기의 주인공을 아기씨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유정승 따님을 아기씨의 다른 이름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화의 서사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물들의 신화적 위치를 따지기보다 다루려고 하는 주제에 맞추어 인물의 일면을 파악하려는 제한점을 가지고 출발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7)</sup>

7) 이외에 <초공본풀이>를 다른 텍스트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있었으나, 신화 자체의 심도 있는 의미 규명보다는 비교의 층위에서 다루어진 연구들이다.(유달선, “제주도 구비신화의 관계양상”, 『대구어문논총』 14집, 1996 / 강금숙, “초공본풀이와 불의 딸의 서사구조 연구”, 『이화어문논집』 12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

본풀이는 신의 출생으로부터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생애이야기로서 신화(神話)이며, 굿의 원리를 차례차례로 풀어 나가는 ‘굿의 대본[巫堂書]’이다. 그러므로 굿은 본풀이를 ‘굿본’으로 하여 신화를 의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8)</sup> 본풀이의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풀이 즉 신화의 연구는 텍스트 자체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신화가 실현되는 현장인 굿의 맥락과 함께 살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수자, 문무병, 김현선의 연구<sup>9)</sup>는 굿의 전체 맥락 속에서 신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 중심의 기존의 연구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화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이수자는 초공신에 대한 의례인 <초공본풀이>와 <초공맞이>를 초공제로 묶은 다음, 초공제의 목적이 무엇이며 무속신화로서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문무병은 제주도 무조신화로서 <초공본풀이>가 신굿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무조신화가 심방의 입무 의례인 신굿과 어떤 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신굿의 현장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자료에서 볼 수 없었던 신굿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김현선은 문무병의 연구를 바탕으로 <초공본풀이>와 신굿의 상관성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제주도와 오끼나와의 무조신화를 대상으로 신화 구조의 특징과 무속 의례와의 상관성을 비교하기도 했다.

문무병과 김현선의 이러한 시도는 심방의 입무 의례인 신굿의 실체를

---

학연구소, 1992 / 이수자, “무신도 삼불제석의 신적 성격과 형성 배경: 무조신화 초공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집, 역사민속학회, 1994)

8)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5쪽.

9)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와 신굿”, 『비교문화연구』 5,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김현선, “제주도 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구조분석, 입무의례, 신화적 성격 규명을 중심으로”,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2002.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1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밝힐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초공본풀이>에 담겨 있는 신화적 내용이 신화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2) 문제 제기

선행 연구를 통해 <초공본풀이>와 신긋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확인되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 <초공본풀이>와 신긋의 관계를 통해 심방의 입부 의례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초공본풀이> 후반부 내용에 대한 관심 부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를 신긋과의 관련성을 배제한 채 독립된 텍스트로 바라볼 경우, 유정승 따님에 대한 부분은 임정국부부에서 자지명왕아기씨, 삼형제로 이어지는 삼대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이질적인 성격의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초기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논의를 전개시키거나, 유정승 따님을 아기씨의 다른 이름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신화의 전반부가 무조신(巫祖神)에 대한 이야기라면, 후반부의 유정승 따님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巫祖)에 대한 이야기로서, 신긋 속에서 각자의 기능이 다르다는 점이다.<sup>10)</sup> 즉 전반부가 무조(巫祖)의 내력담과 굿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전생팔자를 그르쳐 심방이 되는 내력담과 전반부에서 마련한 굿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학습시키는 굿법의 전수과정<sup>11)</sup>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입

---

10) 삼형제가 어머니를 살리고 삼시왕(三十王)에 올라 저승삼시왕을 관장하는 신(神)으로 좌정하였기에 무조신(巫祖神)으로서 신격(神格)의 대상이라면, 유정승 따님은 굿법을 익혀 인간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굿을 하는 최초의 심방이 되었기에 무조(巫祖)로서 인격(人格)의 대상이 된다.



무 의례인 신긋의 맥락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주맞이> 제차에서 보면 신화의 전반부 이야기가 주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의례에서 구송되는 데 비해, 후반부는 주로 신입무의 입무를 허가하는 의례에서 구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심방 사회에서 <초공본풀이>를 제대로 아는 심방은, 본풀이의 후반부에서 유정승 따님이 심방이 된 내력담과 굿법을 전수한 내력을 ‘굿본’으로 하여, 이를 의례화한 <당주맞이>의 굿법을 아는, 큰심방이라고 한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정승 따님에 관한 내용은 상세한 논의가 유보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공본풀이>의 내용 중에서도 유정승 따님 부분에 주목하여, 이 부분의 내용이 입무 의례인 신긋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 그 긴밀한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심방의 입무 의례인 신긋의 실체가 밝혀질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무(巫)와 다른 제주도 심방만의 독특한 면모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신긋의 자료 부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제주도의 무속은 육지와는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무속의 원형을 잘 담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제주도 방언의 난해함과 무속 의례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수함까지 겹쳐 그 접근이 쉽지 않기에, 관심에 비해 연구의 결과들이 풍성한 편이 못 된다.

90년대 들어 구술문학을 연행 맥락과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채록한 굿을 자료화해서 굿 전체를 연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제주도 굿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현용준과 진성기, 장주근, 문무병에 의해 정리된 기초자료<sup>13)</sup>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11) 문무병(1999), 앞의 책, 92쪽.

12) 문무병(1999), 앞의 책, 108쪽.

13)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진』, 신구문화사, 1980.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진』, 민속원, 1991.

무속이라는 종교는 원래 특별한 교리나 경전에 의해 믿어진다기보다는 제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며 해결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굿을 연구하고자 할 때는 제의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4)</sup> 또한 굿은 연행될 때마다 항상 변한다. 굿을 하는 목적에 따라 기본적인 구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굿을 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그 날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굿 전체를 연구하고자 할 때는 무가 뿐 아니라 공수라든가 기타 비언어적인 행위들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굿의 이러한 특성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적절한 자료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채록된 자료들 대부분이 무가만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공수라든가 기타 비언어적인 행위들은 거의 제외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巫)의 입무 의례에서 신굿과 <초공본풀이>라는 신화와 제의가 어떻게 결합하여 작용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밝히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굿의 현장을 잘 담고 있는 자료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 소개된 자료 중 신굿의 현장을 담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A.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 B. 김수남·현용준, 『제주도 신굿』, 열화당, 1989.
- C. 제주도 편, 『제주도민속 V: 민간신앙·사회구조』, 제주도, 1997.
- D.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편, 『제주도큰굿자료』, 도서출판 각, 2001.
- E.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제주도의 무속음악』,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위에 소개된 5편의 자료는 굿의 전체 진행 내용을 기록한 자료(A와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 보존회, 1998.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편, 『큰굿 자료 사진』, 도서출판 각, 2001.

14) 장윤선, “황해도 철무리 굿의 연행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쪽.

D)와 신긋의 주요 제차 부분만을 기록한 자료(B, C, E)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자료 A는 제주도 큰긋의 전체 내용을 채록 정리하고 자세한 해설까지 곁들인 것으로 신긋의 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사가(私家)에서 하는 큰긋에 심방 집에서 신길을 바로잡기 위하여 당주(堂主)의 길을 닦는 <당주맞이>의 여러 제차가 삽입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긋이 신긋이라 한다면, A의 자료도 넓은 범주에서 신긋의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에 포함시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D는 1994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문순실택에서 8일간 진행된 신긋을 조사한 것이다. 이 자료는 신긋의 전체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신긋의 핵심인 <당주맞이>의 내용들이 모두 실연되지 않고, <시왕맞이> 제차의 마지막에 ‘당주길치기’ 부분을 이어서 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자료라 할 수는 없다.

자료 B, C, E는 모두 신긋의 부분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 이 중 자료 B는 1982년 8월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문순실 심방집에서 있었던 신긋을 조사한 후 <당주맞이>의 내용과 의미를 정리한 것으로, 신긋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현장 자료라기보다는 연구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

자료 C는 1986년 10월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대수동에서 있었던 김윤수·이정자 부부의 신긋을 조사한 것이다. 실제 긋에서는 <당주맞이>의 모든 제차가 다 실연되었으나, 그 중 ‘약밥약술’, ‘공시풀이’, ‘석살림긋(군웅덕담)’, ‘곱은 명도’ 제차만을 신고 있다. 이 자료는 ‘약밥약술’과 ‘곱은 명도’의 전체 내용을 채록 정리한 유일한 것으로, 앞으로의 논의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자료 E는 2001년 12월 25일부터 2002년 1월 3일까지,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고복자 심방집에서 8일간 진행된 신긋을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 무속음악 연구를 목적으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연극적 성격이 강한 맞이긋의 내용보다는 음악이 동반되는 신화창이나 노래 중심의 것

들을 주된 관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젯다리>,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맹감본풀이>, <액막이>의 사설이 채록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소개 된 5편의 자료만으로는 신긋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심방의 입무 과정의 핵심 내용이 담긴 <당주맞이>의 자료는 자료C를 통해서만 그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면담 조사의 방법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먼저 2003년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만덕기도원에서 8일간에 걸쳐 김윤수·이정자 부부의 신긋을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가 있다.<sup>15)</sup> 이것은 8일 동안 긋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진행 내용을 비디오표로 기록한 것으로, 문자로 정리된 자료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한 부분을 채록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성을 잘 담고 있어서 문자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당주맞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자료C를 직접 조사하고 정리했던 문무병과의 면담과 그의 미발표 자료들을 참고하여 정리해 나갈 것이다.

---

15) 이를 자료 F라 한다.

## II. <초공본풀이>의 구조

II장에서는 <초공본풀이>의 전체 내용을 이본들 간의 비교를 통해 정리한 다음, 이를 다시 무조신(巫祖神)의 내력담과 심방의 내력담으로 나누어 그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는 III장에서 <초공본풀이>와 신긋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 1. <초공본풀이>의 서사 단락과 이본 비교

무속신화는 무(巫)에 의해 구연되는 무속서사시이므로 같은 내용이라도 화자와 구연 상황에 따라 변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여 나타난 이본(異本)은 작품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고, 각 삽화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설명해주는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본들을 비교 검토하여 공통소를 추출 해낸 다음 각각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sup>16)</sup>

<초공본풀이>의 각 편은 현재도 제주도의 무속의례 현장에서 심방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9편 정도가 채록되어 전한다.<sup>17)</sup> 본 장에

16) 홍나래,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7쪽.

17) <초공본풀이>에 대한 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에 소개된 10편의 자료 중 ①, ②, ④, ⑤번 자료는긋의 진행과 상관없이 조사자의 요구에 의해 재연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고, ③, ⑦, ⑧, ⑨번 자료는긋의 현장에서 구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⑥번 자료는 문창현이 1982년 순이두식 한자표기로 큰긋과 일반신본풀이들을 적은 전체 무가에 후일 누군가가 한글을 병기한 형태의 필사본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상, 하 2권으로 1994년에 영인 출판되었다. 이 중 심방집의 신긋을 하면서 <초공본풀이>를 구연한 자료는 ⑦번과 ⑧번, ⑨번 자료이다. 연구자가 조사한 ⑩번 양창본본은 2003년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긋당에서 있었던 김윤수 심방의 신긋에서 구송된 자료이다.

	무가명	구연자	조사자	수록책자(연도)
①	초공본푸리	박봉춘	赤松智城·秋葉 隆	조선무속의 연구上(1937)
②	초공본풀이	고대중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1973)
③	초공본풀이	안사인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1980)

서는 기존에 조사된 자료의 이본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공본 풀이>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공통 단락을 요약하면서 각 편의 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1) 임정국 대감 부부가 늦도록 자식이 없음을 걱정한다.

: 고대중本과 안사인本, 이중춘本, 문순실本에서는 임정국 대감이 아이의 재물에 기뻐하는 걸인 부부를 보고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고대중本과 이중춘本에서는 임정국 대감의 자식 낳기를 고대하는 부분이 더욱 길게 나타난다. 고대중本의 경우 임정국 대감이 길을 가는데 온갖 사물이 아버님, 어머님하고 부르는 것처럼 느낀다는 내용이며, 이중춘本의 경우는 삼천선비들과 노름을 하고 집에 가려는 임정국 대감에게 술 취한 선비가 애기도 없는데 돈을 따서 어디다 쓰느냐고 술주정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시주승의 권유로 황금산에 가서 수록제를 올린다.

④	초공본	김명윤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1991)
⑤	초공본	김병효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1991)
⑥	초공본풀이	?	문창현	풍속무음(?)
⑦	초공본풀이	이중춘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 열두본풀이자료집(1998)
⑧	초공본풀이	이중춘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2001)
⑨	초공본풀이	문순실	문무병	제주도의 무속음악(2004)
⑩	초공본풀이	양창보	문봉순	2003. 12. 조사

18) 박봉춘本, 고대중本, 안사인本, 김명윤本, 김병효本, 문순실本은 각각 1편씩이 채록되었고, 이중춘本의 경우 2편이 채록되었다. 구연자와 조사자가 일치하고, 그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⑦번과 ⑧번의 자료는 이중춘本의 하나로 다룬다. 그리고 ⑥번의 필사본 자료와 ⑩번의 조사 자료는 이 장에서는 논외로 함을 밝힌다. 결국 이 장에서는 박봉춘本, 고대중本, 안사인本, 김명윤本, 김병효本, 이중춘本, 문순실本의 7편의 자료를 대상으로 각 편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문순실本은 이중춘本과 서사 진행에 있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문순실이 안사인에게서 굿을 배우다가, 약 13년 전부터 이중춘에게서 굿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굿본이 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양창보本의 경우도 안사인本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데, 이 또한 양창보가 안사인과 함께 굿을 하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함께 굿패를 짜서 다니는 심방 집단 내에서, 같은 스승을 모시는 경우 신화의 내용이나 굿법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대체적으로 황금산 도단땅에서 소사중 또는 주자 대사가 찾아와서 원 불수룩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김병효本에서는 동개남 옹중절 대사가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명윤本의 경우는 대사가 찾아오지 않고 부부가 의논하여 수룩불공을 드린다.

(3) 정성이 부족하여 딸아기를 낳는다.

: 딸을 낳는 이유에 대해 고대중本과 안사인本, 이중춘本의 경우는 정성의 부족함이 원인이 되며, 박봉춘本과 김병효本에서는 청감주와 호박안주를 먹는 꿈을 꾸었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김명윤本에서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아기씨 15세에 부부가 옥황의 명을 받고 벼슬을 하러 간다.

: 모든 자료에 공통되는 요소이다. 임정국 부부가 아기씨를 여러 겹으로 잠긴 집 속에 가둔 후, 여중에게 아기씨를 잘 키우면 노비해방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벼슬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난다.

(5) 삼천선비가 아기씨를 두고 내기를 한다.

: 고대중本과 안사인本, 이중춘本, 문순실本에서는 황금산 도단땅에서 공부하던 삼천 선비들이 주자 대사에게 아기씨에게 시주를 받아오면 삼천냥을 주겠다고 내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박봉춘本에서는 임정국 대감이 자신의 딸을 선비에게 자랑하자 선비들이 아기씨를 보고 오는 것에 내기를 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명윤本은 황할림의 아들이 내기에 져서 자지명왕 아기씨의 배에 삼형제를 두고 와서 절간을 물려받기로 한다. 김병효本도 세 명의 중이 앉아 놀면서 아기씨를 상대하는 자에게 절간을 물려주겠다고 한다.

(6) 주자대사가 아기씨 집에 시주받으러 간다.

(7) 주자대사가 신통력으로 갇힌 문을 연다.

(8) 주자대사가 시주를 받다가 아기씨의 상가마를 세 번 쓰다듬는다.

: 다른 본의 경우 주자 대사가 일부러 쌀을 흘려서 아기씨가 쌀을 줍는 동안 상가마를 세 번 쓰다듬는 것으로 나오는데, 고대중本에서는 시주를 마치고 돌아서는 아기씨의 상가마를 만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아기씨가 주자대사에게서 증표로 삼을 물건을 잡아둔다.

: 김명윤本과 박봉춘本에서는 중의 행동에 놀란 아기씨가 여종을 시켜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챙기도록 한다. 다른 본에는 ‘백일이 지나기 전에 자신을 찾을 것’이라는 주자대사의 말을 듣고 아기씨가 여종을 시켜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챙기게 한다.

(10) 부모에게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어 쫓겨난다.

: 벼슬 하러 갔던 부모가 돌아오고, 아기씨의 임신 사실이 어머니에게 발각되어 여종과 함께 집에서 쫓겨난다.

(11) 주자대사를 찾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

: 주자 대사를 찾아가는 여정은 길게 서술되며 각 편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아기씨가 시련을 만나 원조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19)</sup>

---

19) 고대중本은 검은 암소에 행장거리를 싣고 집을 나와서 애산다리, 등진다리, 자부연다리를 차례로 건넌다. 푸른모래사장, 검은모래사장을 거쳐서 청산, 흑산, 백산을 거치고, 거신물, 거신다리를 지난다. 푸른바다는 금봉채다리를 놓아서 건넌지만 낙수바다에 이르러 건너갈 수가 없어 하늘을 보고 통곡한다. 이 때, 흰거북과 검은 거북이 나타나 둘을 건너게 해 준다. 78개 갈림길에 이르러 너사무너도령 삼형제에게 길을 묻는다. 알려 준 길을 따라가서 열두 대문에 이르러 치마 한 폭씩 인정을 걸고서 황금산 절간에 이른다.

김명윤本은 집에서 쫓겨난 아기씨가 갈 곳이 없어 눈물을 흘리며 길을 가다가 잠이 든다.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파란 부채를 부치라고 하여 그렇게 하니, 철죽대에 선이 나서 그것을 따라 백산에 이른다. 청산에 막혀 멈추니 산신대왕이 나타나 부채를 부치라고 한다. 부채를 부치니 철죽대에 선이 나와서 그 구멍을 찾아 청산을 넘는다. 거신산을 넘어 푸른 바다와 검은 바다에 도착하였으나, 앞이 막혀 물가에 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건너편에서



(12) 아기씨가 주자대사를 만나 그가 낸 문제를 풀고, 불도땅에 들어가 아들 삼형제를 낳는다.

: 부부 확인 시험은 각 편마다 모두 나타나는 데, 찹쌀 또는 기장쌀을 손톱으로 까라는 것이다. 아기씨가 울다 지쳐 잠이 들자 새가 나타나 껍질을 까준다. 부부임을 확인한 주자대사는 좋은 부부 살림을 차리지 않는

---

표도선이 도착하여 건네 달라고 하니 연다리를 놓아야 건널 수 있다고 말해 준다. 명주 한 필로 연다리를 놓아 건너 백모래밭 큰 마을 가로 가니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 황주자가 보낸 소도령의 길 안내를 받으며 12대문에 이르러 치마 한 폭씩 인정을 걸고 황금산 도단땅에 이른다.

김병효本은 어릴 적에 입던 옷들을 챙겨 검은 암소에 신고 집을 나와, 울면서 청용산, 백용산, 흑용산, 거신산, 아용산을 넘어간다. 건지산에 이르러 더 갈 수 없어 앉아서 졸고 있으니 백발산신이 나와 금봉채로 산을 세 번 후려치니 산이 쪼개져 길이 나온다. 조심다리를 건너 백모래 시냇물에 이르러 금바둑돌을 놓고 넘어가고 왕대울산에 이르러 앉아서 우니까 소사중이 길마중을 나와 있다. 황금산에 들어가 열두 대문에 치마 한 폭씩 인정을 걸고 지나간다.

박봉춘本은 말에 행장을 싣고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자 여종이 황금산 대사를 찾아가 자고 말한다. 금봉채 선을 따라 푸른 바다에 당도하나 건널 수 없어 울고 있으니 동해용궁 목이(木伊)라는 사람이 포도선을 타고 와 건네준다. 백모래거리에 이르러 바둑이 솟아나서 바둑다리를 건너가고, 서천강에 이르러 넘어갈 길이 없어 울고 있으니 연이 와서 연다리를 넘고 간다. 건지산을 조심다리로 넘고 거신물에 이르니, 백박 노인이 물속에서 나타나 흰개를 건네주며 꼬리를 잡고 건너라고 일러 준다. 흰개의 꼬리를 잡고 물속에 뛰어 드니 물속에 큰 길이 생겨 건너간다. 가다보니 78개 갈림길을 만나 금봉채선을 잃고 울면서 탄복하자 주자 대사가 너도령에게 길 인도를 하라고 명령한다. 너도령의 길 안내를 받으며 열두 대문에 인정을 걸고 주자 대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안사인本은 의복을 싣고 집을 나가는데 아버지가 금부채를 내어주며 앞이 막힐 때 금부채로 다리를 놓아 건너라고 이른다. 검은 암소에 짐을 싣고 남이산, 북해산을 넘고 갈쏨다리, 애손다리, 울은다리를 건너며 여종에게 그 연유를 묻는다. 울은다리를 건너며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을 본다. 건지오름을 지나 조심다리를 건너 푸른 바다, 검은 바다를 금부채 다리를 놓고 지나가니 수삼천리(數三千里) 길에 이르러 다리를 놓을 수 없어 운다. 울다가 잠이 드니 전생에 키우던 강아지가 나타나 죽어서 용왕국 거북 사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거북의 등에 올라 길을 건너니 귀 없는 송낙과 장삼이 걸려 있는 절간이 보인다.

이중춘本은 의복을 말에 싣고 집을 나서는 아기씨에게 아버지가 금부채를 내어주며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며 가다가 급한 일이 있거든 금부채 다리를 놓아 건너라고 이른다. 막막한 심정으로 황금산에 올라 마른 역새에 불이 붙고, 구렁에 있는 물이 동산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본다. 거신 물, 거신다리, 청일산과 푸른 바다, 검은 바다, 외친이 사는 땅을 넘어 백일산, 백수바다를 넘고 건지산에 앉아 머리를 여섯 갈래로 엮어낸다. 수삼천리 낙수바다에 이르러 건너지 못하여 울면서 잠이 든다. 꿈에 거북사자가 나타나 자신이 건네주겠다고 하여 깨어 보니 거북이 앞에 있다. 낙수바다를 건너 여종의 입을 단속시키고 철죽대 금을 보고 불똥물을 보고 열두 대문에 인정을 걸고 지나가니 대문 앞 높은 나무에 한 귀 없는 장삼과 금봉채가 있는 곳이 보인다.

법이니 다른 곳에 가서 살라고 한다. 그 장소는 안사인本, 이중춘本에서는 ‘불도(佛道)땅’으로, 고대중本에서는 ‘해복당(解腹堂)’, 박봉춘本에서는 ‘외충당’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김명윤本과 김병효本에서는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살게 한다.

(13) 삼형제가 15세 되던 해 삼천선비를 따라 과거보러 간다.

(14) 삼형제가 삼천선비의 방해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과거에 합격한다.

: 각 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삼천선비의 계락을 원조자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과거에 합격한다는 내용이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개입되는데, 배나무 위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야기와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이다.<sup>20)</sup>

---

20) 삼천 선비는 배나무 과수원에 가서 삼형제를 배나무 위에 올려 두고 길을 떠나고, 삼형제는 원조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내려오게 된다. 원조자의 도움 부분은 각 편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고대중本에서는 감나무 감좌수가 꿈에 청룡과 황룡이 얽힌 것을 보고 삼형제를 구한 뒤 조반을 먹여 과거를 보게 해준다. 김명윤本에서도 배나무 주인이 꿈에 청룡과 백룡이 얽힌 것을 보고 삼형제를 구한 후, 그들이 자신의 외손자임을 알게 된다. 김병효本의 경우 밤중에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삼형제를 구하고 그들이 외손자임을 알고, 내일 과거에 선비들이 삼형제를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니 멀리서 글을 써서 던지라고 한다. 박봉춘本의 경우 하늘 옥황 상시관이 꿈에 청룡, 백룡, 황룡이 엉키어 보이는 꿈을 꾸고 수별감을 보내어 삼형제를 구해준다. 안사인本의 경우 배좌수가 청룡, 황룡이 엉킨 꿈을 꾸고 삼형제를 구한 뒤 종지와 먹을 사서 과거를 보라고 돈 열 냥씩을 준다. 이중춘本의 경우도 배좌수가 청룡, 황룡이 얽힌 꿈을 꾸고 삼형제를 구해준 뒤 밥상을 차려 준다.

삼형제는 배나무에서 내려온 뒤 시험장으로 가지만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고대중本과 안사인本, 이중춘本의 경우에는 상시관에 들어갈 문이 이미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박봉춘本의 경우 다른 선비들이 종지와 붓과 먹을 모두 사들이고, 문지기에게 삼형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김명윤本에서는 먼저 간 아이들이 많아서 문 안에 들어서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글을 써서 던진다. 김병효本에서는 외조부가 말한 것처럼 문 밖에서 글을 써서 던진다.

김명윤本과 김병효本을 제외한 다른 본에서는 또 다른 원조자의 도움을 받는다. 고대중本의 경우 청태산 마고할망의 집에 들러서 하루 신세를 지며 상시관 조반 밥상을 차려가는 아이 편에 글을 부쳐 상시관 앞에 떨어뜨리게 한다. 박봉춘本의 경우 백주할망이 선비들이 지필묵을 다 사들이는 것을 알고 집에 있는 종지와 붓과 먹을 삼형제에게 준다. 삼형제는 시를 적어 상시관에게 던진다. 안사인本의 경우 팔죽 팔던 할멈이 삼형제가 우는 것을 보고 자신이 버릇물 걷는 일을 하니 글을 써 주면 전달해 주겠다고 한다. 이중춘本의 경우 팔죽 팔던 할멈이 삼형제가 가거든 시장기를 면해 주고, 종지와 붓과 먹을 사다주고,

(15) 삼형제가 중의 자식임이 밝혀져 과거에 낙방하지만, 연추문을 맞추어 다시 합격한다.

: 중의 자식임이 밝혀져 과거에 낙방하는 부분은 공통적이지만, 연추문을 맞추고 다시 과거에 합격하는 부분은 각 편이 차이를 보인다. 고대중本과 안사인本, 이중춘本, 문순실本에서는 연추문을 맞추어 쓰러뜨린 후 다시 과거가 내려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명윤本에서는 화가 난 삼형제가 연추문과 종각을 부수고, 박봉춘本의 경우 과거를 시켜준다는 삼천선비의 꼬임에 빠져 연추문과 종각을 부순다. 김병효本에서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중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6) 삼천선비가 여종을 꺾어 아기씨를 궁에 가둔다.

: 어머니가 궁에 갇히게 되는 이유와 장소가 각 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고대중本의 경우 아들을 너무 훌륭하게 낳았다고 주옹 서천문에 갇히고, 김명윤本과 박봉춘本은 아들들이 지은 죄 때문에 궁에 갇힌다. 김병효本에서는 어머니가 감금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으며, 안사인本과 이중춘本, 문순실本의 경우 삼천선비들이 직접 아기씨를 궁에 가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17) 삼형제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외할아버지 임정국대감을 찾아가 도움을 받는다.

: 고대중本과 안사인本, 이중춘本, 문순실本에서는 삼형제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자 배석자리를 내어 주며 황금산 도단땅에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한다. 김명윤本과 이병효本은 해당 부분이 없으며, 박봉춘本의 경우 다른 본과 전개 순서가 다르다. 그리고 고대중本과 안사인本의 경우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에 너사무너도령 삼형제를 만나 의

---

쓴 글은 손자에게 상시관의 식사를 가져갈 때 들고 가라는 내용의 꿈을 꾸 후 삼형제를 도와준다.

형제를 맺는다.

(18) 삼형제가 아버지를 찾아가 전생팔자를 그르치고, 삼천천제석궁에 가서 굿을 하여 어머니를 구한다.

: 이본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과거에 떨어진 삼형제가 아버지를 찾아가 팔자를 그르쳐 굿하게 된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sup>21)</sup>

(19) 삼형제가 금법당을 지어 무구와 제기를 보관하고 어머니에게 지키게 한다.

: 김병효本에서는 삼차사가 삼형제에게 금법당을 높게 짓고 어머니를 앓히라고 하고, 안사인本은 어머니를 구해내어 궁 밖 삼거리에 천하대궐을 지어 놓고 너사메너도령에게는 무악기를 어머니에게는 천하대궐을 지키게 한다. 이중춘本과 문순실本에서는 삼형제가 어머니를 구한 후 서강배포탕으로 내려와 집을 지은 후, 삼천기덕 일만제기를 놓아두고 어머니를 삼하늘에 모셔 두고, 삼형제는 양반의 원수를 갚으러 저승삼시왕으로 들어간다.

(20) 동해바다 쇠철이 아들에게 요령, 천문, 상잔, 신칼 등의 무구를 만

---

21) 김병효本에는 삼형제가 과거에 떨어진 뒤 아버지를 찾아가 원망을 하니 과거보다 좋은 것이 있다며 무구를 만들어 굿을 하게 한다. 삼형제가 굿을 하니 인간 세상에 변국(變局)이 났다고 삼차사가 와서 굿을 한 연유를 묻고 어머니를 살려준다.

김명윤本은 삼형제가 과거에 떨어진 뒤 아버지를 찾아가 원망을 하니 아버지는 과거보다 더 좋은 것을 시켜준다고 한다. 버드나무로 북과 장구를 만들고 대장장이에게 팽과리와 명도를 만들게 한 뒤, 명도로 점괘 보는 방법을 일러 준다. 어머니가 지옥문에 갇혀 있으니 가서 살려오라고 하니 삼형제가 가서 연추문 부순 죄로 저승왕의 삼시왕으로 들어서겠다고 한다. 고대중本은 아버지를 찾아가니 쇠철이 아들에게 요령과 신칼을 만들게 하고, 북과 장구를 만들고, 초감제, 초신맛이, 시왕맛이제를 한 뒤에 서천문에 가 어머니를 구하게 한다.

안사인本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으려면 전생팔자를 그르쳐야 한다며 초감제, 초신맛이, 시왕맛이제를 한다. 삼천천제석궁 앞에서 무악기를 열나흘 동안 울리니 어머니를 석방한다. 이중춘本과 문순실本은 머리를 깎고, 가사 장삼을 입어보라며 친자 확인을 한다. 벗어나 무로 북과 장구를 만들고 쇠철이 아들을 불러서 천문과 상잔, 신칼, 산판을 만든다. 초감제, 초신맛이, 시왕맛이제를 하고, 무구를 가지고 가서 삼형제가 옥황에서 굿을 하니 어머니가 풀려난다.

들게 하고, 양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삼시왕으로 들어선다.

: 삼형제의 신직획득 과정으로 모든 本에 공통적이다.<sup>22)</sup>

(21) 유정승 따님아기가 육관대사에게 엽전을 받는다.

: 유정승 따님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각 本마다 차이를 많이 보인다.<sup>23)</sup>

그 중 육간제비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은 육관대사가 주었느냐, 무조삼형제가 주었느냐 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고대중本과 안사인本은 육관대사가 엽전을 준 것이 육간제비가 된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고대중本에서는 유정승 따님아기가 7살에 절에 놀러갔다가 중이 팔자를 그르쳐야겠다며 엽전 두 푼을 준 것이 육간제비가 되었고, 안사인本에서는 아랫넛 유정승 따님아기가 6살 나는 해에 육관대사가 지나다가 엽전 여섯푼을 내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춘本과 문순실本에서는 무조삼형제가 양반의 딸을 전생팔자를 그르칠 방도를 아버지께 물은 후, 유정승 따님아기 7살에 파랑공에 육간제비를 채워 둔다. 김명윤本에서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유정승 따님아기 7살에 안맹했다고만 나타난다.

---

22) 김명윤本은 연추문을 부순 죄로 삼시왕에 들어서고, 양반에게 원수를 갚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김병효本은 옥황에서 벼슬을 내려 금세상의 삼시왕이 된다. 안사인本에서는 삼형제가 동해바다 쇠철이 아들을 불러 상잔, 천문, 요령을 만들어 양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삼시왕이 된다. 이중춘本과 문순실本의 경우도 스스로 양반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삼시왕이 되고, 고대중本의 경우 아버지가 삼형제에게 와서 저승으로 가면 삼시왕, 이승으로 내려가서는 삼명두로 들어 살라고 하며, 과거 낙방시킨 선비들에게 양반 잡던 칼로 원수를 갚으라고 한다.

23) 서사단락 (21)-(24)에 나타나는 유정승 따님 아기사이에 대한 부분은 양반의 딸이 팔자를 그르쳐 심방이 되는 이야기로 (1)-(20)의 서사 내용과는 달리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 본마다 내용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논외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 속에서 구송되고 있는 신화의 내용을 그 내용상의 이질성을 문제로 논외로 한다는 것은 신화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반하는 것이라 여겨지기에 후반부의 내용도 충실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7개의 이본 중 김병효本과 박봉춘本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기에, 나머지 5개의 本을 대상으로 서사단락을 정리하였다.

(22) 신병으로 평생 동안 앓다가 일흔 일곱 되는 해에 신안(神眼)을 얻는다.

: 7살에 신병이 나서 67살까지 죽었다 살았다 하기를 반복하다가 77살에 굿법을 배워 심방으로 천하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각본마다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신병은 주로 안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대중本에서는 안맹이라는 것은 제시되지 않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고만 되어 있다.

(23) 죽은 장자집 딸아기를 살려낸다.

: 각 본마다 공통되는 부분으로, 접을 치며 떠돌던 유정승 따님이 삼시왕에 걸려 죽은 장자집 외딸아기를 굿을 해서 살려내는 내용이다. 유정승 따님이 살리는 아기는 고대중本에서는 ‘원복장자집 딸애기’로, 김명윤本에서는 ‘지국성의 원복장자집 외아들 무녀동자’로, 안사인本에서는 ‘아랫넌 말젓자부장재집 외딸애기’로, 이중춘本에서는 ‘아랫넌 자복장재집 단딸애기’로 문순실本에서는 ‘단딸애기’로 나타나는 데 모두가 장자집의 귀한 외동딸로 묘사되고 있다.

(24) 삼시왕에서 굿법을 배우고 역가를 올려 심방으로 인정받은 후, 무구와 악기 등을 타다 굿을 하여 심방으로 천하를 울린다.

: 각 본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으로 유정승 따님아가 삼시왕에 올라가 굿법을 배워 왔는지, 어머니를 모신 서강베포땅에서 도를 닦았는지, 삼시왕에 올라갔는가에 대해 서로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sup>24)</sup>

---

24) 고대중本에서는 유정승 아기씨가 소지를 쥐고 비념을 하니 삼시왕에서 유정승 아기씨를 끌어간다. 삼시왕이 어떻게 원복장자집 딸애기가 삼시왕에 걸린 줄을 알았냐고 묻자, 그간의 사연을 고한다. 삼시왕이 백근장대를 내어놓아 저울질을 하니 구슬구근이 나가서, 77세 되는 해에 삼시왕에 다시 오면 삼천기덕과 일만제기를 내어주겠다 한다. 77세가 되어 삼시왕에 들어가 삼천기덕과 일만제기를 타다 어주 삼녹거리에 벨충당을 지어 삼천기덕과 일만제기를 모시고 살았다. 원복장재집에서 딸아기가 살아나자 유씨부인을 찾아 굿을 청하고, 너사무너도령 삼형제와 함께 굿을 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원불수룩굿 드리는 법을 만들고 유씨 부인은 심방선생이 되었다.

김명윤本에서는 굿을 하려하나 무구가 없어 걱정하다가 천하대궐 금법당에 간직하고 있

<초공본풀이>의 각 편은 박봉춘本의 경우<sup>25)</sup>를 제외하면 대체로 이와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각 편에 따라 고유명사의 차이와 사건의 순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서사의 진행에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초공본풀이>의 서사 단락은 행위 주체 즉 중심인물에 따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3)까지는 임정국 대감 부부가 주인공이며, 임정국 대감 부부가 자식이 없어 걱정하다가 시주승의 권유에 따라 절에 공양을 드리고 아기씨를 얻는 것이 중심 내용이 된다.

(4)-(12)에서는 아기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임정국 대감 부부가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집을 떠난 사이, 주자대사가 신통력으로 아기씨를 임신시킨다. 임신 사실이 발각되어 집에서 쫓겨난 아기씨는 여러

는 연물을 빌리러 간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맺고 일천기덕 삼만제기를 받고 저승 삼시왕에 있는 오라방 삼형제를 불러다 놓고 열두 신소미를 거느리고 곳을 한다.

안사인本에서는 두이레 열나흘 전새남굿을 하려하나 무구가 없어 삼시왕에 신원하여 천하대궐 급법당에 일천기덕 삼만제기를 청하러 간다. 불도 땅에 들어가 물맹지 전대로 목을 걸어 대추나무 저울로 달아보니 백근이 차서 일천기덕 삼만제기와 악기를 내어주니, 제석궁에 신소미를 얻어 열나흘 전새남을 하여 유정승 따님아기를 살려낸다.

이중춘本에서는 삼시왕의 조화로 수레법망에 걸려가 늦가막쇠 은저울로 백근을 채우니, 약밥약술을 먹여 인간에 도환생을 시키며 어인타인을 맞힌다. 무당서를 내어주며 서강배 포망에 내려가 신전집을 찾아 그 내용을 모두 통달하고 삼천기덕 일만제기를 받아서 너사 무삼형제를 거느리고 굿하러 가라고 한다. 아랫녘의 자복장재집에 들어가 굿을 하니, 그 굿을 한 법으로 유정승 따님애기 77살에 십방으로 이름을 천하에 날려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 문순실本은 이중춘本의 내용이 좀 더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다.

- 25) 박봉춘本의 경우, 삼형제가 과거에 떨어진 분풀이로 연주문을 부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산두꺼비 같은 짐승을 만나 과거보다 심방이 되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듣는다. 다른 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부분으로 산두꺼비의 등장은 이후 사건 전개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本에서는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외조부나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만, 박봉춘本에서는 어머니가 잡혀 갔다는 말을 들은 삼형제가 연주문을 다시 세우고 무구를 만들어 옥황에 올라가서 굿을 하게 된다. 옥황에서 상시관이 삼형제의 노력에 감동하여 어머니를 석방시키고, 삼형제는 아버지를 찾아가 과거 못한 원망을 하게 된다. 다른 本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구출 방도를 알려주는 데 비해 박봉춘本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어 나타난다. 대신 삼형제의 행동은 보다 적극성을 나타내어 스스로 어머니를 구해내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원망한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상잔과 친문을 받아보라고 한다. 외할아버지 댁에 이르자 아기씨와 외조부모가 상봉을 하며 아기씨의 서러운 팔자를 타하며 눈물을 흘린다. 외조부는 삼형제가 과거에 낙방한 일을 알고 저승 삼시왕(三十王)에 들게 하여 삼천 선비에게 원수를 갚게 한다.(김우주, 앞의 논문, 19-20쪽)

수난을 겪은 후 주자선생을 만나게 되고, 불도땅에 들어가 삼형제를 낳는다.

(13)-(20)에서는 삼형제가 주인공이며, 삼형제가 어머니를 구하여 삼시왕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용이 중심이 된다.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가게 된 삼형제는 삼천선비의 방해로 여러 수난을 겪지만 장원을 하게 된다. 삼천선비는 삼형제에게 복수하기 위해 삼형제의 어머니인 아기씨를 삼천천제석궁에 가두고, 삼형제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전생팔자를 그려쳐 너사메너도령과 의형제를 맺고 악기를 만들어 삼천천제석궁에 들어간다. 어머니를 구해내어 천하대궐에 모시고 삼형제는 삼시왕이 된다. 쇠철이 아들을 시켜 무구를 만들게 하고, 신칼로 삼천선비를 죽여 원수를 갚는다.

(21)-(24)에서는 유정승 따님아기가 주인공이다. 유정승 따님아기가 육관대사에게 엽전을 받아 하마석 아래 둔 것이 원인이 되어, 평생 동안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다가 일흔 일곱 살에 전생팔자를 그려친다. 신병이 들어 죽은 말제장자집 딸아기를 살려낸 후, 곳을 하려하나 무구가 없어 삼시왕에서 무구를 받아다 곳을 하여 심방으로 천하에 이름을 날린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임정국 대감 부부에서 자지맹왕 아기씨, 무조 삼형제에 이르는 이야기는 삼대에 걸친 한 집안의 이야기이며 마지막 단락은 가계상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다.<sup>26)</sup> 우리 서사문학의 한 특징이 삼대에 걸친 이야기라는 점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sup>27)</sup> 이는 외조부모-부모-아들의 삼대기이며, 이 신화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부모 세대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sup>28)</sup>

26) 여기서 유정승 따님 아기에 관한 단락은 서사적 긴밀성이 비교적 희박함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필요나 특성 때문에 덧붙은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게 된다.(최시한, 앞의 논문, 8쪽) 그러나 이 부분이 어떤 필요나 특성 때문에 덧붙은 것이라고 해서 전체 서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어떤 특별한 필요에 의해 덧붙여진 것이라면 전체 서사 구성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단락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 이에 관해서는 김열규(『한국문학의 두 문제-怨恨과 家系』, 학연사, 1985)에 의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최시한(앞의 논문, 18쪽)이 다시 언급하고 있다.



결국 <초공본풀이>의 전반부는 심방의 조상신인 무조(巫祖)가 신의 자격 또는 지위를 얻게 되기까지의 내력을 담은 무조(巫祖)의 내력담이며, 후반부는 유정승 따님이 팔자를 그르쳐 심방이 되기까지의 과정인 심방의 내력담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초공본풀이>의 구조

신화의 구조를 살피기에 앞서 먼저 무조신화(巫祖神話) <초공본풀이>에서 무조(巫祖)에 해당하는 ‘초공’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초공본풀이>가 ‘초공’에 대한 본풀이라면, 주인공인 ‘초공’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신화의 구조를 살피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초공본풀이>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 중에서도 ‘초공’에 해당할만한 인물은 자기멧왕 아기씨와 삼형제로 요약된다. 선행 연구 검토에서 살펴 보았듯이 <초공본풀이>를 다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당금애기의 변이형으로 바라보는 연구들은 아기씨를 ‘초공’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무조신화인 <초공본풀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삼형제가 어머니인 아기씨를 살려내고 삼시왕에 오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공본풀이>가 삼형제가 팔자를 그르쳐 어머니를 살려내고 무조신(巫祖神)으로 좌정하는 내용의 신화라 한다면, 신화의 주인공은 삼형제라 할 수 있고, ‘초공’의 정체 또한 삼형제의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신화 전반부는 삼형제를 중심으로 한 신격 좌정담에 초점

---

28) 이에 대해 김재용은 “제주도 신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소원한 관계에 있고, 어머니와 아들은 화합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최시한은 “각도를 달리하여 볼 때, 동명왕 이야기 같은 시조설화에도 보이는 점으로서, 남성 주인공의 권위를 앞 세대의 직계 남성(부, 조부)으로부터 가급적 격리시켜 그 권위와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고 했다.(김재용, “제주도 신화의 서사구조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연구』 제10집, 원광대 국문과, 1984. 61쪽 / 최시한, 앞의 논문, 9쪽)

을 맞추고, 후반부는 유정승 따님이 어떻게 심방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력을 중심으로 <초공본풀이>의 구조를 정리해 나갈 것이다.

## 1) 무조신(巫祖神)의 내력담

<초공본풀이>는 제주도 심방의 무조(巫祖)에 대한 본풀이다. 그러므로 신이 아닌 존재가 일정한 과정을 거쳐 무조신(巫祖神)의 자리에 좌정하게 된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본풀이는 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으로서의 직능을 관장하여 좌정할 때까지의 생활사를 서술한 전기적(傳記的)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sup>29)</sup> 이 전기적 사건 전개는 ‘출생→수난→수난 극복→신격 획득’의 4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30)</sup>

먼저 삼형제의 출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정상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삼형제의 비범성은 그 어머니의 출생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삼형제의 어머니인 자지멩왕 아기씨는 자식이 없어 근심하던 임정국 부부가 승려의 권유로 큰 사찰에 기원하여 얻은 딸이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월궁선녀(月宮仙女)같은 무남독녀는 15세가 되어 비정상적인 부부 결합(結緣)을 맺어 아들을 낳는다. 그 결합하는 남편은 물론 범인이 아니며 중으로 나타난다. 중은 처녀의 ‘상가마’를 세 번 어루만짐으로써 세 아들을 한꺼번에 낳게 한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출생처도 왼쪽 겨드랑이와 오른쪽 겨드랑이, 젖가슴 등으로 되어 있다.

노가단풍즈지멩왕 아기씨 시왕곱은연찻 느려상  
불도(佛道)땅의 좃아 간다.  
원구월 초으드레(初八日) 근당흐난,  
아야 배(腹)여 아야 배여 알로 낳젠 흐니,

29) 현용준, “무속신화 본풀이연구 서설”,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55쪽.

30) 현용준은 본풀이의 전기적 사건 전개가 4단계로 진행된다고 보고, 당신(堂神)의 경우는 ‘出生-追放 行脚-司祭 選定-坐定’의 4단계로 구성되고, 일반신(一般神)의 경우에는 ‘出生-苦行 또는 結緣-回運 또는 破綻-坐定’의 4단계로 구성된다고 하였다.(현용준, 앞의 책, 1992. 56쪽)

부모 못내 본 ㄹ못(구멍)이란 노단저드랭이(右腋) 허우튼어 난다.

신구월 여레드레(十八日) 근당ㅎ영 신멩두가 솟아낳젠ㅎ니

알로 낳젠ㅎ난 부모 못내본 ㄹ못이고,

노단저드랭이 성님 난 딜로 낳젠ㅎ난 놀꺃네가 나난

웬저드랭이(左腋) 허우튼어 나는구나.

삼구월 스무으드레 근당ㅎ니, 살아살축 삼멩두가 솟아낳저

알로 낳젠ㅎ니 부모 못내본 ㄹ못이여

노단저드랭이 허우튼어 낳저 놀꺃네가 나고

웬저드랭이 허우튼어 낳젠ㅎ니 놀꺃네가 난다.

오목가십 허우튼언 난다.

(이중춘本)<sup>31)</sup>

이렇게 기불(祈佛) 탄생한 비범인 처녀와 비범한 남편 사이에 비범한 방법에 의하여 비범한 주인공은 탄생한다. 이러한 출생은 석가의 출생담이나 알영(闕英)의 출생담에서도 발견된다. 평범한 인간의 탄생과는 다르게 특별한 비범성이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범한 출생 요소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물론 비범한 재능(才能)과 문무(文武)를 겸비하여 총명한데다 양반·장자 등 대적자(對敵者)인 악자(惡者)를 만나 그 일생에 갖가지 갈등을 겪게 된다.

다음으로 삼형제의 수난과 그 극복 과정을 살펴보겠다. 수난에 처했을 때 주동자의 행동은 대개 ‘~해서 울다’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연행상의 관습이면서 주동자의 행동 유형을 나타내 주는 표지가 된다.<sup>32)</sup> 삼형제가 겪는 수난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문무병(1998), 앞의 책, 132쪽.

32) 최시한(1986), 앞의 논문, 198쪽.

수난	적대자 (장애물)	원조자	결과
삼형제가 배나무 위에서 울다	삼천선비	배좌수	내려와 서울가다
삼형제가 궁에 못들어가서 울다	삼천선비	팔죽장수 할미와 딸	장원하다
삼형제가 장원이 취소되어 울다	삼천선비	삼형제 자신	장원이 유지되다
아기씨가 제석궁에 갇히다 (삼형제가 어머니가 죽어서 울다)	삼천선비	임정국대감, 주자선생, 삼형제, 너도령, 쇠철이	풀려나다 (어머니를 살리고 삼천선비 죽이다)

삼형제에게 있어 적대자는 오직 삼천선비<sup>33)</sup> 뿐이다.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과거를 보러 가며, 삼형제가 중의 자식임을 일러바쳐 과거 급제를 잠시 무효화시키기도 하는 존재인 삼천선비는 이름 그대로 ‘선비[士]’이다. 그들과 시종 대립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과거에 급제하기도 하는 삼형제 역시 일면 유자(儒者)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삼형제와 그들의 사이에는 의지의 대립과 함께 ‘가난함/풍족함’, ‘천함(상민, 승려, 심방)/귀함’, ‘선한/악함’의 대립이 겹쳐져 있다.<sup>34)</sup> 이러한 대립은 주로 삼천선비의 패배(죽음)로 결론지어진다.

삼형제의 원조자들은 가족 내에서 권위를 지닌 조상인 외조부와 아버지, 부자인 배좌수, 가족과 쇠를 다루는 기능을 지닌 너사매너도령과 쇠철이 아들 등이다. 이들은 모두 월등한 권위와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다. 이 중 외조부와 아버지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를 통해 능력과 권위를 물려준다. 아버지는 삼형제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생 팔자를 그르쳐야 한다”고 알려 주고 또 각자가 대접 받을 곳에서의 차례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외조부 천하 임정국 대감과 아버지 주자선생이 지닌 능력과 성격은 삼형제의 신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3) 제주도 신화에서는 모티프의 중복이 심하다. <천지왕본풀이>와 세화리 본향당신인 <백주 또 본풀이>에서도 ‘삼천선비’가 적대자로 나타난다.

34) 최시한(1986), 앞의 논문, 202쪽.

천하 임정국 대감은 지하 짐진국 부인과 함께 그 능력과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 그들은 매우 부자이고 늦도록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그들이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천양공스[天皇公使], 지하공스[地下公使]” 일을 보러 간다. 한편 삼형제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의조부를 찾아 갔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은 아버지를 찾아가 보라고 말하는 것뿐이어서 어떤 단서를 잡기 어렵다.

명칭과 직책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성격은 옥황상제와 친밀한 관계에 있고 그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들은 신성하고 전능한 존재와 맺어져 있어 연락이 가능하며 이승과 저승에서 인간을 직접 다스리는 권위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삼형제의 아버지인 주자 선생의 면모는 매우 복잡적이다. 그는 가부장적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시종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한다. 승려이면서 아기를 갖게 했고, 그랬으면서도 시련 끝에 찾아간 아내에게 절의 세계가 아닌 다른 곳 즉 “불도땅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라고 한다. 승려로 그려져 있으나 이름이 유교적인 색채를 띤 주자선생이며, 그러면서도 과거 급제 대신 또는 과거 급제보다 팔자를 그려쳐 심방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여 삼형제에게 신직 획득을 주재하기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은 어떤 체계화된 사상이나 규범에 관련 지워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가 임정국 대감처럼 초월적 능력과 권위를 지닌 남성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삼형제의 수난극복 과정은 초월적 능력과 권위를 지닌 남성 또는 조상의 도움으로 인간이 일으키는 고난을 물리치고, 죽은 어머니를 재생시킴으로써 그들 또한 초월적 능력과 권위를 지닌 존재가 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35)</sup>

<초공본풀이>는 3대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후대(後代)의 등장과 동시에 서술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sup>36)</sup> 제2대의 아기씨 이야기는 제3대인

---

35) 최시한(1986), 앞의 논문, 204쪽.

36) 김우주(2004), 앞의 논문, 33쪽.

삼형제의 등장으로 인해 이야기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며, 아기씨의 출산과 더불어 과업 수행의 임무는 삼형제에게로 넘어간다.

삼형제는 주어진 신직의 획득이라는 과업보다는 세속에서의 출세를 더 바란다. 그러나 신직 획득야말로 본풀이가 지어진 근본 이유이기 때문에, 삼형제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전생 팔자를 그르치고 신직 획득이라는 운명 지어진 과업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이야기가 결말을 맺게 된다.

## 2) 심방의 내력담

<초공본풀이>의 후반부는 제주도 무속 사회에서 심방의 세습과 굿법의 시작을 말해 주는 대목으로, 심방이 될 사람에게 ‘약밥약술’을 먹이고, 수심방이 삼시왕을 대신하여 심방의 자격을 인정하는 ‘어인타인’을 찍어 주는 등의 심방의 입무 과정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그리고 양반의 딸을 심방으로 만들어 팔자를 그르치게 함으로써 양반에 대한 복수를 하였다 는 무조 삼형제의 신의(神意)를 담고 있다.<sup>37)</sup>

지금까지 <초공본풀이> 연구는 신화의 전반부 무조(巫祖)의 내력담과 굿법에 대한 관심에서 이루어졌고, 후반부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 이유는 신화의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무조의 내력담과 후반부의 내용이 너무나 이질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채록된 <초공본풀이> 대부분이 후반부의 내용을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후반부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37) 이 부분도 異本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자료들이 양반집 딸 유정승 아기씨가 노는 것을 보고 육간제비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本에서는 무조삼형제가 양반의 딸을 전생팔자를 그르칠 방도를 아버지께 물은 후, 과랑 공에 육간제비를 주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리고 김만보본에서는 유정승이 어머니를 죽인 삼천선비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삼형제가 유정승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딸아기의 팔자를 그르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인과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양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제주도 굿의 여러 면에서 발견된다. <영감놀이>에서도 도깨비신인 영감신을 양반으로 묘사하여 양반의 횡포와 그에 대한 민중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있는 김만보本<sup>38)</sup>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화의 구조를 살피도록 하겠다.

- (1) 삼시왕이 하늘에 오르며 생각하니 과거를 보러갈 때 양반 삼천선비 중 유정승이 삼형제가 중의 아들임을 밀서한 것이 억울해서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한다.
- (2) 아무 죄도 없는 유정승 외딸 아기가 화숯물가에 놓고 있는데 삼시왕이 조화를 부려 육간제비를 줌에 한다.
- (3) 유정승 딸이 육간제비를 주워서 가지고 놀다가 집에 가져가 노뚝돌 밑에 숨겨둔다.
- (4) 6살에 육간제비를 줌, 7살에 갑자기 눈이 멀어, 17살에 눈을 뗐다가, 27살에 또 눈이 멀어 37살이 되니 밝았다. 47살이 되니 어두웠다 57살이 되니 뗐다.
- (5) 67살이 되어 만능천지가 되었으나, 장님이라 시집도 못갈 것이고 아무 데도 못쓰게 되니, 아버지가 딸에게 네 팔자 네 사주니 아무데라도 다니며 살 도리를 하라고 한다.
- (6) 유정승 따님이 육간제비를 지니고 낮에는 연기를 따라 밤에는 불 켜는 곳을 따라 동서남북으로 점을 치며 다닌다.
- (7) 아랫녘 마을 자복장자네집(말복장자네집)에 들어가 울고 있는 사연을 물으니, 이 집 외동딸이 죽어서 일곱 매장을 묶어 놓고 제를 지내며 운다고 한다.
- (8) 상을 차려 놓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비님을 하고 제비쌀점을 치니, 이 아이는 삼시왕에 걸렸으니 굿을 해야 한다고 나온다.
- (9) 연유를 닦으며 소지를 올린 후에, 죽은 아기가 살아나거든 이 재 넘고 저 재 넘어 유정승 따님아기를 찾아오라고 말하고 떠난다.
- (10) 말복장자 작은 딸아기가 살아나자, 유정승 딸을 찾아 굿을 해달라고 청한다.

---

38) 1995년 5월 27일-6월 9일까지 북제주군 함덕리에서 치러진 정태진·이승순 부부의 신굿에서 오사카에서 온 김만보 심방이 들려준 본풀이를 문무병이 채록 정리한 것이다. 굿을 하며 직접 노래한 것이 아니고, <초공본풀이>에 담긴 신굿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래와 설명을 곁하여 들려준 것이라고 한다.(문무병, 앞의 논문, 1999 참조)

- (11) 굿을 하려해도 명도도 없고, 북과 장구도 없고, 소미도 없었다.
- (12) 처음 전생팔자 그르쳐 점치기 시작해도 누구 인도시켜 주는 사람도 없  
이 다니다가, 어주애삼늑거리 서강베포 화숯물 신전집 앞에 가서 수양천  
배를 하다가 지쳐서 누웠다.
- (13) 삼시왕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다가 올레에 여자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  
고 너사무너도령을 시켜 데려오라고 한다.
- (14) 강명주 전대로 끌어들여다 사연을 물으니, 유정승 따님이 팔자를 그르  
쳐 다니다가, 말복장자네 집에서 굿을 해달라기에 가보니 굿을 할 무당서  
도 없고 무구도 없어서 헤매고 다닌다고 한다.
- (15) 삼시왕이 은저울을 내어놓아 저울을 달아보니 백근이 못 차서, 무당서  
를 내줄테니 공부를 더 하고 오라고 한다.
- (16) 무당서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삼시왕에서 너사무너도령을  
시켜 유정승 따님을 걸러 들이라 한다.
- (17) 삼시왕이 유정승 따님을 인간에 다니며 부정이 많으니 향불을 피워 들  
어 휘두른 후, 대추나무 은저울로 달아 보고 작은 장대 한 장대가 찼으  
니 이제 신전에 가서 굿을 해도 되겠다고 한다.
- (18) 삼시왕이 유정승 딸에게 삼천기덕·일만제기·궁전공납을 다 타 가려고  
하면 모든 역가를 다 바치라고 한다.
- (19) 모든 역가를 다 바치면 신의 제자로서 신의 하신충이 될 수 있을 것이  
니, 약밥약술도 먹고 어인타인 감봉수리 막음을 준다.
- (20) 역가를 바쳐 팔자를 그르쳤으니 삼시왕에서 모든 무구와 악기, 의복 전  
체를 내어주라 한다.
- (21) 모든 무구를 받은 후에는 심방 복장을 차리고 삼시왕 앞에서 예개마을  
불러서 춤을 추게 한다.
- (22) 감상기와 신칼을 잡고 춤을 추다가 쓰러지면, 연유를 닦아가지고 삼시  
왕에 예를 바친 심방이 어인타인 맞아 약밥약술 먹었으니 당당한 심방이  
될 수 있을지 쇠놀림굿으로 점을 친다.
- (23) 점의 결과가 허급 받은 심방이 되었다고 나오면, 심방 될 팔자를 타고  
난 몸이니 소무를 빌어다 자복장자네 집에 굿을 하러 간다.

위의 내용은 심방이 아닌 사람이 심방이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



로, 강신무들의 입무 과정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강신무들의 입무 과정은 보통 ‘신병(神病) 체험-내림굿-굿법의 학습’<sup>39)</sup>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 후반부에 드러나는 심방의 입무 과정 또한 ‘신병(神病) 체험-굿법의 학습-심방이 되는 의식(내림굿)’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강신무들은 신병을 앓다가 내림굿을 받고 나면, 그 때부터 굿을 해준 무당과 신입무(新入巫)사이에 신어머니와 신딸의 관계가 맺어지고 본격적인 굿법의 학습이 시작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심방은 세습무로서 어린 시절부터 굿에 참여하여 굿법을 배우게 된다. 강신무의 내림굿에 해당하는 신굿을 하기 전부터 이미 굿법의 학습이 시작되는 것이다. 강신무에게 있어 신의 부름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입무의 계기가 되는 데 반해, 제주도의 심방은 입무의 계기보다 제대로 된 굿법을 학습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병 체험에 있어서도 강신무들의 입무가 신병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반해, 제주도 심방의 경우 신병 체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신병 체험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초공본풀이> 뒷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면, (1)-(5)까지는 주인공이 신병을 앓고 팔자를 그르치는 내용이다. 삼형제가 양반의 원수를 갚고 삼시왕에 올라가는 도중, 남천문밖 ‘유정승 따님 아기’를 만나 ‘파란 공에 육간제비’를 준다. 유정승 따님 아기는 이로부터 눈이 멀어 죽었다 살았다 하다가, 예순 일곱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눈이 뜨이고 신안(神眼)을 얻는다. 그러나 아랫마을 자부장자집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굿을 해야 하는데 굿법을 몰랐다.

(6)-(15)에서는 유정승 따님이 굿법을 배우는 과정을 보여준다. 유정승 따님은 굿법을 모른 채 굿을 하던 도중 혼절한다. 꿈속에서 해매다가 북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그 곳은 서강베포땅이었으며 무조 삼형제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궁전이 있었다. 그 때에 삼형제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

39) 김인희, “내림굿, 성숙한 인격의 구도자로서의 전환”, 『황해도 내림굿』, 열화당, 1983. 75-96쪽.

하여 삼시왕에서 서강베포땅에 내려와 있었다. 유정승 따님은 삼시왕 앞에 엎드려 전생 팔자를 그르쳐 심방이 되려는데 굿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말한다. 삼시왕은 유정승 따님 아기가 굿을 하면서 얼마나 역가를 올렸는지 그녀의 정성을 저울로 달아본다. 그 결과 백 근이 못 찼다. 그로부터 유정승 따님은 삼시왕이 내어준 무당서를 가지고 어머니의 궁에서 도를 닦았다.

(16)-(23)까지는 심방의 입무의례 과정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무당서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삼시왕에서 너사무너도령을 시켜 유정승 따님을 걸러 들이라 한다. 삼시왕이 유정승 따님을 인간에 다니며 부정이 많으니 향불을 피워 들어 휘두른 후, 대추나무 은저울로 달아보니 백근이 찼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굿을 해도 좋다고 허락한다. 삼시왕에서 약밥약술을 먹여 심방이 되는 의식을 행하고, 어인타인을 찍어 심방임을 인정해 주고 나면, 무당서 삼천 권과 삼천기덕·일만제기·궁전궁납을 내어 준다. 모든 무구를 받은 후에는 심방 복장을 차리고 삼시왕 앞에서 춤을 춘다. 감상기와 신칼을 잡고 춤을 추다가 쓰러지면, 연유를 닦아가지고 삼시왕에 예를 바친 심방이 어인타인 맞아 약밥약술 먹었으니 당당한 심방이 될 수 있을지 쇠놀림굿으로 점을 친다. 점의 결과가 허급 받은 심방이 되었다고 나오면, 심방 될 팔자를 타고난 몸이니 소무를 빌어다 굿을 하러 간다. 유씨 부인은 돌아와 굿을 하여 자복장자의 딸을 살려냈다. 유씨 부인이 받은 무당서 삼천 권은 굿법을 기록한 책이며, 지금도 그 굿법에 따라 굿을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공본풀이> 후반부는 본풀이가 어떤 한 존재의 내력을 담은 것이라고 할 때에는 별 개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령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심방에 관한, 즉 신령의 권위와 능력에 힘입어 무업(巫業)을 수행한 최초의 존재에 관한 부분인 것이다. 이는 신령과 그에 의지하여 초월적 능력을 행사하는 심방이 구별되어 있고, 유정승 따님 즉 ‘심방선생’의 본풀이가 따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면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sup>40)</sup>

그러나 이질적·독립적 성격이 강한 이 단락도 시조(始祖)에 관한 풀이라고 본다면, <초공본풀이>에는 위계가 다른 두 시조 또는 원조의 본풀이가 연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속 구조는 본풀이를 연행하는 심방에게 있어서, 무조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맡은 기능 또는 능력을 앞서 수행한 조상을 섬기는 행위 또한 중요한 일임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무조신의 내력을 푸는 것과 동시에 심방 조상의 내력 또한 풀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삼형제 이야기와 유정승 따님 부분은 초월적 존재로 되어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뿐만 아니라 초월적 존재로 되어 가는 과정이 모두 죽은 자를 살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리공주 신화에서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림으로써 그렇게 되었듯이, 삼형제는 삼천천제석궁에 갇힌(죽은) 어머니를 살림으로써 신성한 존재가 되었고, 유정승 따님 역시 장자집 딸아기를 살림으로써 심방으로서의 초월적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유정승 따님은 삼형제가 겪는 중요한 과정을 한 몸으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1)</sup>

여기에서 유정승 따님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위계 또한 다른 존재에 대한 본풀이이면서도, 무조 삼형제의 본풀이 뒤에 연속되어 있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삼형제의 이야기 뒤에 연속됨으로써 심방 및 그 조상(유정승 따님)이 겪는 과정과 지니고 있는 능력이 그들이 의지하는 존재인 무조신의 그것을 반복·모방한 것임을 이야기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 신성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II장에서는 <초공본풀이>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여러 편의 이본들을 비교하여 <초공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한 결과, <초공본풀이>는 행위 주체 즉 중심인물에 따라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중 앞의 세 단락은 ‘임정국 부부-자지멩왕 아기씨-무조 삼형제’에 이

40) 최시한(1986), 앞의 논문, 11-12쪽.

41) 최시한(1986), 앞의 논문, 12쪽.

르는 삼대에 걸친 한 집안의 이야기였으며, 마지막 한 단락은 가게 상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의 이야기로 되어 있었다.

<초공본풀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삼형제가 어머니를 살려내고 삼시왕에 오르는 것이라고 할 때, 전반부 이야기의 중심인물은 삼형제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전반부 이야기는 삼형제의 ‘출생→수난→수난극복→신격 획득’의 전기적 구조로 짜여진 무조신(巫祖神)의 내력담으로, 비범하게 출생한 주인공이 초월적 능력과 권위를 지닌 남성 또는 조상의 도움으로 인간이 일으키는 고난을 물리치고, 죽은 어머니를 재생시킴으로써 그들 또한 초월적 능력과 권위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초공본풀이> 후반부는 ‘신병(神病) 체험→굿법의 학습→심방이 되는 의식(내림굿)’의 구조로 짜여 있으며, 심방이 아닌 사람이 심방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심방의 내력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강신무의 경우 신병을 앓다가 내림굿을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굿법의 학습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 굿법의 학습이 선행되고 난 후에 내림굿을 하게 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와 같이 <초공본풀이> 속에는 무조신과 최초의 심방이라는 위계가 다른 두 시조(始祖)의 본풀이가 연속되어 있었다. 이 연속 구조는 본풀이를 연행하는 심방에게 있어서 신령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맡은 기능을 앞서 수행한 조상을 섬기고 그 내력을 푸는 것이 모두 다 중요한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이 두 개의 본풀이는 초월적 존재로 되어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삼형제가 어머니를 살림으로써 신성한 존재가 되었듯이, 유정승 따님 또한 장자집 딸아이를 살림으로써 심방으로서 초월적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삼형제가 겪는 중요한 과정을 유정승 따님에게 모방하게 함으로써 신성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위계 또한 다른 존재인 유정승 따님의 이야기가 신화의 후반부에 연속되어 있는 이유가 된다.

### Ⅲ. <초공본풀이>와 신긋의 관계

Ⅲ장에서는 앞서 Ⅱ장에서 살펴 본 <초공본풀이>의 구조를 바탕으로, 먼저 신긋의 전체 맥락 속에서 <초공본풀이>의 기능을 살필 것이다. 그런 다음, 신화의 전반부 무조신의 내력담과 후반부 심방의 내력담이 입무 의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당주맞이> 제차의 어느 부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작용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방의 입무 의례 특징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 1. 신긋의 의미와 <초공본풀이>의 기능

심방의 입무 의례인 신긋에서 무조신화 <초공본풀이>는 굿에서 구송되는 다른 신화들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긋에서 가장 중요한 제차인 <당주맞이>가 바로 <초공본풀이>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입무 의례로서 신긋이 가지는 의미를 살핀 다음, <초공본풀이>가 신긋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굿의 진행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신긋의 의미

제주도의 무속 의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큰긋><sup>42)</sup>이라 할 수 있다. <큰긋>은 경륜이 있는 큰 심방을 수심방[首巫]으로 하여 굿법을 지키며 진행되는 굿이다. 굿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의례를 연속적으

42) 큰긋은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모든 제차를 ‘차례차례 재 차례’로 하는 종합제로서의 굿 전체를 광의의 의미라 한다면, 심방 집에서 하는 ‘신긋’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가(私家)에서 하는 종합제를 협의의 큰긋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광의의 의미로 사용된 큰긋의 경우는 <큰긋>으로 표기하고, 협의의 의미로 사용된 큰긋의 경우는 ‘큰긋’으로 표기 한다.

로 다하는 일종의 종합제로 4~5명 이상의 심방이 동원되어 4~5일 심지어는 ‘두 이레 열나흘’ 동안 하게 되는 규모가 큰 굿이기 때문에 <큰굿>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sup>43)</sup>, 누구나 인정하는 큰심방이 굿법에 따라 제대로 하는 중요한 굿이기 때문에 <큰굿>이라 한다.<sup>44)</sup>

<큰굿>은 심방 집에서 하는 신굿과 사가(私家)에서 하는 ‘큰굿’이 있다. 제주도의 신굿은 심방집에서 하는 <큰굿>이다. 사가(私家)에서 하는 ‘큰굿’의 내용에다 심방으로 거듭나게 하는 입무의례(入巫儀禮)로서 <당주맞이><sup>45)</sup>의 여러 제차가 삽입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굿이다. 따라서 신굿은 제주도의 <큰굿> 중의 <큰굿>이며, ‘次例 次例 再次例’ 굿으로 제주도 굿의 모든 형식과 내용이 다 들어 있어서 완벽한 굿의 체계와 질서를 가진 굿이라 할 수 있다.

심방집의 신굿은 사람을 위한 굿인 동시에 심방을 위한 굿이기 때문에 중층적(重層的)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46)</sup> 일반 사가(私家)에서의 신통(神統)은 하늘을 차지한 옥황상제로부터 난가리를 지키는 놀굽지신까지 많은 신이 위계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sup>47)</sup>, 그 중 시왕(十王)이 일반 사람

43) 제주도의 신굿은 ‘두이레 열나흘’로 밤·낮 7일 동안 계속되는 굿이다. 실질적으로 7일 동안 밤새 진행되지만, 밤과 낮을 각각 하루로 여겨 밤 7일, 낮 7일로 ‘두이레 열나흘’간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다. 요즘에 들어서는 밤을 새워 굿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큰굿의 모든 차례를 다 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일에서 10일 정도에 끝내는 경우가 많다.(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앞의 책, 14쪽)

44)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편(2001), 앞의 책, 13쪽.

45) 일반적으로 굿의 거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당에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주도 굿의 경우 그 구조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 제차가 잘 정리되지 않아, 굿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당주맞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주맞이>는 신굿의 소제차(小祭次)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신굿 전체를 <당주맞이> 또는 <삼시왕맞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소제차인 <당주맞이>를 ‘당주맞이’와 ‘곱은 명도’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당주맞이> 속에서 ‘당주길치기’, ‘곱은 명도’, ‘약밥약술’, ‘어인타인’을 다루는 등 연구자에 따라 정리 방법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당주맞이>를 신굿의 핵심이 되는 소제차 이름으로 사용하고, <당주맞이>라는 상위 제차의 하위 개념으로 ‘약밥약술’, ‘어인타인’, ‘당주길치기’, ‘곱은 명도’, ‘쇠놀림굿’을 다루고자 한다.

46) 현용준(1989), 앞의 책, 87쪽.

47) 제주도 굿에서는 상위 신에서 하위 신에 이르는 신통의 계보가 정리되어 있어 굿 속에서

들의 생명과 사후(死後)의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가(私家)의 ‘큰굿’에서는 이 신통에 의해 주요한 신들에 대한 개별 의례를 연속적으로 그리고 위계 순으로 행하며 <시왕맞이>를 가장 중요시하여 성대하게 한다.

이에 비해 심방은 자신을 일반 사람인 동시에 심방이라는 특수한 계층에 속하는 이중적인 성격의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심방이 죽으면 일반인의 사자(死者)를 관장하는 시왕(十王)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신(巫祖神)인 삼시왕(三十王)에게 간다고 믿는다. 그래서 일반인이 시왕을 주요한 신으로 쳐서 시왕을 중심으로 한 옥황상제로부터 놀급지신까지의 신통을 짜놓고 있는 것처럼, 심방들은 삼시왕을 주요한 신으로 쳐서 이 신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신통을 구성해 놓고 있다. 그래서 심방집의 신굿에서는 일반 사가(私家)에서 행하는 큰굿의 제차, 즉 시왕을 중심으로 한 신통의 신들에 대한 개별 의례를 연속적으로 행함과 동시에, 심방의 무조신인 삼시왕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신통의 신들에 대한 개별의례를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굿이 십여일이나 걸리는 것이다.

새로 심방이 되는 사람이나 계급을 한 단계 올리려는 심방은 반드시 신굿을 해야 한다.<sup>48)</sup> 신굿은 일생에 세 번 하는데,<sup>49)</sup> 첫 번째는 소미[小巫]가 심방으로 독립할 때 선생인 심방이 수심방이 되어 해 준다. 이 신굿을 함으로써 비로소 심방으로 인정되고 ‘하신충’이란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 두 번째의 신굿은 하신충이 된 후 여러 해 지나서 선생인 심방이

---

구송되는데, 이처럼 상위 신에서 하위 신에 이르는 신통의 체계를 ‘젯다리’라 한다. ‘젯다리’ 순서에 따라 신을 청해오고, ‘젯다리’ 순서에 따라 신을 돌려보낸다. 그리고 신에게 술을 올리거나 음식을 권할 때도 모두 ‘젯다리’ 순서에 따른다.

- 48) 현재는 이 굿을 하지 않아도 심방으로 무업(巫業)을 하는 이가 있지만, 예전에는 신굿을 하지 않으면 심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격단체였던 심방청(神房廳)에 등록도 못했다. 만일 신굿을 하지 않은 자가 무업을 하면 심방청에 가서 엄벌을 받았다고 한다.(현용준, 앞의 책, 1989, 86쪽)
- 49) 기존의 연구에서 신굿의 횟수에 대해 현용준은 “일생에 세 번 행해진다”고 하고, 김현선은 “심방의 신굿을 흔히 초신질, 이신질, 삼신질, 대영례라고 평생에 네 번 하는 것이 예사”라고 했으며, 문무병은 “3회 이상 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의 신굿은 필수적인 것으로 꼭 해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심방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 선배 심방에게 부탁한다. 첫 번째 신굿을 해 준 선생에게 부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때는 선생인 심방이 사망하여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배 심방에게 부탁하게 된다. 이 두 번째 신굿을 하면 ‘중신충’이 된다. 세 번째의 신굿도 정해진 시기는 없다. 적당한 시기에 택일하여 선배 심방에게 부탁한다. 세 번째 신굿을 함으로써 ‘상신충’이라는 호칭이 붙는데, 최고위의 심방이 된 셈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신굿을 하는 시기의 선정은 그 심방의 경제력에 좌우된다. 십여일 동안이나 걸리고 유명한 선배 심방이나 동료 심방들을 청하여 대접해야 하므로 굿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업을 하여 그만큼의 비용이 저축된 다음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굿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신굿이 제주도 심방들의 입무 의례(入巫儀禮)라 할 만한 굿이기 때문이다. 신굿은 심방이 되는 굿이다. 심방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팔자를 그려쳐 신의 아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굿은 삼시왕에 올라가 약밥약술[藥飯藥酒]을 타먹고, 어인타인(御印打印)을 맞는 과정을 거친 후, 무법(巫法)·무구(巫具)·무악기(巫樂器)·무복(巫服)을 받아 굿을 할 수 있는 심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입무 의례(入巫儀禮)라 할 수 있다.<sup>50)</sup>

## 2) <초공본풀이>의 기능

<초공본풀이>는 신굿의 전체 제차(祭次) 중 여러 번 반복되어 구송되는 신화이다. 그 형식도 신화의례로서 창(唱)되기도 하고, 영신의례(迎神儀禮)인 맞이굿에서 본풀이의 창(唱)과 함께 본풀이의 부분이 연기(演技)로 연출(演出)되기도 한다.<sup>51)</sup> 먼저 신굿의 전체 제차를 살펴보고, 굿의 연

50) 현용준(1989), 앞의 책, 86쪽.

51) 제주도 巫儀는 그 형식면에서 보아 基本形式儀禮·迎神儀禮·神話儀禮·聖劇儀禮·기타로 나누어지는데, 이 각각의 의례에 본풀이가 결부되어 있다. 기본형식의례의 경우는 請神 때에 <초감제>라는 본풀이가 불리는 것이 대표적이며, 비념[祈願]에서 아기의 無病成



행 속에서 <초공본풀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긋에 대한 자료는 몇 편<sup>52)</sup>에 불과하다. 그 중 신긋의 전체 진행 내용을 기록한 자료는 두 편(자료A와 D)이며, 이 중 한편(자료 D)만이 신긋의 현장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 또한 신긋의 핵심 제차인 <당주맞이>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지는 않다. 신긋에서 <당주맞이>는 3~4일 이상이 소요되는 아주 복잡한 제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긋들이 <시왕맞이>의 마지막에 ‘당주길치기’ 부분을 첨가해서 간략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sup>53)</sup>

여기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긋의 전체 진행 순서를 자료A·D·F를 중심으로 표로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長을 産育神에게 빌 때 産育神神話인 <삼승할망본풀이>가 노래 불러 지기도 한다. 영신의례인 맞이곳에서도 본풀이가唱되고, 본풀이의 부분 부분이 演技로 演出된다. 이 의례의 중심은 神이 來臨하는 길을 치워 닦는 대목인데, 이 대목에서 본풀이가 노래 불러진다. 본풀이는 신화의례에서도 창된다. ‘본풀이’라는 말을 신화를 일컫는 말임과 동시에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형식의 의례제차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신화의례에서는 심방이 祭床 앞에 앉아 장구를 치며 본풀이를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풀이의 내용이 성극의례로 실현되기도 한다. 성극의례란 ‘○○놀이’라 불리는 것들로서 聖劇 요소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巫儀를 말한다.(현용준, “한국신화와 제의”,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1992. 286-299쪽)

52) A.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B. 김수남·현용준, 『제주도 신긋』, 열화당, 1989.

C. 제주도 편, 『제주도민속V: 민간신앙·사회구조』, 제주도, 1997.

D.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편, 『제주도큰긋자료』, 도서출판 각, 2001.

E.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제주도의 무속음악』,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F. 연구자 조사자료(2003년 12월 13일-20일, 김윤수·이정자 부부의 신긋)

53) 문무병의 설명에 따르면 <당주맞이>의 모든 제차를 다 하는 곳은 10년에 한 번 볼 수 있을까말까 할 정도로 귀하다고 한다. 1986년 김윤수 심방 집에서 있었던 신긋 이후 이처럼 규모 있는 곳을 볼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복잡하여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1986년 김윤수 심방의 신긋에서 <당주맞이>는 10월 22일-25일까지 4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문무병은 자료C에서 김윤수 심방의 신긋 중 <당주맞이>의 핵심이 되는 부분만을 채록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당주맞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곳을 직접 조사했던 문무병과의 면담과 문무병이 정리하여 소장하고 있는 미발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자료 A	자료D	자료 F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감제</li> <li>2. 초신맞이</li> <li>3. 초상계</li> <li>4. 추물공연</li> <li>5. 석살림</li> <li>6. 보세감상</li> <li>7. 불도맞이</li> <li>8. 일월맞이</li> <li>9. <b>초공본풀이</b></li> <li>10. <b>초공맞이</b></li> <li>11. 이공본풀이</li> <li>12. 이공맞이</li> <li>13. 삼공본풀이</li> <li>14. 췌상계</li> <li>15. 시왕맞이</li> <li>16. <b>당주맞이</b></li> <li>17. <b>고분질침</b></li> <li>18. 세경본풀이</li> <li>19. 삼공맞이</li> <li>20. 세경놀이</li> <li>21. 문전본풀이</li> <li>22. 본향드리</li> <li>23. 각도비념</li> <li>24. 도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감제</li> <li>2. 군웅본풀이</li> <li>3. 초상계</li> <li>4. 추물공연</li> <li>5. 보세감상</li> <li>6. <b>초공본풀이</b></li> <li>7. 이공본풀이</li> <li>8. 삼공본풀이</li> <li>9. 세경본풀이</li> <li>10. 불도맞이</li> <li>11. 삼승할망본풀이</li> <li>12. 시왕맞이</li> <li>13. 천지왕본풀이</li> <li>14. 방광칩</li> <li>15. 차사본풀이</li> <li>16. 질치기(1)</li> <li>17. 질치기(2)</li> <li>18. 차사영맞이</li> <li>19. 질치기(3)</li> <li>20. 액막이</li> <li>21. 명감(스만이)본풀이</li> <li>22. <b>당주질치기</b></li> <li>23. <b>초공다리놓기</b></li> <li>24. 만당숙임</li> <li>25. 지장본풀이</li> <li>26. 삼천군병지사빔</li> <li>27. 영계둘러세움</li> <li>28. 문전본풀이</li> <li>29. 칠성본풀이</li> <li>30. 돛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감제(천지왕본풀이)</li> <li>2. 군웅본풀이</li> <li>3. 초상계</li> <li>4. 추물공연</li> <li>5. 보세감상</li> <li>6. 관세우</li> <li>7. <b>초공본풀이</b></li> <li>8. 공시풀이</li> <li>9. 석살림</li> <li>10. 이공본풀이</li> <li>11. 삼공본풀이</li> <li>12. 세경본풀이</li> <li>13. 불도맞이 (삼승할망본풀이)</li> <li>14. 시왕맞이</li> <li>15. 차사본풀이</li> <li>16. 나까시리놀림</li> <li>17. 지장본풀이</li> <li>18. 삼천군병질침</li> <li>19. 차사영맞이</li> <li>20. 질치기(1)</li> <li>21. 질치기(2)</li> <li>22. 질치기(3)</li> <li>23. 차사본풀이</li> <li>24. 푸다시</li> <li>25. 액막이</li> <li>26. 사만이본풀이</li> <li>27. <b>당주질치기</b></li> <li>28. 공시풀이</li> <li>29. 당주다리 메어듬</li> <li>30. 군웅놀림</li> <li>31. 양궁숙임</li> <li>32. 지장본풀이</li> <li>33. 칠성본풀이</li> <li>34. 문전본풀이</li> <li>35. 본향드리</li> <li>36. 영계둘러세움</li> <li>37. 군웅만판</li> <li>38. 각도비념</li> </ol>

위의 표를 보면, 신굿에서 <초공본풀이>가 구송되는 경우는 신화의례인 <초공본풀이> 제차와 영신의례인 <당주맞이> 제차이다. 신화의례인 <초공본풀이>는 굿의 앞부분에서 구송되고, 맞이굿인 <당주맞이>의 경우는 <시왕맞이>가 끝난 다음에 진행되는 데 굿 속에서 각기 그 기능이 다르다. 이제 무조신화인 <초공본풀이>가 신화의례에서 구송될 경우와 영신의례인 맞이굿에서 구송되는 경우, 그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가. 신화의례에서의 <초공본풀이>

본풀이라는 말은 신화를 일컫는 말임과 동시에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형식의 의례 제차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신화의례는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차사본풀이>, <지장본풀이>, <칠성본풀이> 등으로 그 종류가 많다. 이러한 본풀이 제차는 심방이 제상(祭床) 앞에 앉아 장구를 치며 본풀이를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다.<sup>54)</sup>

신화의례에서 본풀이의 청자는 신(神)이 된다. 심방이 신을 향해서 신의 내력을 노래로 들려주는 것이므로 신의 입장에서는 매우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神) 자신에 대한 일대기이며 신의 자서전이기에 때문에 3인칭에 의해 구송되는 1인칭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먼저 신화의례에서 <초공본풀이> 제차가 진행되는 순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54) 세습무의 굿에서 신화는 제상을 등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구송되며, 강신무의 경우 신화는 제상을 바라보고 신을 향해 구송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신화는 신화의 구송되는 목적에 따라 그 청자가 신일 경우도 있고, 일반 사람일 경우도 있다.

안사인本 <초공본풀이>	이중춘本 <초공본풀이>	신화의례의 일반적 진행순서 <sup>55)</sup>
① 공선가선 ② 날과 국 섬김 ③ 집안 연유 닦음 ④ 들어가는 말미 ⑤ <b>공시풀이</b> ⑥ 본풀이 ⑦ <b>공시풀이</b> ⑧ 주잔넘김 ⑨ 비념 ⑩ 산받아 분부사림	① 들어가는 말미 ② 초공본풀이 들어가는 말미 ③ 가선공선 ④ 날과 국 섬김 ⑤ 연유 닦음 ⑥ <b>신메움</b> ⑦ 초공본풀이 ⑧ 주잔권잔	① 날과 국 섬김 ② 연유 닦음 ③ 들어가는 말미 ④ 본풀이 ⑤ 비념 ⑥ 주잔넘김 ⑦ 산받아 분부사림

위의 표에 나타나는 소제차(小祭次)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 ① 공선가선(가선공선): 추물공연, 본풀이, 비념 등을 할 때 시작하는 관용구로, 대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어구의 나열로 되어 있다.<sup>56)</sup>
- ② 날과 국 섬김: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 ③ 연유 닦음: 굿하는 사연을 노래하는 부분이다.
- ④ 들어가는 말미: 본풀이 창으로 들어가는 개시(開始)의 진언(秦言)과 같은 것이다. “어떠어떠한 제차를 넘어 무슨 본풀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귀신은 본을 풀면(본풀이를 창하면) 신나라하고, 생인(生人)은 본을 풀면 백 년 원수지는 법이라서 이제 무슨 신(神)의 본풀이를 올립니다. 풀어져서 내려오십시오.”라는 내용의 사설을 노래한다.
- ⑤ 공시풀이(신메움): ‘신공시대풀이’, ‘공시대풀이’, ‘공시풀이’ 등으로 불리는 소제차로 모든 곳에서 무조령(巫祖靈)을 청해서 대접하는 부분이다. <초공본풀이>에 나타나는 무조신에서부터 최초의 심방인 유씨부인, 중국의 유명한 심방들, 심방청에 소속되었던 선배 심방들, 심방집에서

55) 현용준(1992), 앞의 책, 295쪽.

56) 심방이 앉아서 장구를 치며 하는 ‘공시풀이’ 같은 제차에서 연유 닦음을 ‘공선’ 또는 ‘가선공선’이라 한다.(제주도 편, 앞의 책, 1997. 236쪽)

섬기는 일월조상까지 모든 무조령(巫祖靈)을 다 청한다.<sup>57)</sup>

- ⑥ 본풀이: 심방이 자리에 앉아서 장구를 치며 본격적으로 <초공본풀이> 신화를 노래하는 부분이다.
- ⑦ 비념: 기원사(祈願詞)이다. 신화창이 끝나면 “무슨 본풀이를 올렸습니다. 부귀영화 시켜 주십시오.”식으로 본풀이가 끝났음을 알리고 소원을 비는 대목으로 넘어간다.
- ⑧ 주잔념김: 하위잡신(下位雜神)에게 술을 대접하여 보내는 부분이다.
- ⑨ 산반아 분부사뵈: 기원사항을 신이 잘 들어 주었는지 여부를 점치고 그 결과를 당주(堂主)에게 전달하는 부분이다.

앞에 나온 내용을 통해 볼 때, 신화의례인 <초공본풀이>는 먼저 본풀이를 하게 된 사유와 본풀이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신에게 고한 후, 무조신인 초공신의 본을 풀고, 이어서 기원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신화의례의 일반적 진행 순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공본풀이>에서는 다른 신화의례와 달리 ‘공시풀이(신메움)’가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안사인本의 ‘공시풀이’는 중국의 유명한 무당들과 심방집의 일월조상, 스승이나 선배 심방들의 이름을 “~님네도 초공연질로 신수뽕서”하며 무령(巫靈)들을 모두 호명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춘本에서는 ‘공시풀이’ 대신 ‘신메움’으로 되어 있는데, 안사인本과 마찬가지로 “초공연질로 신메와 드립니다.”라는 공식구를 통해 갖가지 신과 무령(巫靈)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신격과 무령의 위계가 좀 더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대체로 (가) 무속의례에서 섬기는 신들의 위계, (나) 초공본풀이와 관련되는 여러 위계의 신들, (다) 본주집에서 모시는 조상신과 안공시<sup>58)</sup>상에 놓인 명도(明刀)의 내력과 관련되는

57) 신굿에서 명도의 내력, 자신이 심방이 된 연유를 고백하는 ‘심방의 생애 이야기(life story)’를 공시풀이라 하기도 한다.

58) 심방이 굿할 때 사용하는 무구(巫具)인 요령·신칼·산판은 심방의 조상인 무조 삼형제를 뜻하며, 이 무구들을 올려 놓는 작은 상을 ‘공시상’이라 한다. ‘안공시’와 ‘뱃공시’를 합쳐서

신들, (라) 수심방이 모시는 조상신과 빗공시상에 놓인 명도(明刀)의 내력과 관련되는 신들, (마) 굿을 하는 마을에서 활동했던 심방들과 제주도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심방들의 혼령들을 순서대로 불러서 제상에 모셔들이는 것이다.

먼저 (가)에서는 초공, 이공, 삼공 등의 무속의례에서 중시하는 신들의 뿌리와 위계가 밝혀진다. (나)에서는 <초공본풀이>와 관련되는 신들의 세부적인 명칭을 열거한다. <초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주자선생, 임진국대감님, 짐진국 부인님, 노가단풍 차지맹왕 아기씨, 본맹두, 신맹두, 삼맹두, 유정승 따님애기, 너사무 너도령 삼형제 등이 언급된다. 이어서 <초공본풀이>의 굿법에 따라 굿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무구와 악기의 스승인 천문 선생 덕환이, 상잔 선생 덕진이, 신칼 선생 시왕대번지, 요령 선생 홍글저대, 북 선생 조막손이, 장귀 선생 멧철광대, 대양 선생 와랭이, 설쇄 선생 느저왕은 나정왕 등이 함께 언급된다.

(다)에서는 본주 집에서 모시는 조상신과 안공시상에 놓인 명도(明刀)의 내력과 관련되는 심방들의 이름이 나열된다. 먼저, 본주집의 일월조상을 호명한 다음, 본주가 모시던 스승 심방의 내력과 본주의 명도(明刀)가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명도(明刀)의 전승 과정을 자세히 나열한다. (라)에서는 수심방이 모시는 조상신과 스승 심방의 내력, 빗공시상에 놓인 명도(明刀)의 내력을 나열한다. (마)에서는 굿을 하는 마을에서 활동했던 심방들의 혼령들의 이름을 나열한다. 제주도 전 지역을 돌아가며, 지금은 고인(故人)이 된 심방들을 열거하고 신을 모아 들인다. 이러한 신메움을 통해서 제주도 심방의 내력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신을 불러서 신을 메우고 나면, 명도(明刀) 중에서 명도길을 제대로 가지 못해 다른 명도의 신길을 가로막는 좋지 않은 명도들을 불러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기원한다.<sup>59)</sup> 이처럼 ‘공시풀이’는 무조

---

‘안팎공시’라 하는데, ‘안공시’는 안에 차린 공시상이고 ‘빗공시’는 밖에 차린 공시상이다. 또, 신굿을 하는 본주제관 심방이 당주(堂主=몸받은 祖上, 무업을 전수해준 조상이며, 동시에 그 조상이 사용하던 巫具)로 모시는 무구를 모신 상이 ‘안공시상’이고 신굿을 집행하는 수심방의 무구를 모신 공시상을 ‘빗공시상’이라 한다.

신에서부터 심방 집안의 조상신과 스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령(巫靈)을 이 자리에 모시는 제차로서 <초공본풀이> 신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신화의례에서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의례에서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것은 제주(祭主)나 구경꾼의 흥미를 위한 것도 아니요, 심방 자신의 예술적 흥취에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신화창(神話唱)이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신(神)을 출현(出現)시키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의례(儀禮)의 정당성(正當性)과 기구사항(祈求事項)의 성취(成就)를 보증하는 기능이다.<sup>60)</sup>

첫째, 신화창은 신을 출현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아래에서 인용하고 있는 본풀이 제차의 들어가는 말미에서 그 의미의 추정이 가능하다.

초공 난산국 신(神) 풀저 흐는 디,  
삼월삼진일 즈지는 바랑  
은영미(銀玉米)금탁시권제 신글아 우올리며  
초공 난산국 신풀저 홉네다.

**귀신은 본을 풀민 산나락흐는 법이웁고**

생인(生人)은 본을 풀민 백년원수 지는 법이웨다.  
초공 임정국 상시당 초공 난산국으로,  
신풀어 하전(下轉)홉서, 과광성 신품네다.

(안사인本)<sup>61)</sup>

위에 소개된 안사인本 <초공본풀이> 말미의 중심 내용은 “귀신은 본

59) “시군문 연드리로 / 어시력이 멩두, 더시력이 멩두 /  
원살축 신살축 꼬부랑살성 멩뎡발들, /  
당주스룩 몸주스룩 신영스룩 불러주던 멩뎡발들, /  
자리 아래 끌려들어 멩뎡발들이 / 청주독엔 청스룩 스주독엔 백스룩  
탁주독엔 흑스룩 나무광왕대 청대알 스룩신 불러주던 멩뎡발 들라근 /  
신군문 연드리 다 절진헉서. / 말째라그네 잘 우망적선 하겠십네다 이-”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큰굿자료』, 도서출판 각, 2001. 212쪽)

60) 현용준, “濟州道巫俗儀禮研究”, 『논문집』 제7집, 제주대학, 1975. 102-107쪽.

6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142쪽.

을 풀면 신나락하니까 신을 풀어 올린다.”는 것이다. ‘신나락하다’는 ‘신나다’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오늘날 사전적 의미는 ‘흥이 일어나 기분이 아주 좋아지다’의 뜻으로 쓰여 지고 있지만, 본래의 뜻은 ‘신(神)이 나다(출현하다)’에서 온 것이다.<sup>62)</sup> 결국, 신화의례인 <초공본풀이>에서 신화를 창하는 이유 또한 <초공본풀이>와 관련된 모든 신들을 현재 곳을 하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출현시키는 데 있다. 신을 곳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불러들인 다음에야 곳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화창은 의례(儀禮)의 정당성(正當性)과 기구사항(祈求事項)의 성취(成就)를 보증하는 기능이 있다. <초공본풀이>의 내용을 자세하게 노래하는 것은 초공신을 찬송하거나 위로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초공본풀이> 속에는 무조 삼형제가 시련을 극복하고 어머니를 살려내 무조신으로 좌정하게 된 내력과 굿법, 이러한 굿법이 최초의 심방에게 어떻게 전승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 신이 무조신으로서의 능력을 확실히 제시하는 것이 되며, 그 능력을 발휘하여 기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신의 태초적 행적과 능력을 제시함은 그 의례의 정당성과 의례 효험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의미가 있다. 기원(祈願)에 앞서 신화를 노래하는 것은 신의 위력과 행적 등 모든 것을 현실에 제시하여 실증(實證)하고 그것을 근거 삼아 기원하는 것이 되니, 신이 기구사항(祈求事項)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초공본풀이>는 의식을 담당하는 무(巫)와 무법(巫法)의 시원적 창시자들을 대상 신으로 삼고 행해지는 제의이다. 그러므로 이 제차는 심방들이 자신들의 수호 조상신 즉 의식을 담당하는 제신(諸神)들의 업적을 기리면서, 한편으로는 의식이 잘 행해질 수 있도록 소망하고자 마련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의례에서 <초공본풀이>는 신을 현실에 출현시키고, 의례의 정당성과 의례 효험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62) 현용준(1992), 앞의 책, 294-296쪽.



## 나. 맞이굿에서의 <초공본풀이>

맞이굿은 ‘청신(請神)→공연(供宴)·기원(祈願)→송신(送神)’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기본 형식 의례에다, 소로작업(掃路作業)을 상징하는 ‘길침’이라는 의례가 더해진 것이다.<sup>63)</sup> 다시 말하면 모든 맞이굿은 청신(請神)의 의례인 <초감제>를 한 후, 신이 하강하는 길을 치워 닦아 신을 맞이해 들이고, 소지를 올리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길을 치워 닦는 방식은 길에 무성한 잡초를 베어 넘기고 흙을 고르고 각종 다리를 놓고 하는 과정을 상징적인 행위로 수행하여 신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맞이굿은 언어 위주의 기본 형식 의례를 한 후에 행동 위주의 소로 작업과 공연, 기원을 다시 하는 이중 구조의 영신의례(迎神儀禮)라 할 수 있다. 맞이굿에는 <불도맞이>, <일월맞이>, <초공맞이>, <이공맞이>, <삼공맞이>, <시왕맞이> 등이 있다.

이 의례의 중심은 신(神)이 내임(來臨)하는 길을 치워 닦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본풀이가 구송된다. 먼저 맞이굿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시왕맞이>, 무조(巫祖)인 초공신을 맞아들이는 곳인 <초공맞이>, 신곳의 핵심 제차인 <당주맞이>의 진행 과정을 표로 정리한 다음, 맞이굿에서 본풀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63) 현용준(1980), 앞의 책, 15-20쪽.

〈초공맞이〉 <sup>64)</sup>	〈시왕맞이〉 <sup>65)</sup>	〈당주맞이〉 <sup>66)</sup>
<p>(1) 초감제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집안연유담음 군문열려 새드림 신청래 산받아 분부사됨</p> <p>(2) 추물공 공침 좌우뚝길돌아봄 연월도로베기 작대기로치우기 은따비로파기 발로 좁삼태로치우기 미레깃대로고르기 이슬다리놓기 마른다리놓기 나비다리놓기 서천강연다리놓기 서울궁기메우기 시루다리놓기</p> <p>〈초공본풀이〉 천황나화다리놓기 청너울다리놓기 작도다리놓기 금부채다리놓기 칼선다리놓기 애손다리놓기 등진다리놓기 오른다리놓기 모욕상잔다리놓기 개천문다리놓기 울랑국범천왕다리놓기 산받아 분부사됨 상단숙여 석살림</p>	<p>(1) 초감제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집안연유담음 군문열려 산받아 분부사됨 주잔넘김 새드림 도레둘러멤 신청래</p> <p>(2) 방광침 초방광쳐서지옥을새내움 추물공연 이방광쳐서지옥을새내움 막방광쳐서새내움 추물공연</p> <p>(3) 차사본풀이 공선가선 날과국섬김 집안연유담음 들여가는말미 혜심곡 차사본풀이 비넘 주잔넘김 산받아 분부사됨</p> <p>(4) 시왕도올리고석살림 도올림 상추권상 역가올림 산받아 분부사됨 상단숙여 소지사름</p> <p>(5) 액막이 날과국섬김 집안연유담음 스만이본풀이 액막음 산받아 분부사됨 비넘</p> <p>(6) 나까도전침 나까시리놀림 지장본풀이</p> <p>(7) 삼천군병질침 삼천군병지사범 산받아 분부사됨 실명질지사범 공시풀이 고리동반 품</p> <p>(8) 질침(마른질침)</p>	<p>(1) 초감제(10월 22일) 베포도업 날과국섬김 연유담음 새드림 도레둘러멤 주잔권잔 군문열려 산받음 분부사됨 당주산받음 주잔권잔 분부사됨</p> <p>(2) 추물공연(10월 23일) 공시풀이 향촉지권상 주잔권잔</p> <p>(3) 약밥약술 날과국섬김 연유담음 〈초공본풀이〉 약밥약술 어인타인 산받음</p> <p>(4) 공시풀이(10월 24일) 연유담음(공선가선) 주잔권잔 산받음 공시풀이</p> <p>(5) 당주길치기 좌우뚝길돌아봄 연월도로베기 은팽이 넛따비로파기 발로밟기 좁삼태로치우기 미레깃대로고르기 청싸리로쓸기 이슬다리놓기 청소새다리놓기 청나비다리놓기 당주다리놓기 울궁기 썰궁기 메우기 천안나화금정옥술발다리</p> <p>〈초공본풀이〉 울랑국범천왕다리 대제김소제김다리 삼동막설장고다리 김윤수 십방의 무계 구송 본맹두 신맹두 다리 신질 연질 바르게 합</p>

	<p>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집안연유뒤음  군문열림  사천지옥문 돌아봄  언월도로 베기  작대기로 치우기  언월도로 사리기  은따비로 파기  발로 고르기  좁삼태로 치우기  미레깃대로 고르기  비로 쓸기  이슬다리 놓기  마른다리 놓기  나비다리 놓기  영신(靈神)다리 놓기  차사(差使)다리 놓기  가위로 꿰기  울궁기 메우기  시루다리 놓기  홍마음다리 놓기  청너울다리 놓기  공작기다리 놓기  등진다리 놓기  즈부연다리 놓기  적베지 탐  혜심곡  차사길 돌아봄  열두문에 인정검  신청쾌 정테우  혼 부르고 원미권참  방 광침 열림  열두문 열림  침방(寢房)으로 메어듬  차사본풀이  (9) 메어듬  시왕질침  메어듬우  배풀이 하고 석살림</p>	<p>(6) 석살림곳(군옹덕담)  주잔권잔  금바랑옥바랑 탐  군옹덕담  군탐불소리  주잔권함  (7) 고분 명도(10월 25일)  고분연질 돌아봄  언월도로 베기  들굽낭 작대기로 치우기  은따비·뚝따비로 파기  동서로 치우기  미래깃대로 밀기  참비로 쓸기  청이슬 다리 놓기  청소새 백소새 다리 놓기  청나비 백나비 다리 놓기  불명주 강명주 다리 놓기  울궁기 실궁기 다리 놓기  소로소천금 다리 놓기  홍길레 홍마음 다리 놓기  &lt;초공본풀이&gt;  <b>금정옥술발 다리</b>  [금정옥술발 찾기]  <b>금봉채 다리</b>  [금봉채 찾기]  <b>개천문 다리</b>  [개천문 찾기]  <b>울랑국 범천왕, 대제김·소제  김, 삼동막이 살장고 다리</b>  [북·장고·징·설쇠 찾기]  <b>개상잔·개천문·시왕대반지 시  왕으로 도올림</b>  [신칼 찾기]  <b>홍포관대·조심띠·남비단·적쾌  자·금의옥대 기도 다리</b>  <b>남비단·적쾌자·금의오대 시왕  도올림</b>  [무복 찾기]  문점(問占)  세경신 자청비에 청하여 곱  은 멩두를 찾는 과정  쇠늘림곳</p>
--	---	---

64) 현용준(1980), 앞의 책, 178-182쪽.

65) 현용준(1980), 앞의 책, 206-314쪽.

66) 이 자료는 1986년 김윤수 심방집에서 있었던 신긋의 <당주맛이>를 문무병이 조사한 것을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길치기’는 맞이굿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맞이굿에서 공통적으로 실연되는 기본 내용이 있고, 구송되는 본풀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길치기’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 좌우뚝길 돌아봄: 신이 오실 길을 돌아본다.
- ② 언월도(偃月刀)로 베기: 길을 돌아보니 잡초가 무성하여, 칼로 잡초를 베어 넘긴다.
- ③ 작대기로 치우기: 베어 넘긴 잡초를 작대기로 치운다.
- ④ 은따비로 파기: 치우고 보니 그루터기가 우뚝투들해서 신들이 오기 어려울 것 같으므로 은따비로 그루터기를 판다.
- ⑤ 발로 고르기: 그루터기를 파고 보니 지면이 고르지 못하므로 발로 밟아 고른다.
- ⑥ 삼태기로 치우기: 길에 돌맹이가 굴러다녀 다니기가 곤란하므로 삼태기로 치운다.
- ⑦ 미래깃대로 고르기: 돌맹이를 치우고 보니 땅이 움푹움푹 패어져 고르지 못하니 미래깃대로 평평하게 민다.
- ⑧ 이슬다리 놓기: 길을 밀어내고 보니 먼지가 일어나 좋지 않으므로 마른다리를 놓자고 노래하고 술을 한 모금 뿌린다.
- ⑨ 마른다리 놓기: 물을 뿌리고 보니, 뿌린 데는 너무 많이 뿌려져 신이 오다가 미끄러워 자빠질 것 같으니 마른다리를 놓자고 하며 띠를 한 줌 뿌려 놓는다.
- ⑩ 나비다리 놓기: 띠를 뿌려 놓았더니 밟을 적마다 버석버석 소리가 나서 못쓰겠으니 나비다리도 놓으러 가자고 하며 종이조각을 뿌린다.
- ⑪ 무명다리 놓기: 긴 무명천을 깔아 놓는다.

---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문무병, 미발표 자료) <당주맞이>는 10월 22일-25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한다. <당주맞이> 전체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신굿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에 소제차(小祭次)의 옆에 날짜를 기록해 두었다.

- ⑫ 올궁기 메우기: 다리로 놓은 무명마다 올 구멍이 송송하여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쌀을 뿌려 그 구멍을 메운다.
- ⑬ 시루다리 놓기: 쌀을 뿌려 올구멍을 메웠더니 밟을 적마다 무드득 무드득 소리가 나서 좋지 못하므로 시루떡 조각을 뿌려 부드럽게 한다.

위의 과정들은 모두 신이 오는 길을 깨끗이 하는 행위들이다. ‘신이 오는 길’을 닦는다는 것은 신이 곳을 하는 현재의 시간과 공간으로 빨리 와서 기원하는 바를 성취시켜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여 과거의 신성 시간과 신성 공간을 오늘에 재현함으로써 원고적 질서를 회복하는 의미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

이제 맞이곳에서 본풀이가 구송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초공맞이>에서 <초공본풀이>는 ‘초공길침’ 제차에서 구송되고, <당주맞이>에서는 ‘약밥약술’, ‘당주길치기’, ‘고분 명도’ 제차에서 구송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초공맞이>를 중심으로 맞이곳에서 <초공본풀이>의 역할을 살피고, <당주맞이>에서 <초공본풀이>가 구송되는 부분은 다음장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것이다.

<초공맞이>의 ‘초공길침’은 처음에 길치기의 공통 단락인 ‘좌우뚝길 돌아봄→언월도로 베기→작대기로 치우기→은따비로 파기→밭로 고르기→좁삼태로 치우기→미래깃대로 고르기→이슬다리 놓기→마른다리 놓기→나비다리 놓기→서천강 연다리 놓기→올궁기 메우기→시루다리 놓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초공본풀이>의 구송이 시작되는데, 신화를 구송하는 도중에 관련 대목이 나오면 “그때에 ~했던 드리도 노래 가자”라고 노래하면서 길을 닦는 동작을 한다.

### [천황낙화다리 놓기]

금시리드리 노안보난 익은 음식(飮食) 드리(橋)라  
 귀신(鬼神)도 도라 생인[生人]도 도라 이도 못쓸듯 허구나.  
 초공님이 신수퍼사저 흐는디 어떤 드릴 노리아.  
 옛날옛적 천아임정국 대감님과

.....

마은으뜸 거심통췌가 절로 올라집데다

그 때에 거심통췌 올라난

천안낙화다리도 노래가자

(요령을 3번 흔들고 樂舞)

(안사인 口誦)<sup>67)</sup>

위의 인용문은 <초공본풀이> 중에서 임정국 대감 부부가 벼슬을 하러 가서 집을 비운 사이, 주자 대사가 찾아와 아기씨에게 시주를 받는 장면이다. 주자 대사가 아기씨에게 시주를 청하지만 굳게 잠긴 방에 갇혀 있는 신세라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주자대사가 그 문을 열어 주면 나와서 시주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아기씨가 그리 하겠다고 답한다. 그리고는 주자 대사가 ‘천안낙화 금정옥술밭’ 즉 요령을 흔들어 자물쇠를 연다.

심방은 여기까지의 내용을 구송한 다음, “그 때에 자물쇠를 열었던 천안낙화다리도 놓으러 가자”고 노래한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길 위에서 요령을 흔드는 동작을 3~4회 정도 반복한다. 그런 다음 <초공본풀이>의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서 신화를 구송하다가, 특정 대목이 나오면 신화 구송을 멈추고 앞에서처럼 “~다리를 놓으러 가자”는 노래를 부르고 다리를 놓는 장면을 실연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초공본풀이>의 구송이 끝날 때 까지, ①천안낙화다리 놓기→ ②청너울다리 놓기→ ③작도다리 놓기→ ④금부채다리 놓기→ ⑤칼선다리 놓기→ ⑥애손다리 놓기→ ⑦등진다리 놓기→ ⑧오른다리 놓기→ ⑨모욕상잔 다리놓기→ ⑩개천문다리 놓기→ ⑪울랑국범천왕다리 놓기의 과정을 이어간다.

맞이굿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하나는 본풀이를 ‘길치기’의 의례적 작업에서 노래 부른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본풀이를 노래해 가다가 그 내용을 의례 행위로 실연하거나 의례 행위의 신화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67) 현용준(1980), 앞의 책, 179쪽.

첫째, <초공맞이>의 ‘초공길침’에서 <초공본풀이>를 노래한 것은 길을 치워 닦는 의례 행위가 초공신을 맞아들이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신화적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초공본풀이>를 노래해 가다가 신화적(神話的) 사실(事實)을 현실에서 재연(再演)하는 것은 원고적(原古的) 질서(秩序)에 회귀(回歸)·갱신(更新)시키는 의미가 있다.<sup>68)</sup>

<당주맞이>에서는 ‘당주길치기’와 ‘약밥약술’, ‘어인타인’, ‘곱은 명도’에서 <초공본풀이>가 불러진다. ‘당주길치기’는 ‘초공길치기’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약밥약술’, ‘어인타인’, ‘곱은 명도’는 신긋의 <당주맞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내용의 의례이다. 이 제차들은 모두 연극에서 희곡을 대본으로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초공본풀이>를 굿본으로 하여 심방이 주인공이 되어 ‘약밥약술’, ‘어인타인’, ‘곱은 명도’의 장면을 실연한다. 따라서 <당주맞이>에서 <초공본풀이>를 창(唱)하거나 그 내용을 의례적(儀禮的) 행위로 연출(行爲演出)하는 것 또한 의례행위의 신화적 근거를 댄으로써 의례의 정당성을 보증하고, 신화적 사실을 현실에 재연하여 원고적 질서(秩序)에 회귀·갱신시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III-1절에서는 신긋의 의미와 <초공본풀이>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주도의 무속의례 중 가장 대표적인 굿인 <큰굿>에는 심방 집에서 하는 신긋과 사가(私家)에서 하는 ‘큰굿’이 있다. 이 중 심방 집에서 하는 신긋은 사가에서 하는 ‘큰굿’의 내용에다 <당주맞이>의 여러 제차가 삽입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굿으로, 제주도 굿의 모든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굿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긋이 갖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신입무가 <초공본풀이> 후반부 내용에 근거하여, ‘약밥약술’을 먹고, ‘어인타인’을 맞는 과정을 거쳐, 무법(巫法)·무구(巫具)·무악기(巫樂器)·무복(巫服)을 받아 굿을 할 수

---

68) 현용준(1992), 앞의 논문, 294쪽.

있는 심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입무 의례(入巫儀禮)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초공본풀이>는 신긋의 전체 연행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구송되는데, 신화의례에서 창(唱)되기도 하고, 영신의례(迎神儀禮)인 맞이곳에서 본풀이의 창(唱)과 함께 본풀이의 부분이 연기(演技)로 연출(演出)되기도 한다.

신화의례인 <초공본풀이> 제차에서는 심방이 제상(祭床) 앞에 앉아 장구를 치면서 신화 내용을 창하는데, 이는 신화의 주인공인 무조신(巫祖神)의 근본을 푸는 행위를 통해 신을 현실에 출현시키고, 이러한 의례가 신화에 근거한 정당한 것임을 보증하여, 신이 인간의 기원하는 바를 들어 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영신의례인 <당주맞이>에서는 ‘길치기’ 과정에서 <초공본풀이>를 창하는데, 신화를 구송해 나가다가 특정 대목이 나오면 신화창을 멈추고 길을 닦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약밥약술’, ‘어인타인’, ‘곱은 명도’와 관련된 대목에서는 신화의 내용을 심방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연극으로 보여 주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들 또한 신화의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례 행위가 신화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화적 사실을 현실에 재연하여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원고적 질서로 회귀시켜 신성성을 회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처럼 <초공본풀이>는 심방의 입무 의례인 신긋의 원리를 담고 있어서 그 근본이 될 뿐 아니라, 신화에 근거하여 의례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정당성과 신성성을 확보하게 하는 중요한 신화로서, 신긋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초공본풀이>에 근거한 심방의 입무 과정

심방의 입무 의례인 신굿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제차는 <당주맛이>라 할 수 있다. <당주맛이>는 무조신화 <초공본풀이>에 담겨 있는 신화 내용을 근거로, 삼시왕에서 인정을 받고, 굿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 심방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모의적인 연극을 통해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입무의 허가’와 ‘정통성 확보’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진행 내용과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 1) 입무의 허가

신굿은 평범한 사람이 신의 아이인 심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례로, 이 의례의 핵심은 심방들의 생사를 관장하는 삼시왕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주맛이> 제차 중에서도 ‘약밥약술’, ‘어인타인’, ‘예개마을굿’ 대목에서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는데, 이 과정들은 모두 <초공본풀이> 후반부의 신화 내용에 근거 한다. <초공본풀이>에서 최초의 심방이 겪었던 바를 신입무(新入巫)로 하여금 모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심방으로 인정받게 하는 ‘약밥약술’, ‘어인타인’, ‘예개마을굿’의 제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가. 약밥약술

약밥약술[藥飯藥酒]은 삼시왕에서 심방이 되는 징표로 내리는 약밥[藥飯]과 약술[藥酒]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먹는 밥과 술이 아니라 심방이 되기 위한 의식에서 약으로 먹는 밥과 술이다. 약밥약술을 삼시왕에서 타 먹었다는 것은 인간으로 죽어 심방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약밥약술[藥飯藥酒]’ 제차는 인간으로 죽어서 심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재생 의례(再生儀禮)라 할 수 있다. ‘약밥약술’의 진행 과정

은 다음과 같다.

<시왕맞이>가 끝나고 <당주맞이>가 시작되면, 마당에 삼시왕의 제상과 그 차사의 제상, 친척이나 선배 심방의 제상 등을 차리고, 제장(祭場)의 입구 쪽에는 ‘삼시왕도군문(三十王都軍門)<sup>69)</sup>’을 세워 그 앞에 신입무를 꿰어앉힌다. 이렇게 굿 준비가 끝나면 수심방이 제상(祭床) 앞에 서서, 신굿을 하는 연유를 고하고, 입무의 허가와 훌륭한 심방이 되도록 수호하여 무업을 번창시켜 달라는 내용을 기원한다. 이어서 <초공본풀이>를 구송하기 시작한다.

<초공본풀이> 후반부에서 유정승 따님이 심방이 되는 의식을 보면, 먼저 삼시왕에서 유정승 따님을 물맹지 전대로 걸어 올린 후, 그 정성을 저울로 달아 보아 백근이 차면 그 때서야 비로소 약밥약술[藥飯藥酒]을 내리고 어인타인(御印打印)을 맞춰서 무당서(巫堂書) 삼천 권과 무구와 무악기를 내려 주어 굿을 할 수 있게 한다. 신굿에서는 유정승 따님이 경험했던 이 모든 과정을 신입무(新入巫)를 주체로 하여 반복된다.

유정승 따님애기 수레법망에 잡현,  
삼시왕에 들어사난, 삼시왕에게 영(승)이 나길,  
먼정 올래 옆대흔 거 누계냐?  
나간 보난, 유정승 따님애기 먼정 올래 옆대흔난,  
옆대하여시난,  
경흐거들라근 물맹지 전대로 삼시왕에 걸려 올린 법이 있십네다.  
삼시왕에 물맹지 전대 타당  
전성 굿인 성은 김씨 마흔 혼술 전성 굿인 마흔 하나  
전성 굿인 성은 이씨 서른 두술  
삼시왕에서 물맹지 전대 하나 해주면  
올려올리라 흐는구나  
삼시왕더레- (樂舞)

69) 1m 정도의 대나무 두 개를 지면에 꽂아 세우고, 그 가지 끝의 이파리를 서로 엮어 묶은 뒤 백지로 만든 기메를 달아맨 것으로서, 심방의 수호신이 좌정해 있는 성역(聖域)의 출입구를 상징한다.

인용문은 유정승 따님이 굿법을 모른 채 굿을 하다가 시왕수레법망<sup>71)</sup>에 걸려 삼시왕에 불려가는 대목이다. 여기서 ‘시왕수레법망에 잡혔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는 죽었다는 것이다. 수심방은 이 대목의 신화 내용을 구송한 다음, 신입무와 대화를 나누며 신화 내용을 연기한다. “전생 굿은 성은 김씨 마흔한 살, 전생 굿은 성은 이씨 서른두 살, 삼시왕에서 물명지 전대 하나를 내어주면서 걸려 올리라 하는구나”라고 말한 다음, 꿰어얹아 있는 신입무의 목을 광목으로 걸어 제상 앞으로 끌어들인다. 이는 유정승 따님아가기가 삼시왕에 올라가 ‘물명지 전대로 걸려 올렸던 법’이 있기 때문에, 신입무인 김윤수와 이정자 부부를 물명주 전대로 삼시왕에 걸어 올리라는 것이다.

이어서 삼시왕 앞에 불려온 사연을 고하고, 약밥약술을 타먹는 과정이 진행된다.

성은 김씨 걸려 올렸수다.

성은 이씨 서른 두술도 삼시왕에- (樂舞)

삼시왕에서 걸려단 앞대흐였습네다.

일곱 살 나던 경오년

이른일곱 나던 해에도 적벽몰라 적벽몰라 죽도 살도 아니흐난에

그 해에 마흔 흐 술 (길게 울고)

양친 부모 떨어지여근 산 부모 빌어근 곳에 가고- (운다)

설른 두 술 아버님 입장갈림 일 풀령내부런 일천고생 다흐곡 (운다)

심방질을 해여근 부모은공 갓으쿠다 (운다)

살재흐연 이전성을 그르천

삼시왕에 매어근 설췌 뚜드령 영 배웁고,

70)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232쪽.

71) 시왕+수레법+망(網). 시왕(十王)은 ‘저승’이고, ‘수레법’은 사람을 죽여 멸망시키는 ‘수레멜 망악심꽃[滅亡惡心花]’으로 다스리는 법이며, 망(網)은 사로잡는 그물을 뜻한다. 그러므로 시왕수레법망에 잡혔다는 말은 저승법망에 잡혀,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인간들을 저승으로 잡아간다는 강림차사가 내려와 있다는 말이다.

북채 두두령 배웁고, 대영 두두령 배웁곡,  
전세옛말(前世說話) 배웁곡, 하세옛말(下世說話) 배웁곡,  
하강베포, 조광베포, 오늘 장성(長成)해연 보난,  
삼시왕에 초역례(初役禮) 올려근 상단궐 상신층에 올라오저  
삼시왕에서 영등(靈燈)을 나수웁고 삼시왕에서 영찌(靈紙)를 나수와  
말명드리 나습고, 젓드리 나수와주고  
어신 몸지(身紙) 나수웁고 어신 몸광 나수와  
동문밧 서문밧 외여름 내와줍서.  
멩두(明刀) 내와줍서.  
마흔 하나 서른 두 술 수덕(修德) 좋다 건이(權威) 좋다.  
화술(話術) 좋다 나수와 줍센하난  
 시왕실에 남의 즈식 은과낙새 은저울로 (북치라)  
 백근(百斤)장델 채와 ㄴ저  
 은과낙새 은저울 둘러반아 백근장델 채완보난,  
 백근이 못차는구나.  
 영흔 일 삼시왕에 약밥약술 타,  
약밥약술 에- 약밥약술 타다  
마흔 혼 술광 서른 두 술에 억만육회<sup>72)</sup>허자. (樂舞)

소 무: 뜯으라. 무사 하나만 험시, 자 부베간이 갈랑덜 자서.  
 먹으라. 입드레 영 대여그네. 아무 것도 안 해나서.  
 술 아니가 술. 아니 물이여 물. 세 번만 입드레 문형 먹으라.  
 이정자: (영영 운다. 구슬프게 운다.)

(이중춘 口誦)<sup>73)</sup>

먼저 수심방이 평탄하지 못했던 신입무(新入巫)의 인생사를 간략히 이야기하고 난 다음, 심방이 되려 하니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기원하다. 전생을 그려쳐 심방이 되어 북채와 대영 등의 악기 다루는 법과 전세(前世)와 하세(下世)의 옛말을 배워 굿을 하며 살고자 한다. 그래서 삼시왕

72) 약밥약술을 타 먹고 어인타인을 하는 의식을 말한다.

73)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232-234쪽.

에 초역례를 올려 상단꺾 상신증이 되고자 하니, 삼시왕에서 명도를 비롯 모든 무구들을 내어주시고, 곳을 하러 다닐 때에 마흔한 살과 서른두 살이 “수덕이 좋다, 권위가 좋다, 화술이 좋다”고 이름이 나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런 다음 “삼시왕에서 약밥약술을 타다가 마흔한 살과 서른두 살에게 먹여서 심방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자”고 말한 다음, 제상에 올렸던 물, 술, 기타 제물을 조금씩 떠서 섞은 것을 신입무에게 먹인다. 이 약밥약술은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

신입무가 무조신에게 불러가서 입무의 허가를 받고, 약밥약술을 받아 먹는 것은 수호신인 무조신의 영력을 체내에 들여 넣는 의미가 있다. 약밥과 약술이라는 것은 제상에 올렸던 술과 물과 제물을 섞어 놓은 것이지만, 이것은 수호신이 내려 준 약과 같은 음료인 것이다. 그러므로 수호신이 입무를 허락하면서 내려 준 음식에는 그 신의 영력(靈力)이 담겨 있으며, 그것을 마심으로써 수호신의 영력(靈力)을 몸에 붙이고 무술(巫術)의 신비한 위력을 간수하여 지니는 셈이 되는 것이다.<sup>74)</sup>

## 나. 어인타인

‘어인타인(御印打印)’은 무구(巫具)인 천문과 상잔을 신입무의 어깨에 올려놓아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한다. 천문과 상잔을 어깨에 올려놓는 것은 입무 허가의 표시로 어깨에 인감을 찍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천문과 상잔은 무조신(巫祖神)의 신체(神體)를 상징하는 명도(明刀)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조상(巫祖上)을 어깨에 올리는 행위는 무조신이 신입무가 심방이 되었음을 허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인타인’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약밥약술 타 맥이난, 무당서 삼천권(巫堂書三千卷)을 내어준다-

74) 현용준(1989), 앞의 책, 92-93쪽.

무당서 삼천권을 내여주며, 삼시왕에서 영(令)을 내길  
 태인(打印) 맞추랜 혼다. 태인 맞추랜 허는구나.  
 태인 양궁막음을 주면, (올며)  
 올려 심방질 해여근 궁에 즘을 자고, 궁에 신세를 하고,  
 나쁜 행동 아니 하고, (수심방 영영 운다)  
 나가 심방 뒤편 삼시왕에 역가영 많이 했수다.  
 거짓말을 어니허쿠덴허연,  
어인(御印) 마칩네다. 어인(御印) 마칩네다. (산을 받는다)  
삼동막음 줍네다.  
서른 두술도 어인(御印) 마칩네다.  
태인(打印) 마칩네다. (산받음)

(이중춘 口誦)<sup>75)</sup>

신입무가 약밥약술을 다 먹고 나면 수심방이 “어인(御印) 맞습니다, 타인(打印) 맞습니다”라고 노래하면서, 천문과 상잔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신입무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어인타인을 맞힌 다음에는 천문과 상잔을 어깨에서 내려 ‘삼시왕이 입무를 허가하는지, 훌륭한 심방이 될 것인지’를 점친 다음, 그 결과를 신입무에게 전달한다.

초역례 역가 올리저 흐십네다.  
천년 천보답입네다.  
초궁드리, 이궁드리, 삼궁드리, 시왕새드리 한다.  
양 어깨 ㄹ십을 번 역가, 풀찌거리 번 역가,  
천년 천보답 만년 만보답, 상백미 중백미 하백미  
동의 ㄹ득 대양 ㄹ득 내여주라, 낭푼 ㄹ득  
멩값 신 멩썰 분천검 돈 만냥 삼선향(三仙香) 둘러받아  
역개상이랑 삼시왕에 둘러매고 제 드립네다. (樂舞)  
 제 아뢰 역가를 둘러매난 역가가 죽듯 혼다.  
삼천기덕도 또 혼나 내여주라,

75)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234쪽.

궁전궁납도 내여주라 흐는구나 어이-  
멩두멩천 내여주라 백댓자[百餘尺] 아강베포도 내여주라,  
일곱자(七尺) 집두(集稻)찰리도 내여주라.  
조름춤치 호름춤치 멩두 내여주라,  
건이(權威) 나는구나 삼천기덕 일만제기 궁전궁납

이중춘: ㄴ새 ㄴ정오라.  
 소 무: ㄴ새 저기 났수다.  
 이중춘: 어디? ㄴ새 이디 아저오라.

궁정궁납 다 받았으니  
당베(堂布)도 내여주라, 절베(寺布)도 내여주라

이중춘: 굵으로 쫄르랜허라. 이 사람은 아니만 매겐. 각시만 매랜.  
 옷 입으레. 각시만? 흐크라. 심방이 뉘야니까 흐쨌다고.  
 이제 심방이 뉘었으니까 흐쨌다고. 이거 떠.  
 움직이는 보람이 이거지 뭐. 다 매어 줘시메 흐 번만 들앙 가  
 이? 야 이 관대(冠帶) 찌라.<sup>76)</sup>

(이중춘 口誦)<sup>77)</sup>

심방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 굿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 된다. 그리고는 뒤이어 두 부부가 굿을 하여 벌어들인 역가(役價)를 삼시왕 전에 올리는 대목이 이어진다. 이렇게 신의 덕으로 굿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신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를 하고 나면, 삼시왕에게 굿 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제구(祭具)들을 내어주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수심방이 “삼시왕이 무복도 내려 주라 한다, 설쇄도 내어 주라한다, 장구도 내어 주라 한다, 요령도 내어 주라 한다, 천문과 상잔도 내어 주

76) 심방이 되는 의식인 입무의례는 ‘당베·절베·아산신베’를 어깨에 매고 처음으로 감상기를 들고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에 베를 매지 않겠다는 것은 심방이 되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이 부분은 이중춘 심방이 농담하는 것이다.

77)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234-236쪽.

라 영이 내린다”는 식으로 모든 무구를 내어주는 노래를 하면, 소미들은 이 노래대로 무복이랑 무구를 하나씩 차례로 신입무에게 넘겨준다.

이제 어인타인을 맞고 입무 허가를 받은 신입무는 무구와 무복, 무악기 등 곳에 필요한 모든 제구를 갖추었기에 제대로 된 곳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다. 예개마을굿

약밥약술을 먹고 심방으로 다시 태어난 신입무는 삼시왕에서 내린 어인타인을 맞음으로써 곳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 된다. 삼시왕에서 내려 준 무복으로 갈아입은 신입무는 모든 악기와 무구를 가지고 소미들을 거느려 상단골 집에 가서 곳을 하는데, 이 때 심방이 되어 하는 최초의 곳을 ‘예개마을굿’이라 한다. 이는 <초공본풀이> 후반부의 유정승 따님아가가 자부장자집 단딸애기를 살리기 위해 곳을 했다는 신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예개마을굿’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약밥약술’과 ‘어인타인’의 의식을 마친 신입무에게 모든 무구가 내려지면, 수심방이 “이제부터 상단골집에 굿하러 가자”고 한다. 소미들은 보자기에 악기랑 무구를 싸 짊어지고 정장한 신입무의 뒤를 따라 제장을 나간다. 이웃집에서는 이미 방안에 제상을 차려 제물을 진설하고, 곳을 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다. 신입무와 소미들은 그 집에 가서 악기와 무구를 꺼내 놓는다. 소미가 악기를 치면 신입무는 가무(歌舞)로써 굿하는 모습을 간단히 벌인다. 잠시 후 일동은 굿이 끝났다고 하며 악기·무구·제물 등을 거두어 신입무의 집으로 돌아와 집안의 당주상 앞에 짐을 풀어놓고, 곳을 해 벌여 온 것이라고 하며 떡·쌀·광목·과실·닭고기·계란 등을 당주상에 올린다. 벌여 온 것을 무조신에게 올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 벌여 온 돈을 소미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을 연출한다.

이처럼 ‘예개마을굿’은 신입무로 하여금 굿의 준비에서부터 굿의 집행, 굿이 끝난 다음의 이윤 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의적으로 행하



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심방과 단골들 앞에서 이제 정식으로 굿을 할 수 있는 심방이 되었음을 알림으로써, 심방사회와 단골 사회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당주맞이> 제차 중에서 심방의 입무를 허가하는 의미를 가진 ‘약밥약술’, ‘어인타인’, ‘예개마을굿’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들은 첫째, 신입무가 삼시왕 즉 심방을 수호하는 무조신에게 불려가서 입무의 허가를 받고 신이 내려 주는 ‘약밥약주’를 받아먹는 것과 둘째, ‘어인타인을 찍는다’ 해서 무점구인 천문, 상잔을 어깨에 올려놓는 것, 셋째, 이로써 신으로부터 입무의 허가를 받고 당당한 심방이 되었으니 신자(信者)의 집에 가서 최초의 굿을 하는 것을 모의적으로 실연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약밥약술’, ‘어인타인’, ‘예개마을굿’의 과정은 무조신으로부터 무술의 영력(靈力)을 몸에 받아 넣어 다시 태어남의 과정을 거쳐 입무의 허가를 얻고, 최초의 무의(巫儀)를 실연해 보임으로써 그 자격과 수호의 확인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정통성 확보

<당주맞이>의 내용을 보면 ‘삼시왕의 신길을 발룬다, 당주의 신길을 발룬다, 명도의 길을 발룬다’ 등 길을 발루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길을 발룬다’는 의미는 ‘신의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으로, 삼시왕에서부터 시작되는 바른 계통을 따르고 올바른 굿법을 행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굿법의 전통은 무조 삼형제로부터 시작되어, 최초의 심방인 유씨 부인에게로 이어지고, 다시 제주도 심방들의 조상들에게로 이어져서, 신굿을 이끌어가는 수심방을 통해 신입무에게 닿게 된다. 신입무가 따르는 신의 길이 올바른 계통임을 확정하여 정통성을 확보하는 의식인 ‘당주길치기’, ‘곱은 명도’, ‘쇠놀림굿’, ‘당주다리 메어듬’의

제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가. 당주길치기

‘당주길치기’는 심방이 죽어서 가는 삼시왕의 길을 치워 닦아 심방의 영혼을 삼시왕으로 보내는 절차다. 그러므로 길치기의 과정에서 처음에 거칠고 험한 길을 닦아 가는 과정은 ‘시왕길치기’와 같으나, 그 이후의 과정은 <초공본풀이>에 입각하여 삼시왕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sup>78)</sup> 이 삼시왕의 길을 바르게 닦아 가는 과정은 본주 심방이 모시는 심방 조상들의 영혼을 저승 삼시왕으로 보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삼시왕이 오는 길을 닦아 당주의 신길을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다. ‘당주길치기’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당주길치기’는 일반적인 맞이곳의 길치기 과정과 같이 시작한다.<sup>79)</sup> 그런 다음 <초공본풀이>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삼시왕으로 가는 과정을 신화장과 연기를 통해 보여준다. 먼저 “삼시왕님이 들어가려 하는데, 그 길이 어찌되었는지 돌아보자”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돌아보는 시늉의 춤을 춘다. 삼시왕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당에 있는 제상(祭床)에 모셔진 삼시왕이 집안의 당주(堂主) 제상(祭床)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삼시왕이 지나갈 다리를 놓는 순서로 넘어간다.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긴 광목을 마당의 제상에서 집안의 당주 제상까지 깔아 놓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차에서는 긴 광목을 깔아 놓는데 그치지 않고 무조신화 <초공본풀이>의 내용을 여러 가지 다리를 놓는 장면으로 보여준다.

아기씨 죽을 사경(死境) 되니,

78) 문무병(1999), 앞의 논문, 106쪽.

79) ‘길치기’의 일반적 과정은 ‘좌우뚝길 돌아봄-언월도로 베기-은쟁이 낫따비로 파기-발로 밟기-좀삼태로 치우기-미레깃대로 고르기-청싸리로 쓸기-이슬다리 놓기-청소새다리 놓기-청나비다리 놓기-무명다리 놓기-올궁기 매우기-천안낙화금정옥술발 다리’ 순서로 진행된다.

천하공사 지하공사를 마치고 소곡소곡 내려오는 질이여.

소곡소곡 내려오는 질이여- (樂舞)

당주전에 발이 벌나 당주질도 발루라-

분장식 다리 놓고, 몸거울 해거울 다릴 놓아,

소곡소곡 속은정에 아방왕에 현신문안

.....

몸거울(體鏡)도 드리여 해거울(日鏡) 드리웨다 이 (징과 북을 친다)

관 객: 이거 뭐하는 겁니까?

김윤수: 저거 머리 빗는 거. 저건 이 잡는 거<sup>80</sup>.

제직제직 죄진정에 어명왕에 현신문안

아버지 내어준 금봉체 가지고 소곡소곡 황금산으로

금봉체 아산 소고소곡 황금산더레- (樂舞)

당주전드레 줄이 벌나, 당주질도 발루라-

어- 당주전드레 발이 벌나, 당주질도 발좌- (樂舞)

(이중춘 口誦)<sup>81</sup>)

위의 인용 부분은 아기씨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임정국 부부가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현신문안을 받는 장면이다. 심방은 <초공 본풀이>를 창하면서 중요한 대목(다리 다리마다)에서 본풀이의 주인공의 행동을 연기하는데 먼저 밖에서 춤이나 연극적인 행위를 하고난 뒤, “당주전드레 줄이 벌나 발이 벌나 당주질도 발좌-” 하며 집안으로 들어가 밖에서와 같은 춤과 행위를 실연한다.<sup>82</sup>) 한 대목(다리)이 끝나면 다음 대

80) 머리를 빗는 시늉, 이 잡는 시늉을 한다는 말이다. 아기씨가 부모님께 현신문안을 드리기에 문무장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81) 문무병, 미발표 자료.

82) <당주맛이>는 안에 당주 삼시왕을 모신 안공시가 있고, 밖에는 저승 삼시왕을 모신 밧공시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굿의 과정은 밖에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안에 모신 당주 삼시왕에게도 행하는 안과 밖 동시진행의 연행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좌우돛길도 돌아보자-”하고 밖에 차린 제상 앞에서 ‘좌우돛길을 돌아보는 춤’을 춘 후에, “당주 전에 줄이 벌나 발이 벌나 당주 삼시왕질도 발좌-”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안공시상이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 똑같은 연행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큰곳이나 신곳은 안팎에서 동일한 연

목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초공본풀이>의 신화 내용을 모두 실연한다.

젓부기 삼형제 과거하러 소곡소곡 올라간다.

젓부기 삼형제 첫째 과거 낙방이여

**당주전드레 발이 벌나 당주(삼시왕질)질이여 (樂舞)**

젓부기 삼형제 아버지 찾으러 황금산으로 소곡소곡 올라간다

아이고, 아방신디 좃앙 가져

아는 건 웨진 땅 뵈이 어시난

웨진 땅을 좃앙가젠 흥연

웨하르방 땅 신디 가젠 흥연

웨진 땅에 갓더니마는

베석자릴<sup>83)</sup> 내여준다

절 삼배(三拜)를 디려시난

설운 애기덜아, 아바님 어머님 좃이커들랑

황금산을아버지를 찾아 황금산을 좃앙 가사

느네 아방도 좃고 느네 어명도 좃넌 흥난

황금산더레 소곡소곡 올라간다- (樂舞)

**당주전드레 발이 벌나 당주삼시왕질도 발화- (樂舞)**

(이중춘 口誦)<sup>84)</sup>

위의 인용 부분에서는 ‘무조 삼형제가 과거에 낙방하고 내려오는 길, 외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길, 아버지를 찾아서 황금산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여기에서 ‘길’은 무조 삼형제가 삼시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고난의 여정이면서, 심방으로 팔자를 그르쳐 살아가야 할 신입무(新入巫)의 인생의 길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길은 단순히 공간적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당주길치기’에서 길을 치우는 행위를 중심으로 바라볼 때 길의 공간성이 강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간적 측면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

행을 동시진행으로 엮어가는 것이 특징적이다.

83) 배석(拜席) 자리. 절하는 자리.

84) 문무병, 미발표 자료.

있다. ‘당주길치기’가 삼형제가 삼시왕으로 좌정했던 신화의 시간과 곳을 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때, 이 길은 시간성을 가진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당주길치기’는 삼시왕과 신입무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부정을 제거하여 삼시왕과 신입무 사이의 계통이 잘 이어지게 함으로써 정통성을 획득하여 신입무가 올바른 신의 길을 따르게 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 나. 곱은 명도

‘곱은 명도’에서 ‘곱은’은 ‘숨은’의 뜻이고, ‘명도(明刀)’는 무조신(巫祖神)의 신체를 상징하는 무점구(巫占具)이므로, ‘곱은 명도’는 ‘숨은 명도’라는 뜻이 된다. 이 제차는 당주(堂主) 심방의 명도(明刀)를 당클(祭棚)<sup>85)</sup> 속에 숨겨 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찾아낸 다음, 명도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의식으로 일종의 ‘신물(神物) 찾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차는 아주 복잡하고도 길게 진행되는 데 이를 크게 명도 내력 밝히기, 문점(問占) 하기, 세경신에 청하여 명도 찾기의 세 단락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 나-1. 명도 내력 밝히기

‘명도 내력 밝히기’ 부분은 곳을 하는 데 사용되는 무구(巫具), 무악기(巫樂器), 무복(巫服)의 내력을 <초공본풀이>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명도의 길을 바르게 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 명도 중 하나를 당클에 숨기는 데, 실제 곳의 내용에서는 명도를 도둑맞은 것으로 이야기 된

---

85) 당클은 곳을 하는 방의 마루 위쪽에 사방으로 달아맨 제봉(祭棚)을 말한다. 곳의 규모에 따라 당클의 수가 달라지는 데, 4개의 당클을 매는 경우 ‘4당클곳’이라 하고, 2-3개의 당클을 매는 경우는 ‘중당클곳’이라 한다. 4당클은 각각 ‘삼천천체석궁당클(삼시왕당클)·열두시왕당클·문진본향당클·마을영신당클’이다.

다. 그리고 잃어버린 명도를 찾아다니는 심방과 곳에 참여한 소미들이 수수께끼 문답을 통해 잃어버린 명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낸 후, 명도를 잃어버렸으니 새로 하나를 만들자고 하면서 해학적인 내용으로 명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①<초공본풀이> 구송→ ②길치기→ ③명도 숨기기→ ④명도 탐색 수수께끼→ ⑤명도 확인→ ⑥새로운 명도 만들기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은 순서로 한 가지 명도의 내력을 밝히고 나면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 명도의 내력을 밝히는 과정이 반복되는 데, ‘요령→북채→천문→무악기→신칼→무복’의 순서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금정옥술발’의 내력을 밝히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정옥술발’은 무구(巫具)의 하나인 ‘요령(搖鈴)’<sup>86)</sup>을 말한다. <초공본풀이>를 보면, 아기씨에게 시주를 받아 오겠다고 삼천선비와 내기를 한 주자대사가 아기씨의 집으로 내려 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는 문(門)을 열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때 문을 여는 데 사용했던 물건이 바로 ‘금정옥술발’ 즉 요령이었다. 이 대목에서는 먼저 <초공본풀이> 중에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까지를 구송하여 모든 곳들이 신화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다.

**[초공본풀이: 금정옥술발 다리]**

상것임 주석통쇠 절로생강 열어진다.

에에- 내려 상 임정국의 대감님이 집의들어 상

먼정 군문 밧기 소송은 뵈난 정하님이 나사고

어느 절간 대습네까

황금산의 주접선성입네다 하니

.....

이문 올민 시원제 내여줄 수 있십네까.

어서 걸랑 기영 흐라

---

86) 제주도의 곳에서 사용되는 무구(巫具)인 요령은 손에 들고 흔들어 소리를 내는 종과 같은 것이다. 놋쇠로 만든 종모양의 모형 가운데에 쇠붙이를 달아서 소리가 나게 만든 것으로, 그 끝에 오색천 조각을 달아서 손잡이로 사용하고 있다.

가까이 들렝 혼발 두발 들어가명

하늘옥황 도성문 올려업던 어- 금정옥술발 (樂舞)

당주 삼시왕에 줄이 벌나, 발이 벌나 연앙당주 삼시왕질도 발좌- (樂舞)

금정옥술발 천안낙화까지 흠치 시왕더레 도올리자-(樂舞)

(양창보 口誦)<sup>87)</sup>

<초공본풀이>를 구송해 나가다가 관련 대목이 되면 “당주 삼시왕에 줄이 벌나 발이 벌나 연앙당주 삼시왕질도 발좌-”라는 관용구를 노래하면서 간단하게 길치는 과정을 연기한다. 그리고 “금정옥술발 천안낙화까지 모두 시왕에 도올리자-”라고 창하고는, 요령을 시왕당클에 숨긴다. 이때 말로는 삼시왕에 무구를 올린다고 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면 무구를 도둑맞아 잃어버린 것으로 관념하고 있다. 뒤이어 잃어버린 무구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수수께끼 문답(問答)이 이어진다.

[명도 탐색 수수께끼: 금정옥술발]

이중춘: 무신 거 잃러먹영 멩격서

양창보: 흥내지 못흐크라. 심방은 감장돌아부난<sup>88)</sup> 몰르곡.

윤이 안진 어른들이나.

이중춘: 고싸(좁 전에) 무신 거 심은 거 닥안게

양창보: 무신 거, 틀리긴 틀려서.

이중춘: 동글랑흔 거, 가운데 무시거 신거

양창보: 가운데 무시 거 셔? 스나이사 다 십주(사내야 다 있지요)

동그랑흔거.

이중춘: 주랑주랑 무신거 들린 거. 영흔 거. 고분멩두엔도 흐곡.

양창보: 뿃고 뿃고.

소 미: 흔들믄 소리 나는 거.

오방근: 돌방울 닥은 거?

양창보: 흐끔 비슷도 해감져. 이제랑 소믄 곶아븍서.

87)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275쪽.

88) 정신없이 들며 춤을 추니.

소 미: 요거라 요거.

양창보: 아이구 요거여. 아이구 요거여.<sup>89)</sup>

명도를 잃어버리고 헤매 다니는 심방에게 소미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라고 물으면, 심방은 “말로 흉내 내기가 어렵다”고 대답한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수수께끼 문답을 통해 잃어버린 명도의 정체가 밝혀지게 된다. 소미들이 “그것이 동그랗게 생긴 것이냐, 흔들면 소리가 나느냐, 말방울 닮은 것이냐” 등의 질문을 통해 요령의 모양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도중, 소미 중 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냐”면서 요령을 보여준다.<sup>90)</sup> 그러면 심방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다”면서 기뻐한다.

이러한 명도 탐색 과정은 해학적으로 진행된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소미가 잃어버린 물건이 “동그랗게 생기고 가운데 있는 무엇하고 닮은 것이냐”고 묻자, 심방은 “가운데 있는 거 무엇을 말하느냐”고 반문한 다음 소미의 말을 이해하고는 “사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그것하고 닮았다”고 답한다. ‘곱은 명도’는 일종의 신물 찾기로 신물(神物)의 정체를 수수께끼 문답을 통해 해학적인 연기 과정으로 풀어내는 제차라 할 수 있다.

#### [명도 확인: 금정옥술밭]

양창보: 아이구 요거여. 아이구 요거여.

오방근: 모시라(때려라) 모시라.<sup>91)</sup>

일 동: (웃음) 모시라.

오방근: 아- 두드려봅서(때려버려요). (웃음)

일 동: 누게 짓고 누게 짓고.

이중춘: 도둑은 저기 있구나게.<sup>92)</sup>

89)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275-277쪽.

90) 명도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이냐”면서 잃어버린 명도의 이름을 말하기도 한다.

91) 모시다. 때리다 혹은 부수다.



잃어버린 명도가 요령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면, 심방은 그 답을 알아맞힌 소미를 마구 때린다. 이 대목에서도 신물(神物)의 형태를 수수께끼 문답으로 풀어가다가 답을 맞히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척 하면서 마구 때리는 해학성(諧謔性)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에 “도둑은 저기 있구나게”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명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둑맞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명도 만들기: 금정옥술밭]

양창보: 거 우리 틈 내영 새로 출령(새로 만들어서) 해보자.

이중춘: 어, 맨들앙.

양창보: 정말 존거 있주게. 바당의 강.

우선 거 퀴<sup>93</sup> 너미 크고, 가지 돌아불고,

숨<sup>94</sup> 좃수 숨.

이중춘: 꼭 맞다. 꼭 맞아.

양창보: 꼭 맞아? 그거 허영. 반착 싹 벌령(쪼개어).

으물랑 오들룩하게 해가그네. 호르룩 쌍 먹고

그 꺾데기 하나해영. 바당의 거 감퇴. 감퇴 굴이 버작흔 거.

소섬가든 녀메역(앞이 넓은 미역)을 해당 하나.

그거해당 앞에 들앙. 앞의 도랑 흔 거(앞의 동그란 거).

동글동글흔 걸랑. 어디 거 아이들 거.

웨뭇이나 해여그네. 꼬부령 그디 강 영 들앙.

왕글왕글 흥글당(흔들다가). 거 짐택이히고 이택이 안티강주영,

아니 받거들랑. 막 양작해가서들랑(울부짖어 가거든)

즉박 곱은 손톱으로 복하게 허위어당<sup>95</sup> 마브름더레<sup>96</sup>)

92)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277쪽.

93) 퀴는. 성계는.

94) ‘숨’은 성계의 일종인데, 가시가 아주 작다.

95) (손톱)으로 박박 뜯어 버리면, 박박 활귀어 버리면.

96)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277-278쪽.

위의 인용문은 명도를 새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요령을 도둑맞았으니 새로운 것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자고 의논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요령을 만드는 방법은 실제 요령을 만드는 과정과는 무관하며, 엉뚱한 소재와 방법을 통해 해학적인 내용으로 진행된다.

먼저 심방이 요령 만들기에 좋은 물건이 있다고 말한다. 바다에 가면 ‘크’가 있는 데 이것은 크기도 크고 가시가 있어서 적당하지 않고, ‘숨’이라는 것이 요령을 만들기에 아주 알맞다고 한다. 그것을 하나 잡아다가 쪼개서 알맹이는 이리저리하여 빼내어 호르륵 맛있게 먹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바다에 있는 감태를 가져다 그 앞에 달라고 한다. 그리고 종모양으로 생긴 모형 안에 붙어 있으며, 소리를 나게 하는 물건인 동글동글한 것은 남자아이들의 성기에 붙어 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쇠뿔을 구부려서 달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요령이 다 만들어진다.

이어서 심방은 요령을 흔들다가 ‘짐택이하고 이택이’ 즉 당주인 김윤수와 이정자 심방에게 주어서 받지 않으면, 바가지 같은 손톱으로 땅을 박박 긁어 파서 그것을 묻어 두라고 한다. 이는 심방 사회의 습속(習俗)을 반영하고 있다. 제주도 심방 사회에서 명도(明刀)는 조상(祖上)이라 불리며, 무조의 신체를 상징하는 신물(神物)이다. 심방이 죽거나 무업(巫業)을 그만둘 경우, 명도는 다른 심방에게 물려주거나 땅에 묻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당주가 요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신물을 계승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되며, 그 결과 임자 없는 명도인 요령을 땅에 묻으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하여 명도 찾기 중에서 ‘금정옥술발’의 과정이 모두 끝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큰 북채인 ‘금봉채’, 무점구(巫占具)인 ‘개천문(開天門)’, 무악기(巫樂器)인 ‘북(울랑국범천왕, 소제김, 대제김)·장구(삼동막이살장고)·징·설쇠’, 신칼인 ‘시왕대반지’, 무복(巫服)인 ‘홍포관대 조심띠 남비단 적쾌자 금의옥대’의 내력 밝히기가 이어진다. 이 각각의 과정들은 모두 ①<초공본풀이> 구송→②길치기→③명도 숨기기→④명도 탐색 수수께끼→⑤명도 확인→⑥새로운 명도 만들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제 심방은 명도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곳에 불려가서도 제대로 된 곳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 잃어버린 명도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 보기로 한다.

이중춘: 겨난 안 두르외 누엇건 너 이놈의 즈속(子息) 어디 누엇느냐.  
하이까라 머리 심엉 그냥,  
스방(四方)디<sup>97)</sup> 곳을 다 돌아<sup>98)</sup> 줌은 자크라?

중춘처: 아이구 나사 뭐

양창보: 요게 득 역시를 잘 흐주게.

이중춘: 요거?

양창보: 응. 초경(初更) 득 이경(二更) 득이 잘 울어.

이중춘: 흐 번 울어 봐.

양창보: 나 넣 자건 일화 이? 암톡 울영은 날 안 샌다게

이중춘: 꼬꼬곡- 아따, 그 장독 소리 큼직하다 (설췌 땡땡)

이중춘: 꼭꼬택

양창보: 아이구, 뵘암시냐?

이중춘: 일어납서.<sup>99)</sup>

소미가 마루의 사방을 곳을 하듯이 돌아다니니 소란스러워서 어디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고 농담을 한다. 심방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할 것이니 ‘닭 역시’를 잘해 달라고 부탁하면, 소미가 실제로 닭 우는 소리를 흉내 내면서 농담을 주고받는다. 수심방이 제상(祭床) 앞에 엎드려 잠자는 시늉을 한다. 잠시 후 ‘꼭꼬택’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소미가 심방을 깨운다.

양창보: 무신말고?

오방근: 일어납서게.

---

97) 마루에서.

98) 곳을 돈다. 춤을 추며 곳을 하듯이 광질을 한다.

99)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297-298쪽.

양창보: 안 출려시냐?  
 이중춘: 안 출렸수다게. 시간 다 뵈수다게.  
 양창보: 출럼시냐.  
 이중춘: 예.  
 양창보: 방댕이 태우라 눈벨르게<sup>100</sup>. 세숫물 떠오라 이거.  
 이중춘: 정신 바짝 출려.  
 양창보: 세숫물 떠오라.  
 오방근: 이리 저리 벌리고 저리 이리 벌리라 이?  
           너희들 제청을 벌일 줄 아느냐?  
           이리 저리 벌이고 저리 이리 벌이라 이?  
 양창보: 수건은 왜? 아사오라 보저. 송낙 드라.  
           야, 이거 장귀(杖鼓) 차지라. 천아(天下)올대 이리 내.  
 이중춘: 어따, 큰소리네 이.  
 양창보: 뉘엔 곧느니 초감제엔?  
 이중춘: 초감제?  
 양창보: 천지(天地)가- 혼- 저- 자물갯 어른은,  
           굿허제민 천지간(天地間) 혼합(混合)으로 제(祭)이르자.  
           (장구치는 시늬) 쿵닥 쿵,  
           (우는 시늬) 아이구 아이구 아구  
           (우는 시늬) 아이구 아이구.  
 이중춘: 울어봐도 누게 무신. 벨수가 어서.  
 생소처: 잃러비연.  
 양창보: 이노릇 어떻허코 이젠 아무 것도 어선 편쩍 어시난.  
 양창보: 읍서 나영 어디 강, 문점(問占)이나 해보게.<sup>101)</sup>

소미가 와서 어서 일어나라고 하자, 심방이 무슨 말이나고 묻는다. 소미가 굿하러 가야하니 어서 일어나라고 말한다. 굿 준비가 다 되었는지 묻고 난 다음에는, ‘세숫물을 떠오라, 송낙을 달라, 장구를 찾아라, 천하

100) 장난감. 여기서는 화투를 말한다. 화투판에서 술 취한 심방이 아침에 일어나 굿을 하는 모양을 흉내 내고 있다.

101)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298-301쪽.

울대를 가져오라'면서 서둘러 준비를 한다. 그런 다음 <초감제>를 시작하는 데 장구가 없어 '쿵닥쿵'하면서 장구 치는 소리를 흉내 내던 도중, "아이구 아이구"하며 울기 시작한다. "이젠 아무 것도 없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흐느끼다가 명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쳐 보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하여 명도 내력 밝히기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문점하기 부분으로 넘어간다.

## 나-2. 문점(問占) 하기

'문점 하기'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잃어버린 명도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아내는 부분으로, ①점쟁이 내력 소개→ ②문점 하러 온 사연→ ③문점 결과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점쟁이가 어떻게 하여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의 내력을 소개한 다음 그 결과를 알려주는데, "잃어버린 명도가 세경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된다.

### [점쟁이 내력 소개]

이중춘: 스정(事情)을 해사. 점(占)을 해사주게.

문점(問占)을 해사 하여.

양창보: 어디 강.

이중춘: 저 남문통 이? 저 집덕(金宅)이엔 혼 사람이 이신디 그 사람이

양창보: 상통천문(上通天文) 해연

이중춘: 상통천문(上通天文)호고 하달지리(下達地理)호고,  
이 마흔네 슬부터 나샀젠허대.

양창보: 누게가?

이중춘: 마흔네 슬부터 나샀젠.

양창보: 나샀젠? 워낙 춤,

이중춘: 성편(成家便)엇고, 웨편(外家便) 어신디.

양창보: 오.

이중춘: 성편도 엇고 웨편도 어신디.

그 아버지 책불조상<sup>102)</sup>이 워낙 춤 영기(靈氣)가 이신 조상이라노난.

그 조상으로 나산 지, 마흔너 술에 나쌌젠.

양창보: 에이고,

이중춘: 점은 잘 흔댄 허여.<sup>103)</sup>

위의 내용은 심방이 문점 하러 가려 하나 어느 집이 잘 맞추는 집인지 알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한 점쟁이를 소개받는 대목이다. 소미 한 사람이 ‘남문통에 있는 김씨집’에 한 사람이 있다고 소개한다. 이어서 심방이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점치는 집인지를 알 수 있는지’를 묻고, 소미가 그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사람이 오면 시끄럽게 짖어대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 다음에 점쟁이의 내력이 소개된다. 그 점쟁이는 마흔 네 살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하고 ‘하달지리(下達地理)’ 하게 되었고, 성편[親家] 쪽으로도 외편[外家] 쪽으로도 이 일을 한 사람이 없지만 그 아버지의 책불조상이 워낙 영기(靈氣)가 있는 조상이어서 그 조상의 덕으로 마흔 네 살부터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 [문점하러 온 사연]

양창보: 아이구, 일안 어룬<sup>104)</sup> 이수강

이중춘: 나 여기 이수다.

양창보: 일안 어룬 이수가.

생소처: 가운데 아갓저.

양창보: 아잔. 아이구, 스실(事實)은 내가 연령은 스물 스물 삼스물.

갑진 으든 춤 열이고.

102) 책불일월조상. 일족(一族) 또는 일가(一家)를 수호하는 조상 중에, 경(經)을 읽거나 책을 읽어 문점(問占)하여 주거나 천문지리에 밝았던 조상을 나중에 신으로 모시게 되면, 이 조상신을 ‘책불일월’이라 한다.

103)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301-302쪽.

104) 일안어룬. 심방이나 점쟁이를 칭하는 말로, ‘일을 아는 어른’의 뜻이라고 한다.

수심방: 춤 열이고.

양창보: 나의 이름은 해뚜룽<sup>105)</sup> 씨(氏)고,

수심방: 해뚜룽 씨고

양창보: 경해연. 해뚜룽씨고 경해연, 금년은 병인년(丙寅年).

수심방: 병인년.

양창보: 신구월 들 열흘을 날부떠 오늘의 스무나흘 날,  
스무사흘 날까지 곳을 혁명, 잃러블명 잃러블명.

일천기덕(一千器德) 삼만제기(三萬祭器)

궁전궁납(宮殿宮樂)을 잃러부런.

그자 아는대로 그자 문점(問占) 혁레 와시난,

그자 점괘(占卦) 나는대로 곶아줍서 이런 답답흔 일이 어덧수가

수심방: 어디 십네까?(어디에 있습니까?)

생소처: 그렇다고 무신 지 답답했지. 나 답답해여.

이중춘: 아이구, (웃음) 요놈의 점쟁이.

양창보: 계난 나가 답답하니까 점쟁이 닳아진 거 좃이레 왔주.<sup>106)</sup>

심방은 점쟁이에게 자기의 사주를 이야기하고, 점을 보러 온 사연을 말한다. 그 사연은 이러하다. 신구월 열하루부터 스물 나흘 날까지 곳을 하는 도중에 일천기덕(一千器德) 삼만제기(三萬祭器) 궁전궁납(宮殿宮樂)을 모두 잃어버려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점을 보러 왔으니, 점괘(占卦)가 나오는 대로 알려달라는 것이다. 점쟁이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점치는 흥내를 낸다. 옆에서 소미가 끼어들어 “잃어버린 사람이 답답하지, 자기는 답답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심방에게 장난을 친다.

### [문점 결과(1)]

수심방: 공들엇구나.

양창보: 영?

105) 해뚜룽하다. 희멸절다.

106)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302-303쪽.

수심방: 공들어서. 겨문 여 보저 갑자을축궁녀화척<sup>107)</sup> 하니.  
 양창보: 하니?  
 수심방: 하니, 거 어디 저 세경땅으로 해네 문전(門前)드레나,  
문전으로 세경드레나.  
 양창보: 문전으로 세경드레나. 비슷하게 가긴 잡저.  
처음부터 곱읍서 문전이나 세경이나.  
 수심방: 문전이나 세경이나? 세경땅에 걸음도 걷고  
 문전으로 들어오라실꺼라 아맹해도.  
 양창보: 경헌디, 나갈 때?  
 수심방: 나갈 땐, 문전으로 나가고.  
 양창보: 아이구, 요거 진짜 점쟁인 점쟁이로구나.  
 이중춘: 잘 알았져 이.  
 양창보: 아이고 나 잘 알았구나.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일 동: (웃음)  
 양창보: 아이고 어머니, 잘 알았져 잘 알았져.<sup>108)</sup>

수심방이 주문(呪文)을 외우고 점을 친 다음, 그 결과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점쟁이가 “잃어버린 물건이 세경 땅으로 해서 문전으로나, 문전으로 해서 세경 땅에 있다”고 말하자, 심방은 “비슷하게 가긴 가고 있는데 문전인지 세경인지 분명치 않으니 처음부터 다시 말해보라”고 한다. 그러자 점쟁이가 다시 “도둑이 들어올 때에 세경 땅에서 걸음을 걸기도 하지만 집안으로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문전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문전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 한다. 심방은 “이 점쟁이가 진짜 점쟁이구나”라고 말하고는 첫 번째 집에서의 문점(問占)을 마친다.

첫 번째 집에서 나온 다음 한군데 더 둘러보아야겠다고 하자, 소미가 끼어들어 한군데 정도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자 심방은 세군데 째 둘러보면 충분하겠냐고 묻는다. 소미들이 유명한 점쟁이를 소개하는 대목

107) 주문(呪文).

108)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303-304쪽.



이 이어진다. 행원에 가면 이판관이 있는데 그가 유명하다고 말한다. 다른 소미가 일본에서 온 김씨 댁에 가보라고 한다. 심방은 일본에서도 점 잘하기로 유명한 심방에게 가기로 결정한다.

[문점 결과(2)]

양창보: 아이고 문전으로 나가는 건 틀린 것 다투우다.

아이고 저던 가난 문전으로 나갔젠 골으난.

계민 흐끔 서누룩호고(시원하게) 나가민 어디 갈 디 엇수게.

일본심방: 북방으로

양창보: 북방으로 가민 어디강 묻음네까

일본심방: 아무디 강 물어도.

양창보: 시왕당클은 곱흐는 집이주게.

일본심방: 아, 소까.

양창보: 도둑질 행 나가민,

일본심방: 베껏딜로 나가부러사.

양창보: 계난 땅에 강 묻음뻐기(묻을 수 밖에) 어디 강 흘 디가 어십주게.

일본심방: 흘디가 웃다.

양창보: 세경이엔 곱아사 흐주게 .

일본심방: 세경땅에 간 묻엇수다.<sup>109)</sup>

점쟁이 집에 도착한 심방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명도를 잃어버린 사연을 이야기하고 점괘를 알려달라고 청한다. 점쟁이가 아마도 도둑은 문전으로 나가는 것이니 문전에 알아보라고 하자, 심방이 그 점괘는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한다. 저기 다른 집에서 문전으로 나갔다는 점괘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문전에서 나온 다음에는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점쟁이가 다시 문전에서 나온 도둑이 북방으로 갔다고 말하자, 심방은 북방으로 가면 어디다가 그것을 물어 두냐고 묻는다. 아무 곳이나 그냥

---

109)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307-308쪽.

묻어 둔다고 답하는 점쟁이에게 심방이 ‘시왕당클’은 굿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데, 이 말의 뜻은 굿하는 집에 모셔 둔 명도들은 도둑질해서 나간 다 하더라도 아무 곳이나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의미가 된다. 이런 문답을 주고받다가 결국은 잃어버린 명도가 세경 땅에 묻혀있으니, 세경에 가서 물어나 보자는 결론이 난다.

문점의 결과 잃어버린 명도는 세경 땅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명도가 농경신(農耕神)인 자청비가 사는 땅에 묻혀 있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제주도 무속 사회에서 무구(巫具)인 명도는 세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를 물려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땅에 묻어 둔다. 심방 사회에서 신물(神物)인 명도는 실제로 세습되는 것이지만 입무 의례인 신굿에서는 땅에 묻혀 있는 새로운 신물을 찾아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묻혀 있는 신물을 찾기 위해서는 대지를 관장하는 신인 농경신 자청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 나-3. 세경신에 청하여 명도 찾기

명도를 찾기 위해 세경 땅으로 간 심방은 세경신[農耕神] 자청비를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 한다. 심방의 사연을 다 들은 세경신은 명도가 세경 땅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삼시왕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내어줄 수도 없다고 한다. 명도는 신물(神物)이기 때문에 삼시왕의 명령이 있는 후에야 내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무조신은 세경의 오빠로 되어 있는데, 자신이 직접 오빠에게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어머니가 부탁을 하면 들어줄지도 모르니 어머니에게 가서 부탁 해 보기로 한다. 자청비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아들인 삼시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명도 내어주기를 청한다. 삼시왕은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명도 내어주기를 허가하는 내용의 답장

을 보낸다. 삼시왕의 허가를 받고 명도를 내어주게 되면 ‘곱은 명도’의 모든 과정이 끝난다.

‘세경신에 청하여 명도 찾기’ 대목은 ①세경신에게 사연을 고함→ ②세경신이 어머니에게 무조신의 허가받기를 청함→ ③세경신의 어머니가 무조신에게 명도 내어주기를 청함→ ④무조신의 허가→ ⑤명도 찾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 [세경 땅에 온 사연]

양창보: 문점(問占)헛엇저.

경흐난 문전 세경땅에 파묻어시난 세경에 가자.

가젠흐른 굻짜거리명 강 누님<sup>110</sup> 나오랏수다.

‘이 즈석 이거 아침 일찍 일어나기도 전의

이거 무사 새벽부터 놀러들언디?’

‘아이구 누님이파.’

‘저 놈의 즈식은 향시 봐가믄 말만 조은 디.

저 놈의 즈식안티 웃지랑 말젠 기냥 애를 쓰명이라도.

아니보민 보구정헛고, 보믄 이 갈리고’

오방근: 안 보민 막 보지그림곡<sup>111</sup>)

양창보: ‘이 놈의 즈숙. 어떻게 오란다.’

은 말을 확 굴으라보저 일어나기도 탁 싹프다.

‘아이구 그런 게 아니라 벵인년 구월 열흐를날 아침 열시서부터

저 신촌 동카름 김윤수네 집 이정자네 집의서 굻해연 오늘날까지.

오늘까지 굻을 헛단 일러분게 몬딱 그자 일천기덕(一千器德)

삼만제기(三萬祭器) 궁전궁납(宮殿宮樂)을 일러부런.

아이구 나가도 문전에 알고 들어와도 문전에 안덴흐연 문전에 가난,

세경땅에도 가랜흐연, 세경땅에 오난 아이고 누님신디 오랏수다.’

‘이놈의 즈숙은 질질질질 땡기명 석상에 일러떡영 땡경.’<sup>112</sup>)

110) 농경신(農耕神) 자칭비를 말한다. 심방은 미모(美貌)의 농경신 자칭비와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111) 보지그림다. 남제주군 대정 지역에서 ‘보고싶다’라는 말을 ‘보지그림다’고 말한다. 그런데 ‘보지(女性的 性器) 그림다’로 오해 받기 쉽기 때문에 장난으로 말한 것이다.

명도를 찾으러 세경 땅에 간 심방은 자청비를 보고 누님이라 부른다. 그러자 자청비가 새벽부터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묻는다. 병인년 구월 열하루 아침 열시부터 신촌 동카름 김윤수네 집 이정자네 집에서 오늘까지 곳을 하는 중에, 일천기덕(一千器德) 삼만제기(三萬祭器) 궁전궁납(宮殿宮樂)을 모두 잃어버려서 문점을 하였더니, “나가도 문전에 알고 들어와도 문전에 안다” 하여 문전에 갔다. 그런데 다시 세경 땅으로 가라고 하여 세경 땅으로 오다보니 누님이 있는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세경신은 “이 놈의 자식은 다니면서 질질질 흘리고 다닌다”며 편잔을 준다.

#### [명령 받아낼 방법 모색]

이중춘: 보지 헤쓴 아기들 건서(看守) 못흐듯이

양창보: 아이고, 게매 말이주.

게나제나 지레만 크곡 흘쭉흐곡 심토매기나 섬직 흐주마는.

그자 땡기멍 잃어부렁 질질질질. (일본심방에게) 어디가지맙서게.

잃어부런 시난, 게난 어떻허믄 좋느니.

아이구 게매 양 아장 꼼꼼히 생각흐영

세경땅에 강 파묻긴 파묻어실꺼여마는.

거 어떻 멩령이 어시믄 내려주지도 못흐곡. 어떻허믄 좋느니.

경흐나 보저. 너 ㄱ만이 아자시라. 아자시민 나 생각해 봐그네 양.

어떻안티 강 나 굴으민 흐변이사 아니 들어주느냐.

겜으로 아니 들어 주느냐. 아이고 게매 이번만 양.<sup>113)</sup>

사연을 다 들은 자청비는 세경 땅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명령이 없으면 내려주지도 못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걱정한다. 여기에서 어머니의 명령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심방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삼시왕의 명령을 의미한다. 오빠인 삼시왕의 명령을 얻기 위해

112)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308쪽.

113)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309쪽.

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 것이다. 어머니도 이 부탁을 쉽게 들어 주지는 않겠지만, 나의 부탁을 한 번 꺾은 들어줄듯 하니 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부탁해 보겠다고 한다. 이어서 자청비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재미있게 그려진다.

[어머니에게 무조신의 허가받기를 청함]

양창보: 어머님이 좃아왓수가. 아이구 몽근년.

어따 세백참의 저년만 넘어 오라가민 몸서리 나고.

이중춘: 아니, 꼭 무신 승시가 나주.

양창보: 승시가 나주

이중춘: 아무 일이 이서도 이시난 저년이 왓주, 경 안 흐민

양창보: 아이구 어머님 나말 곧건 들어 봐

뚝기 들어주켠 흐민 곧고 경 안흐민 아니 곧으크라.

곧으라 보저 고운 말이나 궂은 말이나

들을만 흐민 들고 아니 들을만 흐민 아니 들곡,

아니 그런게 아니라

예, 금년은 뺑인년이고 신구월 열흐를날

저 조천면 신촌리 집윤수 이정자네 집의 초신질 발루젠

구월 열흐를 날부떠 궂을 시작흐엿수다

저 일천기덕(一千器德) 삼만제기(三萬祭器) 궁전궁납(宮殿宮樂)

큰심방 집사관을 성은 집씨곡 선 으춧술이우다.

경흐곡 그디 안맹두 밧맹두들 몬딱 일러불고

울랑국범천왕 대제김 소제김 몬딱 일러부럿젠 해연

나신디 오란 세경땅에 파묻엇젠 흐난

이 땅에 파묻은 게 스실(事實)일까 마는,

아이구 아이구 어머님안티 아니 여쭙왕 이걸 내주민 어떻흐네까.

웁서 그거 오랑 내여 쭈블게.

웁지 그런 승시가 시난 너년이 왓주.

경 안흐민 이 진동느룻에 올 리가 엿주. 아이구 요년 몽근년,

식상에 그 양창보 말이엔 흐며는 녹아떨어지영,

멧을 더 청 너년이 오랏구나.

경흐나 정흐나 아이구 돌말이라 단돌애기 말 아니들어주면,  
이년 몽근년안티 어멍 귀박는 소리 들을 거고, 아니 곧진 못흐고  
경흐난, 이걸 후딱흐게 내쭈부러동. 우리 아들 알며는 큰일 날거.<sup>114)</sup>

세경신이 어머니를 찾아간다. 어머니는 저 년이 아무 일 없이 찾아올 리가 없다며, 저 년이 넘어오려고만 하면 송시가 나고 몸서리쳐진다고 하면서 딸인 세경신 자청비에게 타박을 준다. 세경신이 어머니에게 큰심방 집사관 김씨 권여섯살이 김윤수 이정자네 집에서 초신길 발루는 곳을 하는 도중에, 일천기덕 삼만제기 궁전궁납과 안맹두 밧맹두 울랑국범천왕 대제김 소제김을 모두 잃어버리고서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세경 땅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고한다. 이 딸이 사실일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어머니께 여쭙지 않고 이것을 내어주면 아니 되겠기에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청비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를 찾아왔지 그렇지 않고서야 나를 찾아올 일이 있느냐고 혼을 낸 후에, 하나밖에 없는 딸의 부탁이니 아니 들어 줄 수 없다고 한다.

[세경신의 어머니가 무조신에게 명도 내어주기를 청함]

양창보: 아덜 알민 큰일나고, 느네 오라방 안티 어멍흐믄 좋느니.

느네 오라방이고 나에겐 아들이여. 느네 오라방안티 강,

아들 알며는 에이고, 우리 어멍 딸에만 썩러정.

돌말이엔 흐믄 우리 어멍 에이구,

아무 집의도 딸을 귀해주는 집은 망흐여.

경해영 나신디 곳판에 어멍안티 조은 말은 안 곧고 어멍흐민 조코.

영흐나 정흐나 이 말은 아니 들을 수는 못웨고.

게민 내 이번 흥번만 들어주마. 겨난 아이구 창고망으로 보난,

야 이거 춤베리도 내놔져. 춤떡도 내놔져. 야 이거 저새부떠 내놔져.

이거 공히 내놔 글을 썸져.

114)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310-311쪽.

우로 알드레 휘휘휘 휘 확하게 썬 딱혹게 봉(封)ㅎ엿구나.  
봉해연 야 구벨감(別監) 잇느냐.  
이 펜지 저 족은 상제(上前)님안티 강 전(傳)ㅎ여라.  
가 시왕더레 전해라.<sup>115)</sup>

세경신의 어머니가 “너의 오라비이자 나의 아들인 무조신이 이 사실을 알면 큰일이 날 것”이니, 이번 한번만 들어주겠다고 한다. 그리고는 참벼루, 참떡, 종이, 붓을 준비시킨 후 편지를 써서 봉한다. 편지를 다 쓴 다음에는 구별감을 불러 시왕에 가서 작은 상전님께 이 편지를 전하라고 명령한다.

[무조신의 허가]

양창보: 예- 대시왕에 편지 문안시오.

어 이리 갖다 데령ㅎ여라.

예에- 야 이거 아잔

이중춘: 잘 보아

양창보: 잘 보난 아이구 이거 봉(封) 따져.

이거 확 깨어난, 썩 받아 안잔. 읽엄구나.

가신 공신 내전문안 남산부는 민구여 서가여래 서준왕  
 서준 공손 말씀올 여쭙네다.

이중춘: 아이구. 좋다.

양창보: 하고말고, 명창이쥬. 날은 올금년에 해는 갈라갑네다.

땡인년 들은 보니 전성 곳인 아산 신구월들 열흘날 아적 묘시에  
 대한민국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대수동네에 거주하는  
 성은 김씨 김윤수 병술생 마흔하나  
 당춧하님은 이씨로 이정자 을미생 당주

이중춘: 아이구, 생각해 보난, 아맹해도 혼배 아자나고,

아맹해도 나 동세 부탁하는 거난 이?

양창보: 딸안티 다 곤주게 경ㅎ난 우리가

115)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311-312쪽.

이중춘: 어멍 죽어갈 때 딸안티 곶은 말이 이서그네  
 떠나 적시 무신 또 돈냥이라도 갈라주랜 또 놀아들지도 모르난,  
 양창보: 아이구 춤 하다 뿐이라. 경흐디 그 마우덴 말은 못해연.  
야 이거 춤 아니 하도 못하교.  
그냥 거 책실(冊室) 있느냐. ‘잇십네다.’  
필안(筆案) 아사들이라. 필안을 떡 셋구나.  
야 이거 답장을 떡 썬, 야 거기 수마름 데령(待令)했느냐.  
‘예, 데령해엿습네다.’  
이 편지 어멍국더레 가 전(傳)하라.<sup>116)</sup>

삼시왕이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 봉인을 뜯고 읽어본다. 내용을 읽어 본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의 부탁이 아니라 동생의 부탁인 것 같으나, 어머니가 직접 부탁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지라 아니 들어줄 수가 없어서 억지로 허락하기로 한다. 그리고는 “책실 있느냐, 필안 가져 오너라”하여 답장을 쓴 후 수마름을 시켜 어머니께 편지를 전하라 한다.

### [명도찾기]

양창보: ‘에예, 어멍국에 편지 서신(書信) 올립니다.’  
 어멍이 떡 비려보니 춤 우리 아들은 아들이거든.  
 효자(孝子)라 효자라 어멍 말이 엔흐민  
 춤 기야말로 아니들면 아들이 아니주.  
 경흐난 이건 딱로 춤에 놓고.  
애야 거기 거 신의 성방 성은 김씨 거 예순 으춧  
저 본래 심방도 아니어서 마흔 넘어사 나산 올명 트드명 땡기는 거,  
거 아니 내여칭은 안된다 거 땡기명 거 머리광 문딱 빠지당  
 남은 쉰 머리사 또시 빠져볼머는 어멍흐느니. 제발 내여 쥐불라.  
경흐꼭 따시 몫신 게 거 신촌은 거 우선 김윤수 이정자 짓덜  
한참 꽃피젠 나상 땡기는 거. 거 결재종지에 우막아불민 아니 웬다.

116)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312-313쪽.



내어놔그네 혼저 내여헝, 큰곳이나 작은 곳이나 흐랜허라.

아이구 우리 어멍 고맙수다 고맙수다. 경흐난 나 어멍이 질 좋아.

허가영 말아시난 이제랑 내여주라. 야 이거 무루와 가라.

일천기덕(一千器德) 삼만제기(三萬祭器)

궁전궁납(宮殿宮樂) 무루와 가라

본맹두도 무루와 가라. 신맹두도 무루와 가라.

울랑국이여 범천왕이여. 대제김이여 소제김

소리 조은 삼동맥이 살장귀여 무루와 가라.<sup>117)</sup>

어머니께 삼시왕의 편지가 도착한다. 세경신의 어머니는 아들이 정말 효자인지라 어머니의 명을 거역하지 않고 청을 들어주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기뻐한다. 딸인 자청비를 불러서, “애야, 신의 성방 김씨 예순여섯, 저 본래 심방도 아니었는데 마흔 넘어서 울며 다니다 심방이 된 거 아니 내어주면 안 된다”고 말하고는, 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 머리가 그나마 다 빠져버리면 큰일이 나니 제발 빨리 내어 주어 버리라”고 하면서 수심방의 명도 내어주기를 허락한다. 그리고 이어서 “또 몹쓸 것이 신촌의 김운수 이정자 부부의 것들, 한참 꽃피어 나서 땀기는 것을 막아버리면 아니 되니 얼른 내어주어 큰곳이나 작은 곳이나 하도록 명도를 내어주라”며 신입무의 명도도 내어주라고 한다.

자청비가 어머니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온다. 이제 삼시왕의 허가도 받았고 어머니에게서도 명도를 내어주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렸으니, 심방에게 명도를 내어줄 차례이다. 자청비는 “야, 이거 파서 가거라. 일천기덕 삼만제기 궁정궁납도 파서 가라. 본맹두 신맹두도 파가라. 울랑국범천왕 대제김 소제김 소리 좋은 삼동막이살장구도 파 가라”고 명한다. 이렇게 하여 심방은 잃어버린 명도를 모두 되찾게 된 것이다.

복잡하게 진행된 ‘곱은 명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체(神體)로 관념되는 무구(巫具)인 명도(明刀)를 수수께끼 과정을 거쳐 찾아냄으로써 신의 영력(靈力)을 획득하게 되는, 일종의 ‘신물찾기’의 과정을 연극

117)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313-314쪽.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심방이 사용하는 명도의 내력을 밝힘으로 해서 명도의 영력을 보장받는 동시에, 신이 행했던 법대로 무구를 사용해야 함을 보여줌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쇠놀림굿

‘곱은 명도’ 제차에서 신입무의 잃어버린 명도(明刀)를 모두 찾고 나면, 수심방은 그릇에 수심방의 명도, 소미들의 명도, 신입무의 명도를 모두 넣고 요란하게 춤을 추며 뛰어다닌다. 춤을 추며 안팎으로 뛰어다니던 수심방이 당주상(堂主床) 앞에 와서 그릇 속의 명도를 한꺼번에 뿌린다. 그래서 뿌려진 신칼의 날의 방향, 상잔들의 엎어지고 자빠진 모습들을 보고 큰심방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한다.

이처럼 ‘안팎 명도’<sup>118)</sup>를 모두 모아 놀리는 과정을 통해 신입무의 신길을 바로 잡는 곳을 ‘쇠놀림굿’이라 한다. ‘쇠’는 명도(明刀)를 의미하니, 명도 즉 무조신(巫祖神)을 놀리는 굿이 된다. ‘쇠놀림굿’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각호 각당에 역가는 둘러보고  
열두징 금시리 녀드리고 지놀려 있습네다  
지놀려 있습는데 본맹두도 무루와 가라<sup>119)</sup>  
신맹두도 물와 가라 영해여 납네다  
울랑국도 무루와 가라 범천왕도 무루와 가라  
대제김 소제김 무루와 가라 하전이 납니다  
시왕고분연질로 안맹두 밧맹두 둘러차 있습네다  
**(모든 맹두를 큰 양푼에 놓고 흔든다)**

118) 굿을 청한 본주의 명도를 ‘안명도’라 하고, 굿을 하기 위해 청해진 수심방과 소미의 명도를 ‘밧명도’라 한다. 이때의 ‘안팎명도’란 본주의 명도와 굿에 참여한 심방과 소미의 명도 진부를 말하는 것이다.

119) 무루와 가다. 무와 가다. 즉 ‘과 가다’는 뜻이 된다.

디러가며 이집 안전 대주 성은 김씨  
마흔에 혼술과 성은 이씨로 서른에 두술 초역례(初役禮) 굿입네다  
이 역례 오늘 초신질로 메와  
상단궐 신당에 뒤여 있습니다

**본멩두 신멩두 삼멩두 안멩두 밧멩두 둘러 받아**

**동글동글 쉼놀림굿이여 (아주 빠른 樂舞)**

(양창보 口誦)<sup>120)</sup>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멩두도 무루와 가라, 신멩두도 무루와 가라” 하는 식으로 모든 무구(巫具)와 무복(巫服), 무악기(巫樂器)를 파 가라는 대목이 있다. ‘곱은 명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심방이 점쟁이에게 문점(問占)하여 잃어버린 명도가 세경땅 ‘시왕곱은연질’에 묻혀 있음을 확인하고 세경신에게 명도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세경신은 땅을 차지한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고, 어머니는 다시 시왕을 차지한 아들(삼시왕)에게 부탁하여 명도를 찾게 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삼시왕이 명도를 다시 내어주는 부분이 되며, 세경땅 ‘시왕곱은 연질’에 묻혀 있는 ‘본멩두, 신멩두, 울랑국 범천왕, 대제김 소제김’ 등의 무구를 모두 파가라는 의미가 된다.

이 때 ‘본멩두, 신멩두, 삼멩두’는 무조신(巫祖神)을 상징한다. ‘밧멩두’는 신굿에 참여한 수심방과 소무의 명도로, 단순히 무구(巫具)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이 명도를 가지고 심방의 업(業)을 이어온 모든 심방 조상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본멩두 신멩두 삼멩두 안멩두 밧멩두 둘러 받아 동글동글 쉼놀림굿이여”라는 부분에서 ‘본멩두 신멩두 삼멩두’로 상징되는 무조신과 ‘밧멩두’로 상징되는 심방 선생들의 명도를 ‘안멩두’인 신입무의 명도와 함께 놀리는 것은, 신입무를 무조신과 심방 선생들이 속해 있는 세계의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조신-심방선생-신입무’로 그 정통(正統)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120)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315쪽.

이어서 신입무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명도의 내력을 길게 이야기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안명도와 밧명도를 모두 모아 던져서 점을 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런 다음에 점의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 신입무에게 알려 준다.

오방근: 보저 보저(명두점을 친다)

이중춘: (명두잔 길을 살피며)또 하나가 어서 천문 하나. 상잔은?

상잔 하나 어서? 상잔이 하나 어서?

양창보: 멩둔 잘 진 거 닻수다 마는,

이중춘: 요건 어멍 꺼, 이견 느 꺼, 어멍 꺼, 느 꺼, 이견 불휘공인가?

요건 어멍 꺼, 요건, 이게 저 불휘공 아니?

이건 아무래도 이 덕분에 너가 심방질 햄거든 이.

너가 심방을 하니깐 요건 요레 가가지고

심방 앞드레 글라 나가 질인도 흐켜. 흐는 격이고.

또 큰질은 나가 잘치니까 날 따라 오라. 불휘공 따라오라.

여기는 떨어진 조상엇이 전부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곱아뵈고.

또 저거는 이제 그 느껴앤허멍. 그러니 어멍국은 이레 사시니깐.

계민 아방국이랑 이디 사켜

김윤보: 좋수다 게

이중춘: 예. 너가 이제 신질을 발루레 와시니,

어멍국은 어멍국대로 신질을 발룬 나시,

또 이것이 너무 떨어정 나가불면, 안 되주게 계난,

섭섭하니깐 내가 앞정셨다마는 떨어진 조상 엇이 전부

나가 신질을 발화동 감수다. 요렇게 나는 판단을 흐는디.

양창보: 아, 잘 졌수다게. 나 생각에도 웬 거 닻아.

(양창보 口誦)<sup>121)</sup>

이렇게 볼 때 ‘쇠놀림굿’은 무점(巫占)의 일종으로, 신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제차이다. 삼시왕이 신입무의 입무(入巫)를 허가

121)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317-318쪽.

하여 신길을 바르게 해 줄 것인 지를 무점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방들에게 그 결과는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점의 결과 수심방의 명도가 신입무의 명도 앞에 나오는 것을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좋은 명도가 앞에 서서 신길을 바르게 이끌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쇠놀림굿’은 다른 무점(巫占)처럼 단순히 신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명도 즉 조상들의 신길을 신입무가 잘 따를 것인지 확인하는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쇠놀림굿’은 잘 닦여진 명도의 길을 따라 신입무에게로 명도의 효험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며, 잘못된 길이 아닌 정통성을 가진 올바른 굿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의미를 가진 의식이라 할 수 있다.

#### 라. 당주다리 메어듬

<당주맞이>에서 수심방이 하는 굿이 모두 끝나면, 마지막에 신입무가 마당의 제상(祭床)에서 집 안의 당주(堂主) 제상(祭床)까지 무조신(巫祖神)을 엮어 들이는 순서가 있다. 마당의 제상으로부터 집안의 제상까지 무조신이 지나갈 길을 치워 닦는 일은 이미 수심방이 해 두었으므로, 이제 정식 심방이 된 신입무가 그 신(神)을 인계받아 자기의 당주 제상에 엮어 인도해 가서 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주다리 메어듬’은 삼시왕의 신통(神統)이 새로 심방의 길로 들어선 신입무(新入巫)에게로 이어졌음을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로 상징되는 무명천을 삼시왕 당클에서 당주 당클로 끌어들이는 모의적인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제차라 할 수 있다. ‘당주다리 메어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길을 놓았던 다리인 무명천을 밖에서는 심방이 잡고 안방에서는 본주가 잡아 서로 당긴다. 심방은 인정을 받으며 조금씩 양보하고, 본주는 사력을 다하여 안방으로 다리를 당기어 차곡차곡 개어 놓는다. 이

를 ‘메어 든다’고 한다.<sup>122)</sup>

‘메어 들이기’를 끝낸 신입무는 다리인 긴 광목을 양어깨에서 등 쪽으로 업듯이 빙빙 감아 묶는다. 이를 ‘당베·절베·신베’를 매는 것이라 하는데, 이렇게 ‘당베·절베·신베’를 매어야만 정식 심방으로서 굿을 할 수 있게 된다.<sup>123)</sup> 이와 같이 ‘당베·절베·신베’를 매는 과정은 심방이 새로 당을 맬 경우에도 행해진다고 한다.<sup>124)</sup> <당주맞이>에서 베를 매는 행위는 무조신을 등에 업어 묶는 것으로, 심방의 업(業)에 매인 사람이 되었음을 뜻한다.

그런 다음 감상기와 신칼을 두 손에 들고 요란한 악기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한다. 악기 소리가 빨라짐에 따라 춤도 점점 격렬해 지는데, 좌우로 팽팽 돌기도 하고 위아래로 뛰기도 하면서 마당에서 집 안의 당주 제상까지 요란하게 이동해 가면서 난폭한 춤을 춘다. 이 춤은 매우 난폭하고 요란해서 춤을 출 때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점, 무아경(無我境)에 들어가 여덟 시간이나 춤을 춘 이가 있다는 점<sup>125)</sup>, 그 때 신이 올라볼도록 악기를 요란하게 쳐서 춤을 추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이

---

122) <불도맞이>나 <시왕맞이> 등 맞이굿이 끝나면, 이와 같이 다리를 끌어들이는 ‘메어듬’ 과정을 한다. 일반적인 맞이굿에서는 다리를 메어 들인 다음에 심방이 집안의 조상을 높이는 <석시> 또는 <군웅석시>라고 하는 <석살림굿>을 하는데, 이 과정을 ‘잉어매살린다’ 또는 ‘메어들여 석살린다’고 한다.

123) 문무병과의 면담 내용.

124) 제주도의 마을에는 마을의 토지와 주민의 제반 사항을 차지하여 수호해 주는 신을 모시는 본향당(本鄉堂)이 있다. 본향당에 모시는 신을 본향당신(本鄉堂神)이라 하는데, 본향당신을 모시는 당제를 지내는 심방을 ‘당멘심방’이라 한다. ‘당멘심방’은 본향당을 중심으로 당에 다니는 마을 사람들과 단골 관계를 맺게 된다. ‘당멘심방’이 죽거나 하여 새로운 심방이 당을 메게 될 경우에도 ‘당베·절베·신베’를 메어 들이는 과정을 하게 된다.(문무병과의 면담 내용)

125) 심방들은 이 춤을 출 때 무아경(無我境)에 들어가 어떻게 춤을 추었는지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한다. 이 춤을 여덟 시간이나 계속 추었다고 말하는 심방은, 그 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때 신이 올라라고 연물을 바싹 돌굽니다. 그러면 춤추는데 눈에 불이 켜져 뽀뽀 나고 몸이 공중에 떠서 핑핑 돌고 발이 땅에 붙지 아니합니다. 몸이 지친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런 건 하나도 모릅니다. 그저 나도 모르게 추어집니다. 나는 신굿 때에 여덟 시간이나 추었다는 것을 나중에 소미가 말해주어서 알았지만, 그 때 춤을 출 땀 것처럼 추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춤이 끝나니 그만 몸이 지쳐서 꿈쩍을 할 수 없습니다.”(현용준, 앞의 논문, 1989. 96쪽 참조)

강림하여 심방의 몸에 빙의(憑依)시키는 춤으로 볼 수 있다.<sup>126)</sup>

이와 같은 요란한 춤을 추고 나면 신입무는 당주 제상 앞에 가서 꿇어앉아 다리라고 하는 광목을 풀어 제상에 올리는 데, 이로써 자신의 수호신 곧 무조신을 모셔 들이는 과정이 끝난 것이다. 결국 ‘당주다리 메어듬’은 삼시왕의 신길을 신입무의 신길과 이어주는 의식으로, 인간으로는 죽어 심방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신의 올바른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주맞이> 제차 중에서 신길을 바르게 하여 정통성을 확보하는 의미를 가진 ‘당주길치기’, ‘고분 명도’, ‘쇠놀림굿’, ‘당주다리 메어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들은 첫째, 무조신이 들어갈 길을 치위 뒹은 뒤, 둘째, 숨겨진 신물인 명도를 찾아내어 심방의 자격을 인정받는 행사, 셋째, 새로 입무한 심방의 신길이 바르게 잡혔는지 점검보는 행사, 넷째, 신입무가 무조신을 당주까지 업어 인도해 가서 자기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행사가 그 중심이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삼시왕에서 입무의 허가를 받은 신입무에게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당주맞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까지 III-2절에서는 신굿 중에서도 <초공본풀이> 후반부의 내용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당주맞이> 제차 중, 심방의 입무 과정을 담고 있는 의식들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심방의 입무 의례인 신굿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제차는 <당주맞이>라 할 수 있다. <당주맞이>는 <초공본풀이> 후반부에 있는 “삼시왕에서 인정을 받고, 굿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 심방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모의적인 연극을 통해 보여주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대체로

---

126) 현용준(1989), 앞의 책, 97쪽.

‘입무의 허가’와 ‘정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의식으로 나눌 수 있었다.

신긋은 평범한 사람이 신의 아이인 심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례로, 이 의례의 핵심은 심방들의 생사를 관장하는 삼시왕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입무의 허가 내용은 ‘약밥약술’, ‘어인타인’, ‘예개마을긋’ 대목의 진행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과정들은 신 입무가 삼시왕에게 불려가서 신이 내려 주는 ‘약밥약술’을 받아먹고, ‘어인타인’을 맞아, 신으로부터 입무의 허가를 받은 뒤 당당한 심방이 되어 신자(信者)의 집에 가서 최초의 긋을 하는 것을 모의적으로 실연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결국 ‘약밥약술’, ‘어인타인’, ‘예개마을긋’의 과정은 무조신으로부터 무술의 영력(靈力)을 몸에 받아 넣어 다시 태어남의 과정을 거쳐 입무의 허가를 얻고, 최초의 무의(巫儀)를 실연해 보임으로써 그 자격과 수호의 확인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주맞이>의 내용을 보면 길을 발루는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길을 발룬다’는 의미는 ‘신의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으로, 삼시왕에서부터 시작되는 바른 계통을 따르고 올바른 긋법을 행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통성 확보의 내용은 ‘당주길치기’, ‘곱은 명도’, ‘쇠놀림긋’, ‘당주다리 메어듬’ 대목의 진행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과정들은 무조신이 들어갈 길을 치워 닦은 뒤, 숨겨진 신물인 명도를 찾아내어 심방의 자격을 인정받고, 새로 입무한 심방의 신길이 바르게 잡혔는지 점치고, 신입무가 무조신을 당주까지 업어 인도해 가서 자기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것이 그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삼시왕에서 입무의 허가를 받은 신입무에게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심방의 입무 의례 특징

II장과 III장을 통해 무조신화 <초공본풀이>와 신굿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초공본풀이>에 근거한 심방의 입무 과정이 <당주맞이> 제차 속에서 어떻게 실연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을 통해 드러난 심방의 입무 의례 특징을 명도 물림을 통한 사제권 세습, <초공본풀이>의 모방을 통한 신성성 확보, 역례 올림을 통한 굿법의 학습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명도 물림을 통한 사제권 세습

무조신화인 <초공본풀이>를 보면 ‘젯부기 삼형제’의 이름은 ‘본맹두’, ‘신맹두’, ‘삼맹두’로 되어 있다. 이 셋을 합쳐서 삼명도(三明刀)라 하는데, 각각 무구(巫具)인 요령(搖鈴), 신칼[神刀], 산판[算盤]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명도(明刀)는 무조 삼형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방들이 모시는 무구(巫具)인 명도는 무조신(巫祖神)의 신체(神體) 즉 심방이 모시는 조상이 된다. 실제로 심방은 집안의 당주상(堂主床)<sup>127)</sup>에 이것을 보관하여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명도는 심방의 조상이며 무조신의 영험이 담겨 있는 증거물로서 ‘본메’라 하며, 이 명도를 지님으로써 비로소 심방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sup>128)</sup> 따라서 명도를 계승받지 않고 스스로 입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도를 스스로 마련해 그것을 조상신으로 모신다.

또한 심방이 굿을 할 때에도 무조신을 위한 제상인 공시상을 따로 마련하고, 그 위에 무구인 명도를 올려놓고 굿을 시작한다. 심지어는 명도를 마련한 날을 신의 생일이라 하여 그날을 기려 굿을 하고, 때로는 명

127) 방 귀퉁이에 조그마한 함을 만들어 명도를 모신 상.

128) 문무병(1999), 앞의 논문, 88쪽.

도를 마련한 날짜가 각각 다를 때에는 그 각각의 날짜를 신의 생일로 관념해 의례를 행하는데, 이때 신앙민들이 이 의례에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심방뿐 아니라 신앙민까지 무구인 명도를 신으로 관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9)</sup>

심방은 조상으로 모시는 명도를 적어도 한 벌 이상 지니고 있으며, 그 각각의 명도는 모두 무업(巫業)을 하였던 집안의 연고가 있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명도 물림에 의해 물려받은 명도가 영험 있고 족보 있는 조상이어야 훌륭한 심방으로 추앙을 받는다.<sup>130)</sup>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름 있는 심방은 ‘족보 있는 심방’으로, 내력 있는 명도를 물려받은 심방이어야만 ‘영급 좋고 수덕 좋은 심방’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신굿 속에서 명도 물림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당주맞이>의 ‘곶은 명도’ 제차에서 숨겨진 명도를 찾아내는 과정을 연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의 명도 물림이라 한다면, 둘째, ‘공시풀이’나 ‘쇠놀림굿’에서 신입무가 모시고 있는 명도의 내력과 그 명도를 물려받게 된 사연을 직접 신에게 고하는 것은 실질적인 명도 물림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상징적 의미의 명도 물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당주맞이> 제차 중 ‘곶은 명도’는 당주 심방의 명도를 당클 속에 숨겨 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찾아낸 다음, 명도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의식으로 일종의 신물 찾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곶은 명도’는 명도 내력 밝히기, 문점 하기, 명도 찾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먼저 <초공본풀이>의 내용에 근거해서 명도 하나 하나가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힌다. 그런 다음 잃어버린 명도가 세경땅 ‘시왕고분연질’에 묻혀 있음을 문점으로 알아낸 후, 세경땅에 가서 자청비의 도움으로 삼시왕의 허가를 받아 명도를 찾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잃어버린 명도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땅

129) 하순애,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218-219쪽.

130) 문무병(1999), 앞의 논문, 88쪽.

에 묻혀 있는 신물을 찾아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심방들에게 명도는 실제로 세습되어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sup>131)</sup> 그러나 ‘곶은 명도’ 제차 속에서 명도 찾기 과정은 숨겨져 있는 명도를 찾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심방이 아닌 사람이 심방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거치는 일종의 시험의 과정을 상징적 연극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약밥약술’이나 ‘어인타인’이 신화의 내용에 근거하여 내림굿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곶은 명도’는 수수께끼 문답과 명도 찾기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명도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심방의 자격 획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심방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일종의 입사식(入社式)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명도는 무구이면서 동시에 신체(神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물(神物)인 명도를 찾아낸다는 것은 단순히 무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제의를 주관할 수 있는 사제권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곶은 명도’에서는 사제권의 계승을 신물 찾기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곶은 명도’가 명도 물림의 상징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공시풀이’나 ‘쇠놀림굿’ 속에는 명도 물림의 실제 내용이 담겨 있다. 신곳에서 신입무는 ‘공시풀이’를 통해 심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생애 이야기와 그가 모시고 있는 명도(明刀)의 내력, 그 명도를 어떻게 물려받게 되었는가 하는 ‘명도 물림’의 사연을 신에게 직접 고한다. 또 ‘쇠놀림굿’은 굿에 참여한 심방의 명도와 신입무의 명도를 함께 던져서 신입무의 신길이 바르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종합적인 무점(巫占)으로, 신입무의 명도가 수심방과 소미의 명도의 질서 속으로 편입됨으로써 심방으로 인정받게 되는 의식이다. ‘쇠놀림굿’에서는 신입무의 명도뿐 아니라, 굿에 참여한 모든 심방의 명도의 내력이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

131) 강신무가 어떤 계시를 받고 땅에 묻혀 있는 신물(神物)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과 달리, 제주도의 심방은 명도물림에 의해 세습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명도의 내력은 굿의 여러 대목에서 구송되는데, 여기에서는 ‘쇠 놀림굿’을 할 때 구송되는 신입무의 명도 내력을 살펴보겠다.

**[쇠놀림굿: 명도 물림 내력]**

안맹두는 옛날에 증조하르바님 영급종던 일월삼맹두  
 죽은 하르바님이 어김 음덕쥐연 성진(姓親) 계유생 넘어댕기던  
 김세완이영 무술생 스물 아홉 술 가져댕기던 이북까지 간 살안  
 임시 잠간에 신의 아이 얻어 모사 댕깁니다  
 옛 삼맹두로 안맹두로 놓앗십네다  
 디려 죽어 배 제여 보며는  
이 집안의 마흔흔 술님<sup>132)</sup> 서른두 술<sup>133)</sup> 몸반던 일월조상 삼맹두는  
이 마을의 고씨 어머님<sup>134)</sup> 생신 때 민제 환불이 난 물려주지 못하여  
이 조상 놓고 본메 노양 본을 놓아보라 영해연 쇠동냥<sup>135)</sup> 해여다  
스물아홉 나던 해, 시에 황대장<sup>136)</sup>신디 간  
좋은 본메를 내와 얻어 매살리연 댕겨수다  
 글지 후에 고씨 어머님은 예순 아홉 나던 해에 별세 하였드니  
삼시왕에 종명(終命)흐난 물려받앙 흐 당주에 흐 본메 한 조상이 됩네다  
옛날 옛적 내팍글 고씨 선생님이 본메 내와주던<sup>137)</sup> 일월삼맹두읍고  
조천관 안참봉 안씨 선성님<sup>138)</sup> 본메 내와주던 선성님이 올습네다

(양창보 口誦)<sup>139)</sup>

위의 인용문에서는 이 집안의 마흔한 살과 서른두 살 먹은 당주(堂主)가 대를 이은 명도(明刀)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당주(堂主)인 김윤수

132) 무형문화재 71호 칠머리당굿 보존회장인 김윤수 심방. 1986년 굿을 하던 당시 나이가 41세였다.

133) 김윤수 심방의 아내 이정자. 1986년 굿을 하던 당시 나이가 32세였다.

134) 김윤수 심방의 수양 어머니인 고군찬 심방을 말한다.

135) 심방이 무구를 제작하려면, 단골들에게 낫그릇 같은 쇠를 얻어다가 야장신(冶匠神)에게 ‘갈매하르방 고사’를 지내고, 조상의 명도를 본으로 떠서 명도를 만든다.

136) 황씨 성을 가진 대장장이.

137) 제주도 동문시장 부근 산지천 밖에 있는 마을에 사는 큰 심방 고씨 선생의 명도의 본.

138) 작고(作故)한 안사인 심방.

139)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316-317쪽.

심방<sup>140</sup>)은 고씨 어머니에게 수양아들로 들어갔다. 고씨 어머니의 생신 때, 어머니가 모시던 명도를 물려주려 했으나 일이 생겨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스물아홉 살 나던 해에 제주시 동광양 황씨 대장장이 집에 가서, 좋은 본메[本型]를 놓고 일월명도(日月明刀)를 지어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그러다 고씨 어머니가 예순 아홉 나던 해에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것을 물려받아서 함께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도 물림은 조상 때부터 사용하던 무구를 대를 이은 자손에게 물려주는 의식으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무업의 기능을 전수하는 것이다.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경우, 양자를 구하여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고, 심방의 기량을 전수시킨 연후에 명도를 물려준다. 그러므로 심방이 지닌 조상으로서 명도는 내력을 가지게 된다.

명도 물림의 내력은 굿 속에서 신입무의 입을 통해서, 때로 수심방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어 신에게 고해진다. 이처럼 신굿에서 명도 물림의 내력이 반복되어 구송되는 이유는, 명도라는 무구를 통해 굿을 사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전승되기 때문일 것이다. 명도는 신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명도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 신의 영력까지 함께 물려받는 것이 되며, 심방 조상들이 명도를 가지고 정도에 맞는 바른 굿을 사제했듯이 신입무 또한 명도를 물려준 조상의 바른 굿법을 계승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40) 김윤수 심방의 <공시풀이> 중 일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윤수 심방의 조상 중 6대조로부터 삼대까지 독자로 내려와 세상을 떠났다. 고대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케뜨르(대흘리 고평동)에 장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한 지관[風水]이 지나가다가 여기에 묘를 쓰면 자손은 벌어지나 심방 자손이 태어나겠다고 했다. 그 때는 자손이 귀하였기에 심방이 되어도 좋다고 하니, 지관이 내일 사시(巳時)가 되어 케뜨르 쪽에서 굿소리가 나면 하관하여 장사를 지내라고 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전생을 그르쳐 심방이 되어 제주도에서 권위 있고 품위도 당당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일월명도(日月明刀)는 작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다니시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어, 현재 5촌 고모님이 모시고 있다. 김윤수 심방 자신은 고씨 어머니에게 수양아들로 들어가, 스물아홉살 나던 해 9월 23일 제주시 동광양 황대장 집에 가서, 좋은 본메[本型]를 놓고 일월명도를 지어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그러다 재작년(1984년) 고씨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것을 받아서 함께 모시고 있다.”(제주도 편, 앞의 책, 1997. 242-243쪽)

일반적으로 강신무는 신병을 앓고 내림굿을 받은 후에 몸주신을 모심으로 인해 사제권을 인정받고, 육지의 세습무인 단골은 가계 세습에 의해 사제권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제주도의 심방은 명도라는 신물을 세습함으로써 사제권을 계승하게 된다는 점에서 강신무와도 세습무와도 다른 특징을 가진다.

## 2. <초공본풀이>의 모방을 통한 신성성 확보

입무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죽어 신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이라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입무 의례는 평범한 사람이 일정한 형태의 시험을 치른 다음, 신성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무 의례의 특징은 시베리아 계통의 샤만들에게 잘 드러나고 있다.

샤만은 신병(神病)이나 접신몽(接神夢)에 의해 신(神)에게 택함을 받는 데, 이러한 최초의 접신 체험은 비교적 다양하고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개 다음과 같은 테마를 간직하고 있다. 즉 인체의 내부기관과 장기(臟器)의 재생이 뒤따르는 육신의 해체, 천상계로 상승하여 신들과 영신들과 대화를 나눈다든가, 지하계로 하강하여 영신들 및 세상을 떠난 샤만들과 대화를 나눈다든가 하는, 종교적인 동시에 샤만적인 갖가지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다.<sup>141)</sup> 이러한 종류의 접신 체험은 그 자체로 이미 입무 의례라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접신을 통하여 택함을 입은 샤만 후보자가 일정한 교육 기간을 거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미래의 샤만은 무술을 습득하고 자기가 속한 종족의 종교적, 신화적 전승을 배우게 된다. 이 예비 단계가 샤만의 성무 의례로 불리는 일련의 의례를 완결시키는 예가 자주 있다. 그러나

---

141) 미르치아 엘리아데, 『샤마니즘: 고대적 접신술』, 이윤기 역, 까치, 1992. 51쪽.

이것은 정식의 성무 의례라 부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샤만 후보자는 스승 샤만과 공동체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기 오래 전에 실제로 이미 ‘입문’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승 샤만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트랜스바이칼 통구스 족의 경우, 샤만은 어린아이 때 선발되어 샤만으로 길러진다. 이 어린아이는 일정한 예비 단계를 거치면 최초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즉 해몽을 하거나 점복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험은 샤만 후보자가 접신 중에 자기 옷을 만들 재료로 영신들이 어떤 동물을 보내줄 것인지를 예언하는 대목에서 절정을 이룬다.<sup>142)</sup>

만주 지방의 통구스족의 경우, 이 절차는 조금 다르다. 아이가 택함을 받아 샤만 교육을 받는 것까지는 같으나, 무업의 행사 여부가 샤만 후보자의 접신 능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식 성무 의례가 베풀어진다. 늙은 샤만이 영신을 하나하나 불러 샤만 후보자의 몸에 빙의시키면, 영신들이 들어갈 때마다 이 모임의 장로들은 이 후보자를 시험한다. 후보자는 영신들의 내력(살아온 역사)뿐 아니라, 영신이 원래 누구였으며, 어디에 살았는지, 무슨 역사(役事)를 했는지, 어느 샤만의 몸주 노릇을 했는지, 그 샤만은 언제 죽었는지 등을 소상하게 대답하여 참관자들에게 정말 영신이 자기 몸에 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sup>143)</sup>

우리나라의 경우, 강신무들의 내림굿에서 시베리아 샤만의 경우와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강신무가 되는 데에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첫째가 신병(神病)을 앓는 과정이고, 둘째는 그 신병을 고치기 위하여 최후의 방편으로 택하는 내림굿이다. 셋째는 내림굿을 해 준 신어머니에게서 무당 노릇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오랜 세월이 걸쳐 배우는 피나는 수련 과정이다. 이 때 두 번째 과정인 내림

---

142) 미르치아 엘리아데(1992), 앞의 책, 118-119쪽.

143) 미르치아 엘리아데(1992), 앞의 책, 119쪽.

곳을 본격적인 입무 의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황해도 지역 내림곳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그 속에는 크게 나누어 허튼곳·내림곳·솟을곳이라고 부르는 세 부분이 들어 있다. 이 과정들은 강신한 사람의 몸에 들어 있는 허튼 귀신 즉 잡신을 헤쳐 버리고, 올바른 큰 신들을 몸에 내리게 하여, 무당으로 솟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sup>144)</sup>

곳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되는 내림곳은 ‘방울·부채 감추기 및 일월맞이→신을 고(告)하고 신복 찾기→숨겨진 방울과 부채 찾기→말문 열기→눅타기→머리 풀고 다시 올리기→무구 던져주기’의 순서로 진행된다.<sup>145)</sup> 이 과정 속에는 ‘방울과 부채 감추기-숨겨진 부채와 방울 찾아내기’라는 신물(神物) 찾기와, ‘신을 고하고 신복 찾기-말문 열기’의 신성성 확인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들어 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거친 후에는 이제 신의 출신이 되었으므로 정한 물로 잡신을 씻고 다시 머리를 올려 신의 세계로 들어감을 뜻하는 ‘머리 풀고 다시 올리기’가 이어지는데, 이것은 신딸과 신어머니의 모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되며, 신과의 결혼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무구를 던져준다.

여기에서 ‘신을 고하고 신복 찾기-말문 열기’ 부분을 주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입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앞으로 모시게 될 신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하게 한 다음, 상 위에 쌓여 있는 각종 무복(巫服) 중에서 그 하나하나의 신을 상징하는 옷을 차례대로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의 종류와 신의 옷을 찾아내는 시험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처음으로 신의 말(공수)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말문 열기’를 하게 된다. 이 과정은 입무자가 이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베리아 계통의 샤만들과 우리나라 강신무의

---

144) 김인회(1983), 앞의 책, 85쪽.

145) 김인회(1983), 앞의 책, 87-92쪽.



입무 의례에서는 예언과 같은 신비한 능력을 갖추는 행위가 무(巫)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제주도 심방의 입무 의례에서는 신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모방함으로써, 심방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신성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심방의 입무 의례인 신굿은 무조신화인 <초공본풀이>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최초의 심방인 유씨 부인의 행위를 신입무로 하여금 그대로 재연하게 함으로써, 유씨 부인이 가졌던 모든 능력과 자격을 그대로 신입무로 하여금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방의 입무 의례는 최초의 심방인 유씨 부인이 그렇게 했듯이, 삼시왕에 역가를 바쳐 ‘약밥약술’을 타먹고, ‘어인타인’을 맞은 후, 모든 제구(祭具)를 물려받아 최초의 굿을 하게 된 신화 내용을 신입무가 자신의 몸으로 그대로 재연하는 과정을 통해 신성한 존재로 재탄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심방의 입무의례가 신화에 근거하여 그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때, 신화와 제의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화(神話)와 제의(祭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하지만, 크게 신화와 제의는 반드시 병행하고 서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어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의례주의(儀禮主義)와 모든 신화가 반드시 제의와의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반의례주의(反儀禮主義)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반의례주의라고 해서 신화와 제의와의 상관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신화가 제의와 상관성을 갖는다는 데는 부정하지만, 일부 성성적(聖性的) 신화가 제의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이다.<sup>146)</sup>

이처럼 신화와 제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할 경우, 신화와 제의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화가 먼저인가, 제의가 먼저인가 하는 것이다. 신화선행설(神話先行說)은 원시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신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신화에서 이야기되는 원초적인 사건이 제의

---

146) 현용준, “한국 신화와 제의”,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283쪽.

에 따라 극적으로 표현된다는 관점이다. 의례선행설(儀禮先行說)은 원시적 종교성이 희박해지자 의례 본래의 의미가 망각되고 그 의례에 새로운 해석 설명을 붙인 것이 신화 발생이라는 관점으로, 이에 따르면 신화는 제의보다 후대에 생긴 것이 된다. 처음에 의례주의자들은 제의로부터의 신화 발생을 일면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프로이트, 옌젠, 클라크혼 등의 학자들의 연구는 신화가 의례화하는 것이 많음을 밝히게 되었다.<sup>147)</sup>

제주도의 굿은 ‘본풀이와 맞이’ 또는 ‘본풀이와 놀이’로 이루어져 있다. 본풀이를 노래해 가다가 그 내용을 의례 행위로 실연하거나 의례 행위의 신화적 근거를 설명하는 것을 맞이굿이라 한다. 맞이굿에서 본풀이를 노래하거나 그 내용의 의례적인 행위 연출은 의례 행위의 신화적 근거를 댐으로써 의례의 정당성을 보증하고, 신화적 사실을 현실에 재연하여 원고적(原古的) 질서(回歸)·갱신(更新)시키는 의미가 있다.<sup>148)</sup> 그리고 본풀이의 내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놀이굿에서 신화는 연극의 대본과 같은 것이요, 그것을 대사와 행동으로 연출함으로써 신화적 원고의 질서를 현실에 재현시키고 의례 효험의 확실성을 보증 받게 된다.<sup>149)</sup>

제주도의 굿에서 신화는 의례의 일부로서 창되어 의례의 정당성과 의례 효험의 확실성을 보증하고 있고, 극적 의례에 선행하여 그 의례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점에서 제주도의 굿은 신화가 먼저 있어 그 내용을 극적 의례로 연출한 것이라는 신화선행설의 입장에서라야 설명이 가능해진다.<sup>150)</sup>

결국 제주도 심방의 입무 의례인 신굿은 <초공본풀이>의 내용을 모방함으로써 의례 행위가 신화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화적 사실을 현실에 재연하여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원고적 질서로 회귀시켜 신성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47) 大林太良 著, 兒玉仁夫·權泰孝 譯,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6. 144-152쪽.

148) 현용준(1992), 앞의 책, 290-294쪽.

149) 현용준(1992), 앞의 책, 296-299쪽.

150) 현용준(1992), 앞의 책, 299쪽.

### 3. 역례 올림을 통한 굿법의 학습과 사회적 인정

<초공본풀이> 후반부에 보면 삼시왕이 유정승 따님에게 무구를 내어 주는 대목이 나온다. 삼시왕은 무구를 내어주기 전에, 먼저 유정승 따님에게 지금까지 굿을 하며 벌어들인 역가(役價)를 모두 바치라고 명령한다. 역가를 바치면 신의 제자로서 하신충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약밥약술도 먹이고, 어인타인도 찍어 준 후, 삼천기덕·일만제기·궁전궁납을 내어주겠다는 것이다.

역가(役價)를 바치는 부분은 <당주맞이>의 소재차인 ‘예개마을굿’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개마을굿’은 심방이 약밥약술을 먹고 어인타인을 맞아 삼시왕의 허락을 받은 후, 삼시왕에서 내어준 무복을 입고 무구와 무악기를 가지고 소미와 함께 상단골 집으로 굿을 하러 가는 의식이다. 이 때 굿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온 심방은 짐을 풀어 놓고, 굿을 해서 벌어들인 떡, 쌀, 광목, 닭고기, 계란 등을 당주상에 올린다. 이것은 굿을 하여 벌어들인 역가(役價)를 무조신에게 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심방에게 있어 역가(役價)를 올리는 행위는 신의 덕으로 무업(巫業)을 하며 살아가는 대가로 바치는 것이기에, 굿의 영력(靈力)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의식이다. 심방은 “신의 덕에 입고, 먹고, 자고, 행동발신”해 왔기 때문에 그 대가를 신에게 바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굿은 심방이 ‘신의 덕으로 벌어들인 역가(役價)’, 즉 심방 일을 하여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의례인 역례(役禮)라 할 수 있다.<sup>151)</sup>

제주도의 심방은 세 번 신굿을 해야 한다. 처음으로 역가를 올리는 초역례(初役禮)를 바치면 초신길이 바로 잡히게 되고, 이역례(二役禮)를 바치면 이신길이, 삼역례(三役禮)를 바치면 삼신길이 바로 잡히게 된다. 역

151)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222쪽.

가를 올리는 역례의 횃수만큼 심방의 신길이 바로 잡히게 되어, 올바른 굿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심방의 입무 의례인 신굿에서 역가 올림은 신에게 드리는 감사와 굿의 능력 보장이라는 의미 이외에, 신입무에게 굿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심방 사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받게 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신굿은 <큰굿> 중에서도 가장 <큰굿>으로 제주도의 무속 제의 중 가장 규모가 큰 굿이다. 사가(私家)에서 하는 ‘큰굿’의 내용에다 심방으로 거듭나게 하는 입무 의례(入巫儀禮)로서 <당주맛이>의 여러 제차가 삽입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굿이다. 신굿은 필요한 모든 의례를 연속적으로 다하는 종합제로 4~5명 이상의 심방이 동원되어 ‘두 이레 열나흘’ 동안 진행되는 규모가 큰 굿이기 때문에, 굿법을 잘 아는 경륜 있는 심방만이 굿을 할 수 있다. 심방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 있는 명도를 물려받고, <초공본풀이>에 근거하여 심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굿법에 맞게 굿을 사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심방이 되는 굿인 신굿을 통해 능력 있는 심방의 굿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굿은 심방이 자기 집에서 스승이 되는 원로 심방을 청하여 <큰굿>을 함으로써, 스승으로부터 옛 법대로 굿을 배우고, 수심방이 인도하는 대로 굿법에 따라 굿을 하여 심방의 정도를 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리는 신입무의 학습 기회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심방들 간의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한다. 수심방이라 할지라도 굿법에 어긋난 굿을 할 경우,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굿법으로 다시 굿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주도의 굿이 이처럼 완벽한 굿법을 전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전승 방법 때문일 것이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에는 심방들의 모임인 ‘신도회’라는 것이 있었고, 그 대표를 ‘도황수’라고 하였다. 신도회 이후에는 ‘경신회’가 그와 비슷한 구실을 했다. 이 신도회에서는 입춘굿과 같은 <큰굿>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고, 이 회에서 인정을 해야만 빨간 관대를 입고 심방 일을 할 수 있었다. 조선 시대 행정의 수장을 제주목의 목사라고 한다면, 무격 집단의 우두머리가 도황수다. 도황수는 심방 집단의 원로들 중 가장 ‘웃어른’으로서, 굿판에 참여하여 ‘굿법’대로 굿을 하는가를 평가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sup>152)</sup> 따라서 <큰굿>은 원로 심방들의 참관 아래 이루어진다. 수심방이 굿을 진행해 나가면, 참관하고 있는 원로 심방들은 굿법에 따라 굿을 잘 하고 있는가를 심사한다. 굿법에 어긋난 굿을 하면 호되게 욕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원리에 적합한 굿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굿을 하는 심방은 토론과 원로들의 상담을 거쳐 지금까지 잘못 배운 오류를 시정하면서 굿법을 보완하고 전승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 심방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굿법 전승방법은 신굿이라는 입무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경력 있는 수심방이 주관하는 굿을 관람하고, 굿에 참여한 원로 심방들의 토론과 상담 과정을 통해 신입무는 바른 굿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또한 신굿은 심방 사회의 인정을 받는 공식적인 의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심방은 역례를 바친 횃수만큼 심방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초역례(初役禮)를 바치면 하신충, 이역례(二役禮)를 바치면 중신충, 삼역례

---

152) 도황수는 제주도에서 굿을 가장 잘 하고, 신의 내력을 가장 잘 아는 큰심방이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심방 조직에서 어떤 굿을 시킨 다음 그 실력을 보아 심방을 6~7등급 정도로 구분하였으며, 도황수는 심방 조직의 회의를 통해 지명을 하여 선출하였다. 옛 도황수는 대개가 남자였고 약 200년 전에는 신황수라는 신씨 성을 가진 심방이 아주 유명하였고, 1950년~60년대에는 이달춘, 이원백, 고봉선과 같은 심방들이 도황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1970년대까지 활동한 큰심방을 꼽아보면, 고봉선(남), 문옥선(여), 강종환(남), 양금석(남), 정두삼(남), 정주병(남), 고명선(남), 박인조(남), 이달춘(남), 한옥녀(여), 강대경(남), 이원백(남), 한향림(여), 허정화(남), 박산홍(여), 강봉언(남), 이순애(여) 등을 들 수 있다. 옛날부터 제주도에서는 북제주군에 뛰어난 심방이 많았고 남제주군에는 북제주군에서 배워다가 굿을 했으며, 굿을 잘 하는 심방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북제주(목관) 심방에 비하면 남제주 심방의 실력이 영성하고 뒤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목관 심방 왔다고 하면 남제주 심방들은 벌벌 떨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남제주에서도 큰심방으로 김용주와 박생옥이 유명했다고 한다. 현재 제주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심방으로는 이중춘, 양창보, 김윤수, 김만보, 김윤보, 한생소, 강순선, 문순실 등이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앞의 책, 27-29쪽)

(三役禮)를 바치면 상신층으로 오른다. 그러므로 큰 심방이 되기 위해서는 굿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신에게 역가를 바치는 신굿을 3회 이상 해야만 한다. 심방은 역례를 행함으로써 자신이 벌어먹은 것의 일부를 심방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벌어먹은 역가를 신에게 바치는 역례의 횟수만큼 심방사회에서 큰심방으로의 지위 상승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sup>153)</sup>

심방의 입문 의례인 제주도의 신굿은 심방이 굿[巫業]을 하여 벌어먹은 역가를 신에게 바치는 역례이다. 당주는 이러한 역례 올림을 통해 하신층으로, 또는 하신층에서 중신층으로, 또는 중신층에서 상신층으로 심방 사회에서 큰심방으로 공인 받게 된다. 또한 경력 있는 큰심방들을 초빙하여 굿에 대한 토론의 기회, 차례차례 재차례 굿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의 대가로 바른 굿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

153) 제주도 편(1997), 앞의 책, 222-223쪽

## V.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초공본풀이>를 근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신긋의 원리를 밝힘으로써, 제주도 심방이 가지는 독특한 면모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심방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심방의 입무 의례라 할 수 있는 신긋을 무조신화 <초공본풀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초공본풀이>와 신긋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 <초공본풀이> 신화의 단락을 구분하고 각 단락이 어떤 관계 아래 체계를 이루는가 하는 <초공본풀이> 전체의 질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공본풀이>가 무조신의 내력담과 심방의 내력담이라는 위계가 다른 두 시조(始祖)의 본풀이가 연속되어, 신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초공본풀이>와 신긋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III-1절에서는 제주도 무속 사회에서 신긋이 가지는 의미와 신긋 속에서 <초공본풀이>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공본풀이>는 신화의례와 영신의례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구송되는 신화이며, 그 중에서도 영신의례인 <당주맞이>와 <초공본풀이> 후반부 심방의 내력담이 긴밀하게 결합하여 심방의 입무 의례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2절은 <초공본풀이> 후반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당주맞이> 제차를 심방의 ‘입무 허가’와 ‘정통성 확보’라는 두 개의 큰 목적을 가진 의례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진행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입무 허가는 ‘약밥약술’, ‘어인타인’, ‘예개마을긋’ 제차를 중심으로, 정통성 확보는 ‘당주길치기’, ‘굽은 명도’, ‘쇠놀림긋’, ‘당주다리 메어듬’ 제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신긋이 <초공본풀이> 신화에 근거하여 실현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의 논의를 토대로 제주도 심방의 입무 의례 특징을 아래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제주도 심방의 입무 의례는 명도 물림을 통해 사제권이 세습된다. 명도 물림은 조상 때부터 사용하던 무구를 대를 이은 자손에게 물려주는 의식으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무업의 기능을 전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굿 속에서 명도 물림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당주맞이>의 ‘곱은 명도’ 제차에서 숨겨진 명도를 찾아내는 과정을 연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을 상징적인 의미의 명도 물림이라 한다면, ‘공시풀이’나 ‘쇠놀림굿’에서 신입무가 모시고 있는 명도의 내력과 그 명도를 물려받게 된 사연을 직접 신에게 고하는 것은 실질적인 명도 물림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명도는 신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명도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 신의 영력까지 함께 물려받는 것이 되며, 심방 조상들이 명도를 가지고 정도에 맞는 바른 굿을 사제했듯이 신입무 또한 명도를 물려준 조상의 바른 굿법을 계승하게 된 것이다.

둘째, 제주도 심방의 입무 의례는 <초공본풀이>의 모방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한다. 입무 의례는 평범한 사람이 일정한 형태의 시험을 치른 다음, 신성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시베리아 계통의 샤만과 우리나라 강신무의 경우, 예언과 같은 신비한 능력을 갖추는 행위가 무(巫)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비해, 제주도 심방은 신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모방함으로써 심방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신성성을 확보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심방의 입무 의례인 신굿은 <초공본풀이>를 근거로 하여, 신화 속에 등장하는 최초의 심방인 유씨 부인의 행위를 신입무로 하여금 그대로 재연하게 함으로써, 유씨 부인이 가졌던 모든 능력과 자격을 그대로 신입무에게 계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제주도 심방은 신굿 즉 역례 올림을 통해 굿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심방 사회에서 인정받게 된다. 신굿은 심방이 ‘신의 덕으로 벌어들인 역가(役價)’, 즉 심방 일을 하여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역례(役禮)라 할 수 있다. 신긔에서 역가 올림은 신에게 드리는 감사의 의미 이외에, 신입무에게 굿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심방 사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받게 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결국 신긔은 심방이 굿을 하여 벌어먹은 역가를 신에게 바치는 역례로써, 이러한 역례 올림을 통해 하신층으로, 또는 하신층에서 중신층으로, 또는 중신층에서 상신층으로 심방 사회에서 큰심방으로 공인 받게 된다. 또한 경력 있는 큰심방들을 초빙하여 굿에 대한 토론의 기회 뿐 아니라, 차례차례 재차례 굿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의 대가로 바른 굿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신화와 제의의 관계를 무시한 채 신화와 제의를 개별적으로 다루어왔던 기존의 연구경향을 반성하며, 신화와 제의의 관계 속에서 심방의 입무 의례의 특징을 밝히고자 시도했다. 이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제주도 심방의 입무 의례 내용과 특징이 밝혀졌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무 의례를 신화와 신긔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본 제한된 범위에서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심방의 독자적인 면모를 모두 드러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 심방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신화와 제의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굿의 각 국면에서 드러나는 심방만의 독특한 면모들에 대한 분석, 심방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무(巫)에 대한 관념, 신앙민들이 심방과 그들이 사제하는 무속 제의에 대해 가지는 인식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자 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제주도의 무속음악』,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제주도 칠머리당굿준회, 1998.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赤松智城·秋葉 隆 공저,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上·下, 동문선, 1991.
- 제주도 편, 『제주도민속V: 민간신앙·사회구조』, 제주도, 1997.
-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편, 『제주도큰굿자료』, 도서출판 각, 2001.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 2. 국내 논저

- 강금숙, “초공본풀이와 불의 딸의 서사구조 연구”, 『이화어문논집』 12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2.
-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편, 『상상력의 자리찾기: 한국 문학의 상상력』, 백의, 1999.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제주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1.
- 김수남 외, 『제주도 영등굿』, 열화당, 1983.
- 김열규, 『한국문학의 두 문제-怨恨과 家系』, 학연사, 1985.
- 김열규 외, 『한국의 무속문화』 박이정, 1998.
- 김우주, “초공본풀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정숙, 『자청비·가쁜장아기·백주또: 제주도, 신화 그리고 여성』, 도서출판 각, 2002.
- 김인회, “내림굿, 성숙한 인격의 구도자로서의 전환”, 『황해도 내림굿』, 열화당, 1983.
-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7.
- 김재용, “제주도 신화의 서사구조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연구』 제10집, 원광대국문과, 1984.
-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 김현선, “제주도 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구조분석, 입무의례, 신화적 성격 규명을 중심으로”,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2002.
-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와 신굿”, 『비교문화연구』 5,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 문무병, “무조신화 초공본풀이”, 『제주문화』 6호, 제주문화원, 2000.
-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황금알, 2005.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 민속원, 1974.
- 설성경, “초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제주도민속언어논총』, 제주문화, 1992.
- 신월균, “초공본풀이의 구조 고찰”, 『국어국문학』 100집, 국어국문학회, 1988. 12.
- 유달선, “제주도 구비신화의 관계양상”, 『대구어문논총』 14집, 1996.
-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 윤교임, “여성영웅신화연구: 초공본풀이·삼공본풀이·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능화, 『조선무속고』, 동문선, 1991.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수자, “무신도 삼불제석의 신적 성격과 형성 배경: 무조신화 초공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집, 역사민속학회, 1994.
- 이수자,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16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8.
- 장윤선, “황해도 철무리 굿의 연행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장주근, “제주도 심방의 3명두”,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98.
- 장주근, “무조신화 초공본풀이”,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편, 『제주민속극』, 도서출판 각, 2003.
- 주강현, 『굿으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1992.
- 진성기, 『제주도 무속논고: 남국의 무속』, 민속원, 1966.
-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최길성, 『새로쓴 한국무속』, 아세아문화사, 1999.
- 최시한,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 『배달말』 11집, 배달말학회, 1986.
- 하순애,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하효길 외, 『한국의 굿』, 민속원, 200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방언자료집: 제주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홍나래, “무속신화와 칠성본풀이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홍태한, 『한국서사무가 연구』, 민속원, 2002.
- 현용준, “제주도 무속의례 연구”, 『논문집』 제17집, 제주대학교, 1975.
-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 현용준, “죽음과 재생 그리고 憑神체험: 제주도 신긋의 구성과 의미”,  
『제주도 신긋』, 열화당, 1989.
- 현용준, “무속신화 본풀이연구 서설”,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현용준, “한국신화와 제의”,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3. 국외 논저

- 미르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학민사, 1983.
- 미르치아 엘리아데, 『샤마니즘: 고대적 접신술』, 이윤기 역, 까치, 1992.
-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대담, 『신화의 힘』, 이윤기 역, 이끌리오,  
2002.
- 블라디미르 프로프, 『민담형태론』, 유영대 역, 새문사, 1987.
- V. Y. 프로프, 『민담의 역사적 기원』, 최야리 역, 문학과 지성사, 1990.
- 윌리엄 페이든, 『비교의 시선으로 바라본 종교의 세계』, 이진구 역, 청  
년사, 2004.
-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 이경덕 역, 까치,  
1995.
- 村山智順, 『조선의 귀신』, 김희경 역, 동문선, 1990.
- 大林太良 著, 兒玉仁夫·權泰孝 譯,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6.